



남도역사기행

① 전남 장성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남도역사기행 장성탐방을 떠나며

1. 전혀 처음은 아니지만, (사)인문연구원의 ‘공식적인’ 역사기행입니다. 처음 시작이 좋아야 한다는 ‘강박’과 미련한 ‘고집’으로 역사기행 자료집을 준비합니다.
2. 자료집에 장성의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탐방 장소는 반드시 다루되, 일정상 제외된 장소들도 비중을 두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중심을 잡았습니다. 먼저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이라 했습니다. 하여 유·무형을 모두 포함하여 ‘文’의 흔적을 찾아 읽고,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장성에는 남도의 ‘절의(節義)’ 정신과 실천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한말의병을 거쳐 독립운동을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3. 장성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한 『장성군사』에서 시작하여 신문기사까지 제법 많은 자료들을 구해 읽었습니다. 읽는 것과 정리하는 것의 간극이란 참! 제법 ‘열심’인 건 자부하는데, 너무 거칠고 방만한 것 같아 ‘거시기’합니다. 길으로는 준비 시간의 부족함을 내세우겠지만, 기실은 내공이 문제겠지요. 활용한 자료들은 각주를 달지는 않은 대신에 출처는 꼭 밝혔습니다. 어떤 글은 ‘짜깁기’이지만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자료집의 오류는 전적으로 편집자의 책임입니다. 많은 질정을 바랍니다.
4. 다음 기행은 ‘장흥’입니다. 동고송의 남도역사기행을 들은 적 있는, 장흥 거주 지인 으로부터 『장흥지방의 국란극복사』라는 책이 배송되어 왔습니다. 읽어야겠지요?

2021년 02월 18일



*장성은 최근에 홍길동의 고장으로 스스로를 표상하고 있다. 그러나 ‘文不如長城’이라는 말처럼 지난 시기 장성의 대표적인 정체성은 ‘문향’이자 ‘선비의 고향’이었다. 그만큼 유학의 전통이 깊은 곳이다. 먼저 장성 유학 전통의 초기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세 사람을 알아본다. 고려 말의 절효공 서릉, 조선조의 지지당 송흠과 아곡 박수량이다.

1 절효공 서릉

서릉徐稷은 본관이 이천利川, 자는 대방大方, 시호는 절효공節孝公으로 서희팔徐希八의 아들이다. 관직이 시중侍中까지 이르렀으나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향리로 내려왔다. 1246년(고종 33) 12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그 효성에 감동하여 그가 달이고 있던 약탕관에 모친의 종기를 고칠 수 있는 청개구리가 떨어졌다는 일화(감천수와感天隋蛙)로 유명하다. 그의 효성이 온 나라에 알려져 조정에서 정려를 내려 표창하였고 그의 시호를 절실한 효자라는 절효節孝라 하였다. 고려사 열전 효우편 서문에 “고려 500년간 효우로서 사서에 기록되어 정표된 경우는 10여인에 불과하다”라고 기록하였고, 서릉과 함께 11인을 소개했는데 전라도인으로는 유일하다. 또한 1421년(세종13)에 만든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도 실렸다.

서릉은 효자였을 뿐만 아니라 「거가십훈居家十訓」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교 가훈家訓을 지은 인물이기도 하였다. 이 글은 그가 1232년 모친상을 당하여 시묘하면서 지은 것으로 사람이 일생동안 지켜야 할 예법과 덕목을 10개 항목에 걸쳐 설명한 것이다.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부식삼강(扶植三綱, 삼강을 지킬 것), 돈서오륜(惇敘五倫, 오륜을 돈독히 하여 질서를 세울 것), 관이어하(寬以御下,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할 것), 예이사상(禮以事上, 예로써윗사람을 섬길 것), 임상치애(臨喪致哀, 상을 당하여는 슬픔을 다할 것), 당제치경(當祭致敬, 제사 때는 공경을 다할 것),



서릉정려비각(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대심이공(持心以公, 마음가짐을 공정하게 할 것), 처사이의(處事以義, 일을 처리할 때는 올바르게 할 것), 교자이정(教子以正, 자식을 바르게 교육시킬 것), 대인이서(待人以恕, 남을 대할 때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특히 각 항목의 말미에 자신이 서술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경전들이 논어·맹자·중용·서경·주역 등 사서삼경이어서 그가 성리학에 대해서 상당한 소양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상치애臨喪致哀 항목에서는 단상제短喪制를 비판하고 “슬픔을 다하는 예禮의 실체는 『주자가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진실로 이를 따라 행하면 상제喪制를 지극히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상제喪制를 『주자가례』에 따라 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제기되었던 13세기 후반이나 14세기 초반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로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뒤에 사암 박순이 1578년(선조11) 서릉의 비문을

쓰면서 「거가십훈」을 「여씨향약」의 우익(右翼)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1587년 장성현감과 선비들이 모암서원(慕巖書院)을 세워 그를 향사(享祀)했다는 사실에서도 장성지

역에서의 그의 학문적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2 지지당 송흠

장성 황룡강 지류인 용암천을 사이에 끼고 이웃하여 두 개의 정자가 있다. 관수정과 기영정이다. 모두 지지당(知止堂) 송흠(宋欽, 1459~1547)과 관계가 있다.

기영정은 전라도 관찰사 규암 송인수(1499~1547)가 1543년 중종의 어명을 받아 지었다. 기(耆)는 ‘나이가 많고 덕이 높다(年高德厚)’는 뜻으로, 나이가 70이 되면 기(耆), 80이 되면 노(老)라 한다. 영(英)은 풀이나 식물 중에서 가장 빼어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영정은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노인 중에서 가장 빼어난 사람을 기리는 정자’라는 의미다.

다음은 규암이 중종의 어명을 받아 지지당을 위해 기영정을 짓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1544년 3월 22일의 『중종실록』의 기록이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송흠은 이 고을 사람이고 정자는 곧 송인수가 조정에서 숭상하고 장려하는 뜻을 이어받아 세운 것인데, 이때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어 영광스럽게 해 준 것이다. 송흠은 청결한 지조를 스스로 지키면서 영달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걸군(乞郡)하여 10여 고을의 원을 지냈고 벼슬이 또한 높았었지만, 일찍이 살림살이를 경영하지 않아 가



“바람이 불다가 물결이 고요하면 물속에서 헤엄치는 고기비늘까지 세어볼 수 있고, 아침 햇살과 저녁 그늘에 기이한 모습과 만 가지 형상, 이는 모두가 정자의 아름다운 절경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견에 불과한 것으로, 그 물결을 보면 물에 근본이 있음을 알며, 그 맑음을 보면 마음의 사악한 점을 씻게 되니, 그런 연후에야 가히 물의 참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자손들은 여기에 힘쓸지어다.” 知止堂主人自敘에 있는 말인데, 지지당은 멈춤 줄을 아는 집(堂)이란 뜻이다. <도덕경> 제44장에는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춤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따라서 오래 갈 수 있다 [知足不辱知止不殆可以長久]”고 하였고, <대학>에도 “멈춤을 알아야 뜻을 정할 수 있다[知止而后有定]”고 하였다. 50여년에 걸친 환해풍파 속에서도 스스로를 올곧게 지킨 비결이리라.

족들이 먹을 식량이 자주 떨어졌었다. 육경(六卿)에서 은퇴하여 늙어간 사람으로는 근고(近古)에 오직 이한 사람뿐이었는데, 시냇가에 정자를 지어 관수정이란 편액을 걸고 날마다 한가로이 만족하게 지내기를 일삼았으므로 먼 데서나 가까운 데서나 존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중략)… 그의 어머니도 가법이 또한 엄격하여 감히 의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고 나이가 1백 살이었다. 송흠 또한 90살이 가까운데도 기력이 오히려 정정하였다. …(중략)… 도내(道內)에서 재상이 된 사람 중에 소탈하고 담박한 사람으로는 송흠을 제일로 쳤고, 박수량을 그 다음으로 친다고 하였다.”



기영정(耆英亭).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있다. 1543년 가을 전라감사 규암 송인수가 송흙을 위하여 조성한 관가정자. 송인수는 충청도 청주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과 학문을 열심히 닦은 청렴한 선비였다. 1521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가 되고, 1525년 박사, 수찬을 거쳐 정언, 부응교를 지낸 인물이다. 1547년 가을 문정왕후를 ‘여주(女主)’로 비판한 ‘양재역벽서사건’으로 사약을 받았다. 이해 겨울 송흙도 세상을 떠났다.

송흙(1459-1547)은 1459년(세조4) 장성군 삼계에서 아버지 송하원과 어머니 하동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신평新平, 자는 흠지欽之, 호는 지지당知止堂,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어린 시절 이웃 마을 봉인(奉寅)의 서당에서 배웠다. 모친이 보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오라는 다짐을 어기자 한밤중인데도 쫓아보냈다고 한다. 실록의 기사처럼, “가법(家法)이 엄격하고 결코 의리에 어긋나는 법이 없었다.”



만곡사. 1793년(정조17) 하음 봉씨 문중에서 봉여해(1419~1456)를 위하여 세운 사우. 송흙이 어린 시절 공부한 마을에 있는데, 그는 서당 주인의 사위가 되었다. 처가의 아픔은 깊었다. 처조부 봉여해가 ‘단종복위운동’으로 처형당했던 것이다. 하음은 경기도 강화도의 옛 이름인데, 봉씨 일가는 세자 시절 문종의 배필인 순빈(純嬪)을 배출할 만큼 번창하였으나, 봉여해가 처형되면서 일가가 이곳으로 내려와 살았다. 봉여해는 일찍이 박팽년·성삼문과 함께 수학했다. 박팽년의 매제이기도 하다.

1480년(성종11) 21세의 젊은 나이로 사마시에 오른 후 1492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로 첫 관직을 받은 이후 8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연산군의 난정기를 제외하고는 허리에서 인수가 떼어지지 않았다.

이행, 김안국, 성세창, 홍언필, 정사룡 등과 호당에서 독서한 그는 기묘사화 이후 전주·광주·나주·담양·장흥의 수령을 들었다.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노모를 봉양하는 것 외에는 처자와 노복이 겨우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뿐이었으며 관직이 갈려 돌아오는 날에는 집의 항아리에 남아 있는 곡식이 한 섬도 되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청반·청렴하여 명성을 얻었고 이 때문에 ‘삼마태수(三馬太守)’로 칭송되었고, 염근인廉謹人으로 표리表裏를 하사받는 등 7번이나 상을 받았다.

금남 최부와의 인연

1492년(성종23) 문과에 들고 홍문관에 봉직하였다. 무오사화 전야 휴가 내려왔을 때였다. 마침 최부도 고향 나주에 있던 차라 반갑게 찾았다. 탁월한 식견과 매서운 언론으로 훈구파의 안일과 연산군의 방종에 맞서던 선배였다. “무슨 말을 타셨는가?” “역마(驛馬)...” 최부는 정색하였다. “사행(私行)에 공용의 역마를 타다니!” 송흙은 아찔하였다.

두 사람의 몽클한 사연은 계속된다. 무오사화에 걸렸던 최부가 갑자사화로 끌려왔을 때였다. “혹여 마음에 걸리시는 일이라도?” “부모의 석물(石物)을 갖추지 못했고, 막내딸이 시집가지 않았다고요.” 아들 없이 딸만 셋이던 처지에 묘소에 비석을 세우지 못하고 셋째 딸의 혼사가 걱정이었던 것이다. 송흙은 잊지 않았다. 담양 창평에 살던 김분(金琿)을 중매하였다. 영광군수 김자수(金自修)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1533년(중종 28) 전라감사 시절 무안군 몽탄에 있던 최부의 선산을 찾아 비석을 세웠다.

1519년(중종14)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낙향하여 관수정이란 정자를 짓고, 박우, 양평손, 송순, 임억령, 오겸, 나세찬, 김인후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류하며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는 최산두, 윤구, 조광조 등 기묘명현들과 가까웠다. 특히 양팽손, 송순, 나세찬은 그의 제자들이며 양팽손의 아들인 송천 양응정도 그의 학맥과 이어지는 인물이다. 문집으로는 지지당유고(知止堂遺稿)가 있는데, 우참찬에 임명되자 서울에 올라가 임금을 알현하고 사직을 청하여 허락받아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記行錄』이 포함되어 있다.

관수정 내에는 송흙의 품었던 뜻이 두고두고 외롭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듯 해서 김인후를 비롯하여 당시 명망 있는 문인들(홍언필, 성세창, 김익수, 신광한, 안처함, 소세양, 정사룡, 이문건, 나세찬, 정희홍, 노극창, 정순명, 강중수, 오겸, 유부, 유사, 박우, 송호립, 송익경, 김안국, 임억령 등)의 시가 현판되어 있다.

한편, 송흙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송흙은 일찍이 병조판서, 장흥부사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수군을 개혁하자는 건의를 하였다. 1544년, 왜구가 경상도의 사랑진 포구를 습격하여 수군들이 죽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86세의 송흙은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린다. 백병전에 능한 왜구를 막으려면 수군을 보강하고, 기존의 수군 배인 맹선(猛船) 대신에 판옥선을 만들 것을 건의한다. 맹선은 평시에는 조운(漕運)선으로, 전시에는 군선으로 이용되는 배였는데, 실제 전투에 배치된 맹선들은 해상에서 왜구를 만나면 속도가 느리고 기동이 둔하여 맹선에

비하여 선체가 작고 날렵한 왜구의 배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리고 1555년 5월 을묘왜변을 겪으면서 조선의 해안 방위를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시 송흙의 상소를 검토했고, 송흙이 건의한지 11년 만에 판옥선을 만들기에 이른다. 이후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큰 활약을 하였다.



송흙의 묘소는 단출하다. 망주가 좌우에 있고, 묘 앞에는 '송정대부 판중추부사 송공지묘'라고 적혀 있는 묘비, 무덤 옆에는 거북이 등위에 세워진 묘갈비가 있다. 묘갈비의 윗부분에는 '판중추부사 겸 세자이사世子貳師 지지당 송선생 묘갈명'이라고 적혀 있다. 묘갈명은 소론의 영수인 명재 윤증이 지었는데, 그의 제자이자 송흙의 7대손 옥강 송명현(1659-1743)의 부탁을 받아 1683년 지은 것이다.

3 아곡 박수량

박수량(1491-1554)은 본관은 태인, 호는 아곡, 시호는 정혜이며 박종원의 아들로 장성에서 태어났다. 연산군의 폭정에 저항했던 옥과현감 김개金漚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유성춘과 동방(同榜)으로 중종 8년(1513)에 진사시에, 이듬해 문과에 합격하여 관계에 진출했다. 여러 대간직을 거쳐 지중추부사에 이르기까지 38년간 관

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오랜 관직생활에도 청렴, 결백, 강직하여 청백리로 여러 번 표창을 받았다.

1554년 그가 죽자 대사간 윤춘년이, 박수량이 서울에서 벼슬살이 할 때도 남의 집에 세 들어 살았으며 그의 가족들이 상여를 모시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가려 하나 형편상 어려우니 포장(褒獎)하여 사풍(土風)을 권장할 것을 청했다. 이에 명종은 매우 슬퍼하며 관인들로 하여금 호송케 하고 상수(喪需)를 제공하고 증직하도록 전교하였다. 『명종실록』에서는 박수량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백)수량은 호남 사람이다. 초야에서 나와 좋은 벼슬을 두루 거쳤으며 아버지를 위하여 여러 번 지방에 보직을 청하였다. 일처리가 매우 정밀하고 자세했으며 청백함이 더욱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아들이 일찍이 서울에 집을 지으려 하자 그는 꾸짖기를 ‘나는 본래 시골 태생으로 우연히 성을 입어 이렇게까지 되었지만 너희들이 어찌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하였으며 그 집도 10여 칸이 넘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종종께서 특가(特加)로써 포장하여 지위가 육경에까지 이르렀지만 그가 죽었을 때 집에는 저축이 조금도 없어서 처첩들이 상여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으므로 대신이 임금께 제청하여 겨우 장사를 치렀다. 비록 덕망은 없었지만 청백의 절개 한 가지는 분명히 세웠으니 세상에 모범이 될 만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청백하여 급속(急促)한 실수가 많았다. 그의 청렴은 천성에서 나온 것이지 학문의 공(功)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박수량이 학문의 공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문집을 비롯해 직접 남긴 자료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데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기묘사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묘사화 직후인 1520년 사간원 정언이었던 그는 동료들과 함께 궁중에서 여악(女樂)을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1523년에는 대간들과 함께 소격서 혁파를 주장하였다. 1537년 경연에서는 궁위(宮闈)가 엄하지 않은 것과 여악(女調) 등 궁중과 관련된 폐단을 엄히 다스릴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기묘사림의 도학사상, 지치주의(至治主義)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의 사상은 청백함으로 더욱 뒷받침되었다. 장성 황룡면 금호리에 있는 그의 묘소 앞에는 백비(白碑)가 세워져있다. 청렴결백의 내용을 비에 새기는 것이 오히려 그의 청렴함을 잘못 알지 않을까 염려해서였다고 한다. 다시 『명종실록』의 사신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신은 논한다. (백)수량의 엄근(廉謹)은 남쪽 선비의 으뜸이었다. 윤춘년이 경연에서 “수량의 청백(清白)을 포장(褒獎)하여 사풍(士風)을 권려해야 한다.” 고 아뢰

었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 겉으로는 청근(淸謹)한 듯하나 실상 안으로는 비루한 자들은 어찌 이마와 등에 땀이 흐르지 않았겠는가.

문장이 뛰어났으나 청백리라 공적을 남기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그의 시문이 남겨지지 않았고 1945년에 후손이 간행한 아곡실기(莪谷實記)에 시 4수, 부 5수가 전할 뿐이다. 그는 뒤에 서릉이 모셔져 있는 모암서원에 배향되었다.



박수량 묘역의 백비와 신도비. 1786년(정조 10) 박수량의 후손은 시호를 거듭 건의하였다. 그러나 선조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무엄하다는 타박까지 받았다가, 1805년(순조 5)에야 ‘정혜(貞惠)’란 시호가 내려졌다. 청백으로 절개를 지키는 ‘청백수절(淸白守節)’과 백성을 아끼며 즐거움을 같이한다는 ‘애민호여(愛民好與)’의 뜻이다. 그리고 1887년(고종 24) 송병선의 글과 최익현의 글씨를 받고 묘역 아래 신도비를 세웠다.

참고자료

- 장성군사편찬위원회, 『장성군사』, 1982.
- 김세곤, 『청백리 송흙』, 온세미로, 2011.
- 김세곤, 『청백리 박수량』, 온세미로, 2012
- 고영진, 『장성 지역의 유학 전통과 특징』, 『역사학연구』 55집, 2014
- 신문기사, 조선일보 연재 <이종범의 호남인물열전>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을 찾아

*하서 김인후는 장성 유학을 발전시킨 장본인이자 나아가 16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룬 거유(巨儒)로서 조선성리학의 성립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훗날 김인후는 문장과 절의와 학문을 아우르는 사표가 된다는 평가를 받아 문묘에 배향된 유일한 호남인이었다. 하서 김인후와 그를 모신 필암서원을 찾아간다.

1 하서 김인후

가계와 혼맥

김인후의 관향은 울산으로 자는 후지이고 호는 하서 또는 담재이다. 그는 1510년(중종5)에 태어나 1560년(명종15) 5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시호는 현종 10년에 문정공이라 하였으나 정조20년에 다시 문정공으로 내려졌다. 그가 장성에 뿌리를 두게 된 것은 김인후의 5대조인 김온이 1423년(태종13) 세자책봉 문제에 연루되어 사사되자 정부인 민씨가 3형제(달근·달원·달지)를 거느리고 장성 맥동에 내려와 정착하게 되면서부터다. 김인후의 고조부는 김달원, 증조부는 김의강, 조부는 김환이다. 아버지는 김령으로 의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어머니는 옥천조씨이다.

김인후는 14세 되던 해(1523년) 여흥윤씨 진안현 감 윤임형의 딸과 혼인을 하고 2남 4녀를 두었다. 김인후와 혼맥으로 연결되는 가계는 여섯 곳이고 이 가계는 많은 방계의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다. 큰 아들 중룡은 태인의 일제 이항의 사위가 된다. 둘째 아들 중호는 진벽의 딸과 혼인했는데, 김인후의 혼맥은 중호의 아들인 남중을 통해 기대승의 딸을 손자며느리로 맞는다. 또한 조림의 아들이자 자신의 문인이었던 남원 출신의 조희문을 사위로 맞아 자신의 학문을 전수하고, 담양 소쇄원



‘문정공하서김선생진상(文正公河西金先生眞像)’. 작자 및 연대 미상 초상화의 판각본. “용모만 보아도 속세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명종실록’의 사평이나 “술 취해 부축받으며 산보하면 신선처럼 보였다”는 문인 정철의 회상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규경도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주저 없이 “동국 제일의 풍채(風采)”라며 하서를 꼽았다.

의 주인인 양산보의 아들 양자징을 사위로 삼아서는 학술과 세상의 인정을 토론한다.

또한 김인후는 오래된 지기였던 담양의 유희춘이 유희형流刑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유경렴을 사위로 맞아들인다. 유경렴을 사위로 삼는 것은 유희춘과의 오래된 신의를 지키는 일이었다. 유희춘과 김인후

는 성균관에서 공부하였는데 김인후가 염병에 걸려 위급하게 되자 유희춘은 그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극진하게 간호하여 살려냈다. 김인후는 이 은공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 유희춘이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귀양을 가게 되자 “그대가 이제 먼 곳으로 귀양 가는데 처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다 그대의 어린 아들은 내가 사위로 삼을 것이니 그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수학과 출사

김인후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5세에 천자문을 이미 통달하고 6세에 상원석과 하늘을 운으로 하는 시를 지을 정도로 문장력을 갖추고 있었다. 8세에 전라도 관찰사 조원기로부터 ‘장성신동 천하문장’이라는 칭찬을 받는다.

9세에는 복재 기준에게 “우리 세자의 신하가 될 만하다”고 칭찬을 들으면서 붓 한 자루를 선물로 받았다.

10세에 모재 김안국이 호남에 관찰사로 와 있을 때, 그를 찾아가 소학을 배우고 대학·논어·맹자·중용·오경에 이르기까지 학문에 정진하였다. 김안국은 ‘나의 어린 벗 [少友]’이라 부르며 보살폈다.

18세 되던 해에 기묘사화로 인해 화순 동북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신재 최산두를 찾아가 수학하면서, 사서·오경·제사·시책뿐만 아니라 천문·지리·백가 등에 이르기까지 능통하게 되었다.

늦재 박상과도 인연이 있다. 박상이 나주목사를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은퇴하고 향리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찾아온 김인후에게 시를 주었다. “사립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기 어려운데 세상사를 벗어난 그대 품모 어찌 시비가 있을쏴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이한 아이는 마지막이 좋지 않은 법인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19세 되던 1528년에는 성균관에 나아가 시험을 보는데, 칠석을 주제로 한 시(칠석부)를 지어 장원을 하였다. 22세인 1531년에 대곡 성운, 화담 서경덕, 휴암 백인걸, 임당 정유길 등과 함께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이때 퇴계 이황, 미암 유희춘 등과도 깊

은 사귀를 갖는다.

성균관에서 9년을 보내고, 1540년 31세 되던 해 별시 문과 병과에 합격하여 종9품인 권지승문원 부정자가 된다. 이 때 손윗동서인 김약목도 대과에 합격하여 장인인 윤임행의 집안에서는 축하잔치를 베풀었는데, 당대 문장가였던 면암정 송순도 초대되었다.

대과에 급제한 다음해(1541년) 김인후는 홍문과 정자 겸 경연 전경 춘추관 기사관에 제수된다. 그리고 여름 4월에 휴가가 내려져 호당에서 글을 읽었으며, 함께 뽑힌 열두 사람과 더불어 계를 가졌으니 이를 기록한 것이 호당수계록이다. 이 무렵 서울 안암동에 평천장을 지었다.

고려대학교, 왜 안암동에 있을까?

고정주가 세운 창평 영학숙은 기삼연의 제자 송진우, 백관수, 김병로 등을 배출하였다. 바로 이곳에서 김인후의 후손인 김시중과 김성수도 동문수학하였다. 김시중은 1920년 장성에 월평보통학교를 설립하였고(김시중은 후술), 김성수는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하였다. 1932년 3월 천도교가 운영하다 재정난에 빠진 보성전문학교를 김성수의 주도로 중앙학원이 인수하였고, 현재 학교가 위치한 성북구 안암동으로의 이전은 1934년 9월에 이루어졌다. 이때 김인후의 13대손인 김성수는 김인후가 문과에 급제하고 이듬해 서울에 거처할 집으로 지은 평천장터를 찾아 옮긴 것이다. 김인후의 평천장은 당시에는 ‘안함동’이었다고 하니, 안함동이 지금의 안암동이란 사실을 확인하고서 보성전문학교를 그 자리로 옮긴 것이다.

인종과의 만남

김인후는 중종 26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9년 뒤인 중종 35년에 대과에 합격하여 조정 신료로서 활동하게 된다. 1542년 홍문관 저작으로 승진된 이후 바로 다음해 여름 4월에 정7품인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설서로 승진된다. 세자시강원은 세자를 모시고 공부하는 곳으로, 김인후는 당시 세자였던 인종의 교육을 맡음으로써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다. 인종과의 만남은 김인후에게 있어 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었다.

김인후는 인종의 세자시절 스승으로서 인종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인종은 김인후에게 직접 그린 목죽도를 하사하였고, 김인후는 목죽도에 인종에 대한 군신의 예를 시로서 표현하였다. “뿌리 가지와 마디 잎사귀는 빈틈없이 촘촘하고, 돌을 벗 삼은 정갈한 뜻은 한 폭에 가득하네. 성인의 영혼이 조화와 짝하시니, 어김없이 천지랑 한 덩어리로 뭉치셨네.” 또 김인후에게 성리학의 전범인 『주자대전』 한 권을 선물했다. 물론 술도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인종대왕 목죽도의 목판(왼쪽) 및 채색인본(彩色印本). 대나무는 단단하고 곧으며 비어있고 매듭이 있어 선비의 표상과 같았다. 그래서 많은 선비들이 대나무를 차군(此君) 즉 친구로 여겼다. 혹여 세자 또한 김인후와 대나무와 같은 목계를 맺었는지 모른다. 훗날 나주에서 인종의 목죽도를 목판에 새겼으며, 인종의 능침인 효릉(孝陵)의 재실에는 인본을 걸었다.

역(逆)이지만 기실은 충(忠)이다.

조정은 평온하지 못했고 왕실은 어수선했다. 이른바 대운과 소운의 갈등! 세자의 외숙인 윤임 세력과 문정왕후가 낳은 경원대군의 외숙인 윤원형 세력이 격돌했다.

이런 와중에 동궁전에 화재가 발생했다. 실화(失火)를 가장하여 세자를 위협하려는 방화였다. 김인후는 ‘화

재는 우연이 아닌 인재(人災)이자 임금이 바르게 몸을 닦고 백성의 생활과 교화에 성심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하늘의 경고’임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면서 “오늘날 선비는 가슴에 담아두고 그 본심을 드러내 펼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정직하고 현명한 인재는 임금 앞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기묘사회와 같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해야 할 이유를 던지시 천명한 것이다.

또한 경연에서 조광조·김식·김정·기준 등의 기묘명현의 사면복권을 조심스레 사퇴었다. “근래 죽어도 죄가 남는 심정·이항 같은 소인은 복직되었는데, 비록 일처리가 일시 잘못되었어도 본심은 나라를 속이지 않았던 이들은 성은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숭상하였다고 ‘소학’과 ‘향약’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너무 낮았다. 이틀 후 낮 경연에서 분명히 밝혔다. 이언적까지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며 가세하였지만 임금은 냉담하였다. “기묘인에게 마음 잘못은 없다할지언정 나라를 그르쳤다. 또한 그들은 ‘소학’과 ‘향약’을 걸치레로 여기고 내실에 힘쓰지 않아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깔보고 천한 자가 귀한 자를 업신여기는 폐단을 일으켰다.”

그러나 종종은 기묘사회를 집행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김인후가 정암 조광조 등을 옹호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 놓는 것과 같았다. 이를 통해 김인후는 자신과 기묘사람이 같은 입장이라는 사실과 문정왕후와 윤원형에 대치하여 인종을 옹립하는 세력임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이즈음 환해풍파(宦海風波)를 읊었다. “용의 얼굴을 보고 좋아하다가 비늘이라도 건드리면 어쩔 수 없어, 메마른 밭이라도 갈며 배움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양친 봉양을 구실로 옥과현감으로 내려왔다. 1543년 12월이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나고 김인후는 1544년 11월에 옥과현에서 종종의 승하와 인종의 등극 소식을 듣게 된다. 인종은 즉위 원년인 1545년 여름 5월, 명나라 사신이 국상의 조사로 오자 옥과에 있는 김인후를 제술관으로 불러들였다. 조정에 복귀했지만 인종은 이미 병이 깊

었다. 부왕의 상을 치르는 데 지나치게 정성을 다했던 탓이었다. 김인후는 문정왕후가 임금의 약 처방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했다. 그래서 자신이 의원의 처방에 동참하겠다고 하고 임금의 거처를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말은 바가 다르다 하여 거절당하자 부모의 병환을 이유로 옥과 입소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

훗날 이 사실은 안 효종은 “역(逆)이지만 기실은 충(忠)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계모라도 엄연한 모자관계에 있는 문정왕후를 의심하고 배척하였으니 죽을 죄에 해당하지만 임금의 폐유를 위해 직언하고 행동하였으니 충절이 된다는 것이다.

취옹(醉翁)이 되어 시를 읊다

그 해 가을 7월에 인종의 갑작스런 승하 소식이 들려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통곡하고 또 통곡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소생한 뒤에 병을 핑계로 관직을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일체 벼슬 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크나큰 좌절이었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문정왕후에 대한 비난도 숨기지 않았다. “황탄하고 음탕하며 폭정을 써서 호시탐탐 야욕만 마구 부려라. 궁실 사치 의복 사치 극에 달하고 유독 그 계집말만 달게 여겼네.” 그 계집은 달기이었으나 기실은 문정왕후를 빗댄 것이다.

심사는 너무 산란했고 인종의 죽음은 그만큼 애절했다. 인종과 함께 했던 꿈을 접어야 했다. 꿈을 접고 사는 신세는 새장에 갇힌 새의 신세와 같았다. 역울한 심경을 달래느라 하서는 곧잘 술을 마셨다. 이러한 심경을 취옹에 빗대어 읊기도 했다. “얼음과 숯불이 가슴속에 영겨있으니 이야말로 술 아니면 어찌 견디리.” 크나큰 뜻이 꺾이어 버려 술 마시는 일이 많았다.

을사사화(1545년)로 많은 교유를 잃자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옛그제 베인 나무 백 척 장송 아니런가. 적은 듯 두었던들 동량이 되리러니, 이후에 명당 기울면 어느 나무가 받치리?”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유배지에서 죽은 임형수를 위한 애사였다.

매년 인종의 기일이 가까워지면 글을 폐하고 객도

만나지 않은 채 날을 보내며 한 번도 문밖을 걸어 나간 적이 없었다. 기일에 이르러서는 술을 가지고 집 남쪽의 난산(卵山) 속에 들어가 한잔 마시고 한번 곡하고 슬피 부르짖으며 밤을 지새우고 내려왔다. 종신토록 이와 같이하여 한 번도 폐하지 않았다.



난산비와 통곡단

그러한 심경을 김인후는 유소사(有所思)란 제목의 시로 읊었다. “임은 서른, 나는 서른여섯. 새로 만남 기쁨 나누지 못하고, 한번 이별하더니 화살이더이다. 한창 때 해로할 짝 잃어버리고, 눈 어둡고 이 빠지고 머리는 희었네. 문혀 사니 봄가을 몇 번이더냐. 오늘에도 오히려 죽지 못했소.”

또한 간신의 모함으로 충신이 바로 서지 못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송사의 악비, 이소의 굴원을 생각할 때면 “어느 장수가 한 자루의 날랜 칼을 가져다가 충신을 해치고 나라 망친 간신놈 목을 벨고?”라는 시를 통해 그의 격렬한 감정과 복받치는 설움을 표출하였다. 하서의 한 평생은 슬픔과 좌절의 한 평생이었다. 그 뒤로 한 번도 벼슬길에 나간 적이 없었고, 서울에 올라간 적도 없었다. 김인후는 인종에 대한 의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내가 죽으면 옥과현감 이후의 관작은 쓰지 말라.”고 유언했다.

<천명도>에 '중(中)'과 '화(和)'를 쓴 까닭은?

김인후가 살았던 16세기는 사람에 의해 성리학이 정치철학으로 구현되고, 심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김인후는 도학을 존중하고, 성현의 법에 따르며, 백성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요순시대와 같은 훌륭한 정치를 일으키는 조광조의 경세론을 계승하였다. 이로 인해 중종에게 기묘명현의 신원과 어진 인

제를 등용하는 현량과의 복구를 건의하였다.

16세기는 조선 성리학의 심화기로, 하서는 정지운·이황·노수신·이항·기대승 간의 논변에 참여하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먼저 김인후는 “태극은 덕성의 본령이요, 서명은 학문의 기강이다”라고 하여 ‘태극’과 ‘서명’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정지운의 <천명도설>을 통해 본격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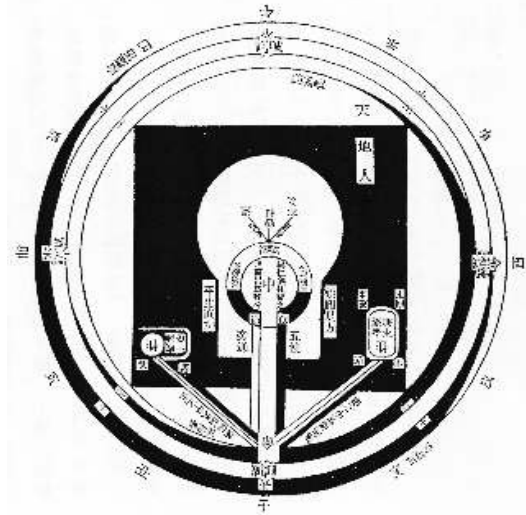
정지운이 이황에게 천명도를 보이기 전, 그는 모재 김안국과 사재 김정국에게 자신의 천명도에 대해 질정하였으나, “경솔히 강론할 수 없으니 후일을 기다리자”는 말을 들은 채 수정을 받지 못했다. 그리하여 정지운은 자신의 천명도의 옳고 그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서 김인후를 방문하게 되는데 1549년(명종4) 8월의 일이었다. 천명도의 평을 듣기 위해 순창 점암촌에 머물고 있던 김인후를 찾았던 것이다. 그런 뒤 얼마 안 되어 김인후는 자신의 천명도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전북 순창군 쌍치면 훈몽재 전경. 김인후는 1545년 옥과현감을 사직하고 순창 점암촌에 훈몽재를 짓고 강학에 힘을 기울였다. 김수항은 훈몽재를 ‘하서 선생의 무이(武夷)’라고 하며 주자가 강학한 무이정사에 견주었다. 이곳에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조희문, 양자정, 정철, 이지남, 기효간, 변성온, 신각, 윤기, 남언기 등 많은 제자들이 학문을 익혔다. 훈몽재 앞의 강변 메기바위(點巖)에서 학자들이 하염없이 ‘대학’을 외워 훗날 사람들은 이 바위를 ‘대학암’이라고 불렀다. 이 대학암에는 ‘대학’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다.

김인후는 정지운이 성(性)을 이(理)로 파악한 것과는 달리 중(中)으로 이해하였고, 사단과 칠정을 명시하지 않는 등 독창적으로 표현하였다. <천명도>의 한 가운데에 ‘중(中)’과 ‘화(和)’를 크게 적고 작은 글씨로 “인의예지의 이(理)를 두루 갖추었지만 혼연(渾然)하여 나눌 수 없다”고 하고 또 “희노애락구오욕(喜怒哀樂懼惡慾)의 인욕(人慾)은 과(過)·불급(不及)하면 악(惡)이지

만, 화(和)에 있으면 선(善)이다”라고 적었다. 즉 인간은 하늘의 길인 ‘중’을 본래 갖추고 있는데 인욕을 마음대로 발산하면 잘못이지만 ‘화’의 경지를 드러내면 착하다고 풀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욕이라도 천리에 귀속되면 선이 되며 (私)에 흐르지 않으면 공이 된다’고 하였다.



김인후에게 있어서 하늘의 본령인 ‘중’이며 ‘공’에 이르는 길은 사람의 생활과 감정에서의 ‘화’를 통한 ‘사’의 추방과 ‘선’의 추구에 있었다. <천명도>의 한 가운데에 ‘중’과 ‘화’를 크게 적은 까닭이다.

2 필암서원의 역사

김인후에 대한 숭모와 사액(賜額)

김인후의 학문적인 업적과 성리학적 선비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후학들은 그에 대한 숭모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하서 김인후의 넋을 기리는 사당을 건립하게 된다. 김인후가 세상을 떠난 4년 후인 명종 19년(1564)에 옥과현감을 지낸 그를 위해 옥과에 영귀사를 건립하였다. 선조 3년(1570)에는 순창 선비들이 화산사를 건립하고 뒤에 또 어암사를 세웠다. 선조 23년(1590)에는

변성운, 기효간, 변이중 등 장성의 선비들이 주도하고 호남 유림의 협조와 지방관의 도움으로 장성읍 기산에 서원이 터를 잡았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서원은 폐허가 되어 제사가 끊어지고 경서와 시를 외던 유생의 발길이 끊어졌다. 서원이 화염 속에 던져진 것은 의병의 산실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장성현 남문에 의병청을 세우고 김인후의 후손인 김경수를 맹주로 삼고, 기효간 등을 중심으로 의병을 소집했다. 역사에서는 이 일을 ‘남문창의’로 기록하고 있다. 남문창의 외에도 호남에서는 김천일과 고경명을 따라 곳곳에서 의병에 참여했는데, 그 정신의 기저에는 김인후가 있었다.

장성 기산 아래 있던 서원은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지 27년 만인 1624년(인조2)에 장성 황룡면 필암리 증산동으로 옮겨 짓게 되었다. 이어 효종 9년(1658)에는 전라도 유생들이 상소하여 사액을 청했는데, 조정은 이듬해 봄에 ‘필암’이라는 액호를 내리고 예관을 보내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사액과 함께 1668년(현종9) ‘이조판서 및 양관대제학’이라는 증직을 받고 곧이어 1669년(현종10)에는 ‘문정(文靖)’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 시호에는 ‘도덕이 있고 건문이 넓으며[道德博聞, 文], 너그럽게 화락을 누린다[寬樂令終, 靖]’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후 서액서원으로서의 필암서원은 후손들의 선조 현양과 문인들의 학통계승, 그리고 향인들의 활동근거지로서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전국에서도 김인후를 기리기 위해 서원을 방문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서원을 찾은 방문객의 명단을 적은 『몽심록』에는 서원 인근의 수령은 물론이고 당대 유명학자의 인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국학의 하나로서 지방의 교육을 맡아 후학을 길러내는 한편 경제적으로도 국가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건(移建)과 위상 강화

필암서원은 사액된 이후 1672년(현종13) 3월에 이르러 현 필암서원 소재지인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로 다

시 옮겨 짓게 되었다. 1671년 여름 장마에 사우(院宇)와 제실(諸室)이 홍수에 무너져서 그 이듬해 1672년 3월에 현위치로 이관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액서원답게 면모를 일신하고 규모도 늘릴 목적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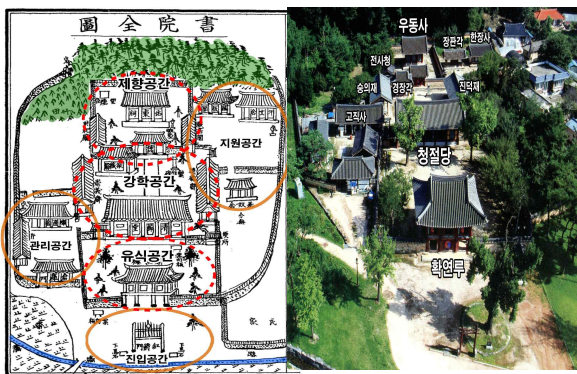
이때의 이관에는 김인후의 후손 김형지와 외손인 이실지를 비롯하여 박승화, 기정연 등이 노력하였다. 당시 서원 장의이던 남계 이실지는 서인의 영수인 원장 송준길에게 편지를 보내 이관 문제를 협의하였고, 송준길은 장성부사 김세정과 협의할 것을 시달하였다. 그리고 송시열의 아우 송시도가 마침 신임부사로 도입하여 필암서원 이관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과정은 당시 서인과 남인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서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인조반정으로 서인은 복인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지만 17세기 후반 예송논쟁과 숙종의 환국 정치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남인의 세력이 막강하였다. 이에 중앙의 서인이나 노론의 후원 아래 광주 지역의 서산유씨나 장흥고씨, 행주기씨, 광산김씨, 장성의 울산김씨 등의 노론가문들이 서로 연대하고 다른 당파를 배척하였는데, 중앙에서도 향촌사회의 이러한 서인 사족들의 활동과 세력의 결집을 위하여 주요 서원에 대해 사액을 내리고 배향 인물에 대해 증직이 자주 내려진 것이다.

이 무렵 필암서원에서는 서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 관청과 사족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중앙의 명망 있는 노론계 인사를 원장으로 임명하였다. 필암서원의 원장 명단을 적은 『원장선생안』을 보면 송준길, 유척기, 김원행, 김이안, 김종수, 심환지, 홍직필, 송병선 등 당대의 명망가이자 노론계에 속하는 인물들이 원장을 맡고 있다. 원장은 명분상 직책이기는 하지만, 같은 당색의 중앙 고관을 원장으로 정하고 그들의 지원 속에 서원의 정치력과 경제력을 보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필암서원은 1868년(고종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무성서원, 포충사와 함께 전라도 지역에 존치된 3개소에 들어 호남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3 필암서원의 공간



필암서원의 공간 구성

필암의 상징성과 하서 김인후

필암은 필암서원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맥동 마을 입구에 위치한 바위로 필암이나 필봉은 필암서원 장소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이자, 하서 김인후의 근원이며 상징어이기도 하다. 필암서원의 액호 필암은 배산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서원 남서쪽 맥동마을 초입에 위치한 작은 선바위(立石)의 명칭이기도 하다. 이 바위 측면에 “筆巖”이라 음각된 바위글씨는 조선 영조 때 병계 윤봉구의 친필로 알려져 있다.



필암과 '筆巖' 바위글씨

풍수지리적으로 터를 잡은 곳에 붓모양의 산(文筆山)이나 바위가 있으면 지기(地氣)와 응(應)하여 대학자가 난다고 한다. 필암서원이 황룡면 필암리에 정착하게 된 것은 이곳이 하서의 출생지이자 강학처와 지척

거리이며 그의 묘소 또한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필암서원 경내의 묘정비(廟庭碑)에는 “하서의 고향인 고리(故里)에 바위가 깎은 듯이 서 있어 형상이 붓처럼 예리한데, 서원이 가까이 있다 하여 이로써 호(號)한 것이라 한다”고 적고 있음에서도 필암과 하서의 유착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필암서원의 풍수형국



필암서원의 주변 형세

필암서원의 풍수형국은 단봉함서형(丹鳳含書形), 즉 ‘임금의 조서를 입에 물고 날아오는 봉황 형국’으로 함서를 물고 있는 단봉의 주둥이를 혈(穴)로 사당인 우동사의 터가 택지되었다고 한다. 봉황은 상서롭고 귀한 상상의 새로, 또 고고한 인품의 인격자로 나가서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하서와 봉황과의 관계를 동일시한 인식 사례는 인종이 하사한 목죽도를 보관하는 경장각(敬藏閣)의 공포 추녀에서 확인되는데, 삼면은 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면에는 봉황이 조각되어 있다. 또 서원전도에서 우동사 후면에 묘사된 절의의 상징 ‘대나무 숲’은 목죽도에 드러난 이미지는 물론 이념과 맞닿아 있다.



경장각 추녀에 새겨진 용(abc)과 봉황(d)

현판과 사물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인 뜻은?

경관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사물 인식을 가장 손쉽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름붙이기’로부터 비롯된다. 필암서원의 당호 역시 성리학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교학적 의미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의미망은 현판과 함께 경관을 구축하는 상징요소이다.

구분	당호	유래·의미	현판	
			글쓴이	이미지
필암서원 (筆巖書院)		하서의 태생지인 맥동에 북처럼 예리한 형상의 북바위에서 연유	병계 윤봉구	
외삼문	확연루 (廓然樓)	정명도의 ‘廓然大公’에서 따온 말로 거리낌 없이 넓게 마음이 넓게 탁 트여 크게 공평무사함을 의미.	우암 송시열	
강당	청절당 (淸節堂)	우암 송시열이 쓴 하서신도비문 중 “그 淸風大節이 욕심도 청렴하게 하고 겁쟁이도 일으켜 세움에 이르러서는 백세의 스승이라 할 만하다.”에서 인용	동춘당 송준길	
사당	우동사 (祐東祠)	하서신도비문 중 “天祐我東鍾生河西金先生”(하늘의 도움[祐]으로 우리 동방[東]에 태어난 이가 하서 김선생이다)이란 글귀에서 인용	주자서에서 집자	
동재	진덕재 (進德齋)	周易, “君子가 進德하고 修業함은 때에 미쳐 道를 펴고자 함이다”에서 출전	동춘당 송준길	
서재	숭의재 (崇義齋)	‘義’를 崇尚하는 도학정신	동춘당 송준길	
경장각 (敬藏閣)		‘왕가 조상의 유물을 공경[敬]스럽게 소장[藏]하라’는 의미	정조	

4 하서의 문묘배향

1675년 문곡 김수항이 김인후의 묘표를 지었고, 1682년 우암 송시열은 신도비명을 지어 김인후라는 인물을 재인식시키는 지평을 열었다. 이러한 일련의 숭모 활동은 김인후의 문묘 배향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기록에 남는 첫 번째 문묘 배향 청원은 김인후가 세상을 떠난 지 211년이 되던 1771년에 전라도 유생 양학연 등이 올린 상소이다. 이어 양학연은 송시열과 송

준길, 조헌과 김집 등 대학자들에 대한 문묘배향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김인후의 문묘배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았다. 1786년(정조10) 8월에는 팔도유생 박영원 등이 김인후를 문묘에 종향할 것을 상소하였는데, 정조는 문묘배향이 큰 전례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양학연의 상소 이후 14번의 소청이 계속된 끝에 1796년 9월에 마침내 문묘 종향의 뜻을 이루게 되었는데, 최초의 상소로부터 대략 25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1796년(정조20) 6월 24일 정조는 “道學, 文章, 節

義를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것이 없는 자는 오직 하서 한 사람뿐이다.”고 말했으며, 9월 17일 정조는 그의 문묘 배향을 명하였다. 또한 10월에 시호를 문정(文正)으로 고쳐 내렸는데 ‘道德博聞’을 ‘文’이라 하고 ‘以正服人’을 ‘正’이라 이른다 하였다. 이때 정조는 그의 문집을 간행하도록 했으며 직접 내탕금을 내려주기도 했다. 그리고 1802년(순조2) 5월에 드디어 하서집(河西集) 중간본이 완성되었다.

그런데 정조의 김인후 문묘 배향에서 주목할 것은 정조가 임진왜란 때 순절한 인물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선양했다는 사실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김덕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785년(정조9) 전라도 유생 기석주의 상소에 의해 김덕령에게 시호를 내리고 그의 형 김덕홍과 동생 김덕보에게도 증직이 내려졌다. 1788년(정조12)에는 전라감사에게 그에 대한 제사를 지내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贈兵曹判書忠壯公金德齡贈貞敬夫人興陽李氏忠孝之里’라는 비석을 세우게 하였다. 또한 1791년에는 서용보로 하여금 <김덕령유사(金德齡遺事)>를 편집하게 하고 직접 서문을 써서 내려 보내주면서 감사로 하여금 간행하도록 명을 내렸다.

정조가 옛 충신과 그 후손들을 선양하는 사업에 활발했던 배경에는 그들을 표장하여 현재의 신하들에게 사표로 삼게 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5 하서와 조선성리학

명종대 사림은 기묘사림이 지지를 추진하는데 학문적 기반, 특히 이론적 기반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출사보다는 학문 연구에, 성리학의 실천적 측면보다 이론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 등을 통해 사람들은 성리학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갔다.

그런데 이러한 학술논쟁의 문을 본격적으로 연 것은 호남사람이었다. 이황과 김인후·기대승의 태극논변

(太極論辨), 노수신과 김인후·이황·기대승의 인심도심 논쟁(人心道心論爭), 김인후와 정지운의 「천명도」 논의 등 호남사람의 수준 높은 학문적 토론과 활발한 논쟁은 조선에서의 성리학의 이론적 심화과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김인후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인종이 죽자 사직하고 귀향하여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는데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천명도(天命圖)」, 「주역관상도(周易觀象圖)」,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등을 저술하고 서경덕·정지운·이황·기대승·노수신 등과 학문 교류를 하며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

1556년(명종11) 서경덕의 「독주역시(讀周易詩)」를 읽고 「차화담독역시운(次花潭讀易詩韻)」을 지어 그의 학문 방식이 하학(下學)을 소홀히 하고 돈오(頓悟)로 이끌 우려가 있는 것을 비판하였으며, 1559년 기대승과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대해 토론을 벌이던 이황에 대해서는 태극과 음양, 리와 기를 일물로 보는 이기일물설(理氣一物說)이 그릇됨을 지적하였다. 같은 해 이황과 노수신 사이의 토론에도 참여하여 도심을 성(性)·체(體)로, 인심을 정(情)·용(用)으로 보는 노수신의 도심인심체용설(道心人心體用說)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기대승과는 사단칠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뒤에 기대승이 이황과 사단칠정논쟁을 벌일 수 있었던 데에는 김인후의 견해에 힘입은 바 적지 않았다.

참고자료

- 장성군사편찬위원회, 『장성군사』, 1982.
 이종범, 『사람열전 1_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국립광주박물관,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그래픽네트, 2007..
 김봉곤 외, 『필암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고영진, 「장성 지역의 유학 전통과 특징」, 『역사학연구』 55집, 2014
 김봉곤, 『필암서원과 울산김씨』, 『한국계보연구』 5
 김경호, 「혼인의 관계망을 통해 본 16세기 호남유학」, 『영남학』 64호.
 노재현 외, 「경관적 재구성을 통한 ‘장성 필암서원’ 경관차임의 讀解」, (韓國傳統造景學會誌 제32권 제2호)
 이기동, 『河西 김인후의 삶과 철학』, 『韓國思想과 文化』 第77輯,
 신문기사, 조선일보 연재 <이종범의 호남인물열전>



위기, 그러나.. 전란 속에 꽃피운 절의와 우정

*김인후의 정신을 이어받은 장성인들과 호남인들은 임진란·정유재란을 맞아 ‘절의’를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장성현 남문에 의병청을 세우고 김인후의 후손인 김경수를 맹주로 삼고, 기효간 등을 중심으로 의병을 소집했고(‘남문창의’), 변이중은 화차를 개발하여 행주대첩의 승리에 기여했다. 한편 전란 속에서도 ‘우정’을 맺고 문학을 꽃피웠다.

1 장성 남문창의

남문의병, 3차 호남의병이자 전라 5대 의병

임진왜란 당시 호남은 김천일·고경명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장성에서는 김경수, 기효간 등이 중심이 되어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장성 남문의병이라 한다. 장성 남문의병은 제1차 호남의병인 김천일 주도의 나주의병, 제2차 호남의병인 고경명 주도의 담양의병과 더불어 제3차 호남의병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또한 장성남문의병은 김천일의 나주의병, 고경명의 전라도 연합의병, 보성·장흥에서 거병한 임계영·문위세 등의 전라좌의병, 화순 광주에서 거병한 최경희의 전라우의병과 함께 임진년 전라 5대 의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임진왜란 시기에 결성된 장성의 남문창의는 세 번에 걸쳐 일어났는데, 이러한 양상은 임진왜란사 전체에서도 보기 드물다. 또한 의병 조직의 구성원이 장성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라도를 아우르는 여러 지역에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첫 번째 남문창의는 오천 김경수가 주도하였는데, 1592년 7월 18일 금산에서 700의사가 패물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창의를 계기가 되었다. 김경수는 같은 고을 기효간, 윤진, 정운룡 등과 더불어 장성 남문에서 모임을 갖고 격문을 도내에 보내 의병을 모았고, 맹주로 추대되었다. 의병청의 격문이 전해지자 장성 인근 지역은 물론, 무안·장흥 등 비교적 먼 곳에 있는 여러 읍에서 호응이 있었다.

2차 남문창의는 일본과의 강화협상이 결렬되어 명나라가 일본군을 치기 위해 남하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1593년 5월 29일 김경수는 다시 남문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과 곡식을 모았다. 이때에는 장성현감 이귀가 정예한 관군 40명을 선발하여 ‘담용군(膽勇軍)’이라 칭하였고, 관군 300명을 조련하여 의병에 가담하도록 했다. 당시 김경수는 두 아들에게 의병과 군량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을 진주성으로 보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2차 남문창의군은 김천일, 최경희, 황진, 고종후 등과 함께 6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진주성 혈전에 참가하여 모두 순절하였다.

3차이자 마지막 남문창의는 정유재란이 일어난 1597년 8월경에 개시되었다. 일본군이 남원성을 공격한다는 급보를 전해 받은 김경수는 종제인 김신남을 통해 제3차 남문의병을 결성했다. 8월 말 장성 남문의병은 안성 지역에 도착하였으며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그들은 일본군 32명을 죽이고 포로 17명을 구출해 냈으나 100여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이후 9월 10일 제3차 남문의병은 해산하였다.

남문 창의와 하서 김인후

당시 장성 남문창의를 주도한 73인의 행적은 <남문창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73인 중의 상당수가 하서 김인후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남문 창의를 주도한 김경수는 하서 김인후의 삼종제이다. 기효간·정운룡·변이중 등과 서로 교유하며 학문을 강론해 장성 지역에서 '사강단四講壇'으로 일컬어졌다. 윤진과 기효간 역시 김인후 계열이다. 결국 세 번의 남문창의는 1590년에 건립된 필암서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문창의를 주도한 세력이 대부분 김인후의 제자들이며, 그들이 임진왜란 이전에 김인후를 배향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 바로 필암서원이기 때문이다. 김인후 사후 30년이 되었을 때, 김인후의 제자 변성운, 기효간 등이 이이의 문인인 변이중 등과 함께 장성의 기산에 서원을 건립하였다. 이 서원이 바로 필암서원의 모태가 된 것이다. 때문에 필암서원은 전쟁 발발 이후 남문창의 결성에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장성 지역에서는 1794년 창의사를 건립하여 남문창의에 대한 추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때에 남문창의에 참여한 장성 출신 인물 기효간, 김경수, 김언희, 김인훈, 윤진, 정운룡 등이 모셔졌다. 1799년에는 <남문창의록>을 간행하여 장성 남문창의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 작업이 시작되었다. 1802년에는 '호남오산남문창의비'를 건립하고, 1809년에는 비각을 세우는 등 매우 집중적으로 임진왜란 남문창의에 대한 현창 사업이 진행되었다.



남문창의비와 비각. '호남오산남문창의비(湖南鰲山南門倡義碑)'를 새기고 의병단의 중요인물 77명의 직과 성명을 기록하였다. '오산'은 장성의 별호이다.

2 망암 변이중과 화차

김인후의 문인은 아니지만 장성 출신으로 김인후와 학문적 맥이 닿아 있는 인물이 망암 변이중이다. 그는 이이·성혼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568년 사마시에, 1573년에는 문과에 합격하였다. 1576년과 77년 부모의 상(喪)을 연이어 당하여 모든 절차를 『주자가례』에 따라 지냈다. 묘소 아래 조그마한 암자를 지어 기거하면서 묘를 바라보며 통곡하였기에 암자의 이름을 망암(望庵)이라 하고 자신의 호로 삼았다.

상을 마친 뒤 사헌부 감찰, 예조좌랑, 황해·평안도 도사, 형조정랑, 풍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어천찰방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상소를 올려 어가를 다시 서울로 돌려 민심을 수습하고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전라도 소모사(召募使)로 나가 각지에서 수천 명의 병사와 전마·무기 등을 모집하여 수원에 주둔하며 일본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명군이 원병을 오자 조도사(調度使)가 되어 활동하였으며, 독운사(督運使)를 역임하며 30여만 석의 군량을 차질 없이 조달하였다.

변이중은 소모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주에서 전라도로 가는 도중에도 왜병의 조총을 이길 수 있는 화차의 제작을 구상하였다. 화차는 수레에 40개 구멍을 내고 각 구멍마다 승자총통을 걸고 심지를 이어 놓아 불을 붙이면 연



복원된 화차 옆에 전시된 신기전과 신기전기(발사대). 망암 변이중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다만 일찍이 변이중에 대해 언급한 이들이 있었다. 최남선은 1930년 동아일보에 조선역사강화(朝鮮歷史講話)를 연재하면서 망암 선생을 “화차란 것을 창제하여 야전(野戰)에 쓰고 권율의 행주첩(捷)에서 이 힘을 크게 입으니 화차는 ‘탕크’의 조(祖)라 할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어학자이자 항일독립투사인 이윤재도 1934년 12월 29일자 동아일보에서 변이중이 제작한 화차를 ‘조선의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보배’라고 하기도 하였다.

를 저술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전쟁의 휴유증과 진원현과 장성현의 합병으로 민심이 소란한 상황에서 여씨향약을 본 따 향현 20조를 만들어 향약운동을 전개하였다.

달아 자동으로 쏘게 되어 있는 신병기였다. 평탄한 곳에서는 2인이, 험난한 곳에서는 4인이 끌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널 수 있게 하였다. 총 300량을 제작하여 1593. 2. 22 행주성에 40량을 배편으로 보내어 9차례 총 공세에도 불구하고 1만의 병으로 잘 훈련된 적 3만을 격퇴하는 대첩을 이루게 하였다.

이어 성균관 전적, 사옹원 정, 함안군수 등을 지내다가 1605년 호성원종공신·선무원종공신에 봉해졌으며 이듬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향당의 여러 벼들과 경전을 토론하고 의리를 강구하면서 후학 양성에 앞장섰다. 한편, 과학 뿐 아니라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예학에 정통하여 가례 주석서를

3 석주 권필과 그의 벼들

토천에서 시사를 열다

장성은 담양과 함께 전남문화의 중심권을 형성하였다. 무등산 자락을 중심으로 면양정가단, 정철의 성산가단 등이 형성되어 호남가단의 중심을 이루었다. 호남 전역에서 당대의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교류하였고, 이들과 사제관계 또는 인척관계로 맺어진 문인들과 전국에서 이들을 찾아오는 문인들이 교류하였다.

그러나 이들과는 결을 달리하는 다른 일군이 있었으니, 놀재 박상, 고봉 기대승으로 이어지는 시단이 있었다. 그 맥은 기대승의 손서인 현주 조찬한에게 이어졌는데, 그는 장성 옛 진원현 토천에 백설현을 짓고 살며 그의 형 조위한 그리고 친구인 석주 권필과 장성 토천에서 <토천연구(土泉聯句)> 를 남기기도 하였다. 석주 권필 역시 토천과 가까운 장성 수류촌에 10여 년을 살며 현주와 더불어 시사를 열었다. 그 문인 가운데 한 사람이 요월정의 주인 추담 김우급이었다. 그는 토천 시사에서 석주 권필이 시어를 짜내느라 골몰하던 모습을 회상하는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조찬한의 아들이며 택당 이식의 사위인 삼휴당 조휴 역시 장성 토천에서 살며 뛰어난 시문을 남겼다.

한편, 장성 토전은 한말 호남의병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기삼연의 ‘호남창의회맹소’의 선봉장 죽봉 김태원이 일군과 공방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는데, 담양 무동촌 전투와 더불어 토전 전투는 한말 의병사의 쾌거다.

석주 권필, 영혼을 불사르다

권필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호남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시와 술을 즐기는 낭만적 정서도 남도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었고, 불의에 의연히 맞서는 불굴의 정신도 호남인의 정신과 맥을 같이 했다. 그리고 그의 처가가 담양이어서 호남인과 교유가 많았고, 호남인들의 정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권필은 윤진에게 출가한 누님 댁을 방문하기 위해 장성을 여행했다. 윤진은 임진왜란 때 김경수를 맹주로 한 장성남문 창의에 참여하여 중사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정유재란 때는 입암산성을 수축하고 군량을 비축하여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입암산성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성의 함락과 함께 순국하였다. 남편의 비보를 접한 권필의 누님도 결국 자결하고 말았다.

권필은 누님 댁을 방문하면서 장인이 될 송제민(宋齊民)을 만났다. 그리고 송제민의 따님과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송제민은 처음에는 세상을 제도하려는 뜻이 있어 이름을 제민(濟民)이라 하고 자를 이인(以仁)이라 하였다. 토정 이지함을 스승으로 섬겼다. 임진란이 일어났을 때는 양산숙 등과 더불어 창의하여 김천일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스스로 종사관이 되었다. 그런데 조정에서 일본과 화친하려 하자 극력 반대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알고 죄인으로 자처하며 결국 濟民의 뜻을 접고 이름을 齊民으로 고쳤다. 아들 셋 모두를 왜적에게 잃고 만년에는 강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고 스스로 호를 해광(海狂)이라 하였다.

권필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은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억울한 죽음이였다. 그래서 권필은 김덕령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취시가(醉時歌)>를 썼다. “취시가여, 이 곡을 듣는 이 없네. 나는 꽃과 달에 취하고 싶지 않고, 나는 공훈도 세우고 싶지 않네. 공훈을 세우는 것도 뜬구름이요, 꽃과 달에 취하는 것도 뜬구름이라네. 취시가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내 마음 다만 장검 들고 명군 받들기를 원하네.” 하지만 필화 사건이 염려되어 그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김덕령의 작품으로 시 제목 속에 숨겨 놓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 사회는 전란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이미 극에 달해 폭발 직전이었다. 이때 임숙영이 과거 시험에서 이러한 현실을 고발했다. 하지만 광해군의 진노만 사고 과거에서 출방당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조야의 공분을 샀고, 급기야 권필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다. 권필이 이 사건을 풍자해 시를 지었는데 일명 <궁류시(宮柳詩)>라고 한다. 이 시로 인해 권필은 광해군의 혹독한 친국을 당했다. 당시 많은 관리들이 간곡한 청원을 했지만 광해군의 닫힌 귀를 열게 할 수는 없었다. 결국 유배형을 받고 나오다 동대문 밖에서 비운의 생을 마감했다.

참고자료

장성군사편찬위원회, 『장성군사』, 1982.

고영진, 「장성 지역의 유학 전통과 특징」, 『역사학연구』 55집, 2014

송재운, 「망암 변이중 선생의 업적과 공헌」, 『공자학』 21호

김만호, 「조선후기 長城 지역의 南門倡義 기억과 그 의미」, 『歷史學研究』 제67집(2017.08)

권순열, 「石洲 權驥 研究」, 『남도문화연구』 제25집



황룡전적지를 가다 _ 동학농민전쟁

*장성 황룡전지는 1894년 4월 23일을 전후하여 동학농민군(대장 전봉준)과 관군(경군·양호초토군, 선봉장 이학승)의 주력부대가 접전하였으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장태'라는 큰 무기는 큰 역할을 하여 동학농민전쟁 초기에 가장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이다. 이곳에서의 승전을 계기로 전주성에 입성하여 역사상 유래가 없는 집강소에 의한 농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한 곳이다.

무장에서 장성까지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전쟁)은 반외세 자주독립과 반봉건의 민주화를 쟁취하려는 근대사의 서막이며 민족·민중운동의 원동력이었는데, 1894년 1월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을 제거하기 위해 전봉준 등 수천 명이 봉기한 농민항쟁이 계기가 되어 3월에 손화중·전봉준·김개남 등이 무장에서 봉기하여 고부를 점령하고 백산에 모여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무장과 바로 인접한 장성 등 현재의 전남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서 호남인이 주축이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정부는 전라병사로 임명된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삼고 경군(京軍, 중앙군) 800명과 야포 2문을 주어 군함과 선박에 실어 군산으로 출동시켰다. 그리고 농민봉기에 작간접으로 관련된 조병갑 고부군수는 물론 안핵사 이용태, 전운사 조필영, 군전사 김창석을 파면 조치했다. 그리고 전라감사 김문현은 휘하의 영군을 출동시켜 백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게 했다.

백산에 모인 농민군은 4월 6일 황토현에서 영장 이경하가 이끄는 전라감영군을 격파했다. 이후 곧바로 전주를 향하지 않았는데, 비록 홍계훈의 경군이 도망쳐 버려 470여명 밖에 안 되지만 전주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정면으로 승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대신 7일에는 정읍을 점령하고 연이어 인근 고을을 격파했고 4월 16일에는 함평까지 점령하여 시가행진을 하는 등 위세를 떨쳤다.

함평에 머물던 전봉준은 음력 4월 19일 양호초토사인 홍계훈에게 글을 보냈다. 수령과 이서배들의 불법적 수탈 행위를 거론하며 자신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나주목의 공형들에게도 글을 보내어 체포된 동학교인을 석방해주면 나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나주목사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주를 공격하겠노라고 엄포하는 한편, 실제로는 장성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들은 7일 동안 함평에 주둔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한편, 전열을 정비하였다. 음력 4월 22일 전봉준은 나주를 공격하는 양 하면서 주력 농민군을 이끌고 장성으로 나아갔다.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의 추격을 분산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한편 영광에 주둔하고 있던 양호초토사 홍계훈은 4월 22일에 대관 이학승, 원세록, 오건영에게 정병 300명과 대포 2문을 주어 장성으로 출발시킨 다음날인 23일에 장성 황룡에 머물고 있는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라는 작전명령을 내렸다.

장성 황룡에서 경군을 제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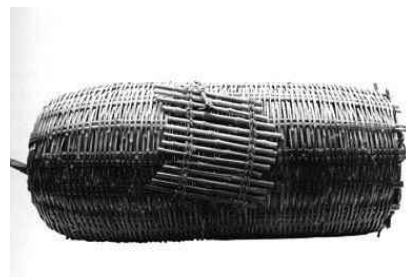
마침 농민군의 주력은 장성 월평의 황룡장터에서 점심을 먹는 중이었다. 이들은 경군의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방에 경계를 세웠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학승의 선봉대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대포를 발사하였다. 약간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농민군은 숫자가 적은 경군을 협공하여 선봉장 이학승 이하 6명을 죽이고 쿠르프포 1좌와 회선포 1좌 등 대포 2문과 많은 양총을 노획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관변측 기록이다. “출전 장병이 당황하여 달려와 말하기를 관군이 장성 월평에 닿았을 때 그들 무리(동학농민군)이 마침 황룡촌에 이르러 서로 접전하여 죽이는데 크르프포 1방을 쏘니 맞아 죽은 자가 가히 수백이라 그들 만여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돌격해와 30리 지경까지 추격해왔다. 그들의 수는 많고 우리는 적어서 피곤하여 자빠지며 창황히 본진으로 돌아와, 대관 이학승은 칼을 휘두르며 뒤에서 싸우다가 병정 5명과 함께 그들에게 죽었다. 그리고 크르프포 1좌와 회선포 1좌 및 탄환을 잃었다.”

한편 황현은 장성 황룡싸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3일 홍계훈은 경군 200명을 선봉으로 삼아 영광으로부터 적을 뒤쫓다가 다시 월평에 도착하여 적진(동학농민군)을 바라보니 적진은 채 정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다른 사람에 앞서 공을 세우고자 후원병을 기다리지 않고 멀리서 대환포를 쏘았다. 적은 병기를 거두고 조금 물러났다가 곧바로 삼봉 위로 올라가 진을 배치했는데 마치 학의 모양과 같았다. 적은 위에서 아래로 관군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잠시 후 홀연히 커다란 대나무로 만든 통을 밀고 나왔는데 등그스럼한 닭의 집(장태)과 비슷한 것이 수십 개였다. 밖으로 창과 칼이 삐죽하게 쏘인 것이 고슴도치 같았고, 아래에는 두 개의 바퀴를 달아 미끄러지듯 아래로 내려왔다. 관군은 총탄과 화살, 돌 등을 쏘았지만 대나무통에 차단되어 버렸다. 적은 대나무통 뒤에서 총을 쏘며 따라오다가 고품을 지르며 뛰어들었다. 초토군의 진영은 멀리 뻗어 바라보면서 도와주지 못한 채 그들이 사방으로 달아나도록 방임하였다. 적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병력을 수습하여 돌아갔다. 이날 관군을 7명이 죽였으며, 대환포 2대를 빼앗겼고, 적은 서로 밟아서 많이 죽었고 혹은 대환포에 맞아 서도 죽었다. 죽은 자들을 모아 무덤 17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4~5구의 시체를 묻었다.”

농민군의 진법과 전술, 즉 학익진과 장태전술에 관한 내용이다. 농민군은 신무기를 소지한 경군을 상대로 전혀 새로운 전술인 지형지물을 이용한 ‘장태전술’로 크게 이겼다. 장태는 닭장을 의미하는데, 전라도에서는 가볍고 단단한 대나무로 동우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전라도에서는 이것을 흔히 ‘닭장태’ 혹은 ‘대장태’라고 불렀다. 따라서 장태전술은 대나무로 장태를 둥글게 만들어 그 안에 짚을 가득 채운 후 엄폐물과 공격도구로 활용한 것을 말한다. 즉, 장태전술은 보잘 것 없다고 여겨지는 농촌생활의 지혜를 활용하여 강력한 서양무기로 무장한 경군을 혼비백산케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오합지졸이라 생각한 농민군이 경군과 접전한 최초의 전투에서 대포를 비롯한 신무기를 노획하는 등 대승을 거둬으로써 위정자들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른바 장태전술은 장태의 형태와 그러한 전술을 고안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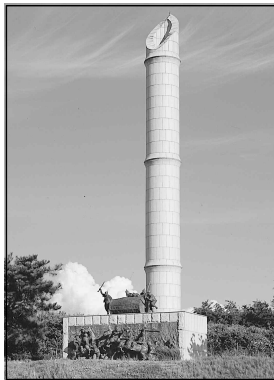


장성 황룡전투에서 농민군이 고안한 닭장태

당시 농민군은 6,000~10,000명, 관군은 300명 규모로 파악되며, 장태의 고안자는 장흥 출신의 이방언, 장성 출신의 이춘영과 최경호, 담양 출신 이용길 등 여러 설이 있다. 고안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태를 활용한 점을 더 중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이들의 대다수가 농민들이기 때문에 전남 지역에 흔한 대나무로 제작한 닭장에서 착안한 사실만 보더라도 농민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그러한 착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안자가 여러 명으로 거론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이 곳에서 전사한 대관 이학승과 병정 5명에 대한 처리는 장성 향리 박전성이 사재 500냥을 들여 장례를 치렀다가 전주화약 후 5월 9일 서울로 다시 운구하였다. 박전성은 이로 인하여 동학농민군의 보복이 두려워 동학에 입도했다가 그해 12월에 관군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학승은 좌승지로 추증되었으며 전사지인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에 <중좌승지이공학승순의비>가 세워져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이 비는 장성의 유력씨족들이 문중별로 자금을 엄출하였고, 면암 최익현이 비문을 찬하여 1897년에 세운 것이다. 이학승의 정확한 전사지는 비가 있는 곳으로부터 50여보 떨어진 곳인데 현재의 위치에 비를 세우게 된 것은 장성에서 영광으로 가는 큰 길 옆에 세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1993년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황룡촌 전투를 기리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1994년 6월 4일 전승기념관 및 기념탑의 기공식을 가졌다.



동학농민군승전기념탑



파괴된 전일귀효자비

장성 황룡싸움에서 경군을 격파한 농민군은 곧바로 전주를 향해 진격하였다. 전봉준 등은 장성 신흥 사거리를 거쳐 갈게 못 미쳐 전일귀효자비(全日貴孝子碑) 부근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였다. 정조 대의 효자였던 전일귀의 효성에 감동한 전봉준은 효자비에 정성을 다해 치성을 드렸다고 전한다. 아마도 그는 같은 성씨여서 감회가 남다른데다, 동학에서도 효를 중시하여 불효자를 죽이겠노라는 기율을 발표했다기 때문에 농민군의 사기를 드높이는 계기로 삼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까닭으로 인해 관군이 그 비각과 비석을 파괴하여 현재는 비신의 일부만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강난 비석은 지금도 그대로 서 있고 1977년에 장성유림들이 복이면 사거리에 새 비석을 세웠다.

참고자료

장성군사편찬위원회, 『장성군사』, 1982.
 광주광역시·전라남도(홍영기),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 동학혁명·한말의병』, 2015



노사학과, 그리고 항일의병

*19세기 노사 기정진과 그의 문인들은 노사학과를 형성했다. 이들의 사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계승·발전되었다. 첫째는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둘째는 이의 철학으로서 유리론의 계승과 발전, 셋째는 일본의 침략에 맞선 반일구국운동으로서의 의병항쟁과 의열투쟁의 전개이다.

*여기의 글들은 대부분 홍순권·홍영기 교수의 글에서 발췌·정리했다.

1 기정진과 노사학과

장안만목불여장성일목長安萬目不如長城一目

내우외환(삼정의 문란에서 야기된 농민항쟁과 제국주의 세력의 도전)에 휩싸인 19세기 중반의 조선. 이런 배경에서 위정척사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사 기정진(1798~1879)이다. 노사는 일생을 병마와 싸우면서도 특별한 사승(師承) 없이 학문적 일가를 이뤄 노사학과를 형성했으니, 이러한 그를 ‘장안만목불여장성일목長安萬目不如長城一目’이라 하였고, 훗날에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6대가의 한 사람 혹은 근세유학의 3대가의 1인으로 평가받았다.

노사 기정진은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으나, 18세 되던 1816년 부모를 한꺼번에 여의고 이후에는 전남 장성에서 주로 살았다. 연보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가 장성 하남에서 순창 조동으로 이사하여 살 때 금빛 대인이 한 남자 아이를 안아 주는 꿈꾸고 노사를 낳았다 하여 어려서는 자를 금사(金賜)라고 하였다.

노사는 장수한 편이었지만, 평생 병마를 많이 겪었다. 여섯 살 때 천연두를 앓은 후 왼쪽 눈을 손상하였다. 스물한 살의 한창 나이에 스스로 ‘다질(多疾)’이라 말할 정도였고, 한 때 ‘노하병부’라고 자칭한 것도 그만큼 병치레를 많이 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짐작된다.

노사는 1815년 음력 5월 이틀 사이를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연거푸 잃고 순창에서 장성으로 이거(移居)하였다. 그는 이후 죽을 때까지 하남, 맥동, 맥곡 등을 전전하며 10여 차례 이상 이거하였다. 이처럼 그가 자주 이사한 것도 신병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가 옮겨 다닌 곳은 전라남도 장성과 광주 등지로 주로 행주 기씨 세거지였다. 77세에 지은 ‘노사’라는 호는 노산(蘆山) 아래의 하사(下沙)에 산다는 의미에서 붙인 자호였다.

본관이 행주인 그의 집안은 기호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기대승을 배출한 명문가였다. 그러나 그의 직계는 그리 현달하지는 못했다. 그의 집안이 장성에 뿌리를 내린 것은 중종 기묘사화 때 기묘명현인 기준의 형제들로부터 비롯된다. 준의 중형인 원의 손자 효간은 임진왜란 때 장성의 이른바 남문창의에 참여하였으며, 중종 때의 유명한 학자 하서 김인후에게서 배웠다. 노사의 5대조 정익은 우암 송시열의 문인이었다.

노사는 말을 배우면서 바로 문자를 터득하기 시작하였다. 네 살이 되던 해 노사가 공부하기를 청하자, 그의 아버지는 마른 몸에 병치레가 잦다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듬해부터 효경과 격몽요결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일곱 살 때는 이미 소학을 읽고 여덟 살 되던 해는 통감강목과 춘추사전을 완독했다고 전해진다. 또 일찍부터 노사의 문재를 알아본 그의 종조부가 시재(詩才)를 시험하자 여섯 살 나이에 거침없이 시를 짓는 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는 세상에 내놓을 인재가 될 것이라며 집안의 경사라고 기뻐하였다. 그가 점차 신동으로 소문이 나면서 11세 때 순창 군수가 쌀과 고기를 보내면서 한번 만나보기를 청했다고도 한다. 그만큼 노사는 일찍이 글재주가 뛰어났다. 10세 되는 시기부터 장성의 백암사, 문수사의 남암, 관불암 등 조용한 산방과 산사를 찾아 유교 경전을 탐독하며 학문에 정진하였다. 특히 그는 남암과 관불암을 자주 찾았다.

노사에게 이렇다 할 사승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면, 그는 스승 없이 홀로 독서와 사색으로 학문을 쌓아 성리학자로 이름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유리론이라는 그만의 독자적인 학설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의 이러한 독자적인 수학 과정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14세 되던 해 노사는 하서 김인후의 후손인 울산 김씨와 혼인하였으며, 4년 후에는 부모상을 동시에 당하였다. 이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삼십대 초반에 향시에 응하였으며, 34살에는 사마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증광시에 응시하여 떨어지자 과거를 단념하고 낙향하였다. 그는 강릉 참봉(35세), 사옹원 주부(40세), 전설사 별제(45세), 무장현감(60세), 사헌부 장령(64세), 사헌부 지평(67세), 동부승지(69세), 호조 참의(69세), 공조 참판(69세) 등의 벼슬을 제수 받았다. 그러나 전설사 별제로 몇새 동안 근무한 것 이외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처음으로 위정척사의 가치를 내걸다

노사는 40대 중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학문을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연보」에 따르면, 그는 40대 중반이후 본격적인 저술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납량사의」(1843, 45세)·「정자설」(1845, 47세)·「우기」(47세)·「이통설」(1853, 55세)·「외필」(1878, 80세) 등이 손꼽힌다. 이러한 글에서 그는 이(理)를 절대시하는 이론을 체계화하였는데, 노사는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근원적 실체는 오로지 이(理)일뿐이라고 인식하고, 기(氣)는 단지 이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속적인 존재로서만 의미를 지닌다는 이른바 유리론(唯理論)의 철학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유리론의 세계관은 종전에 이와 기 가운데 기를 중요성을 강조한 주기론과 다르며, 또 이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되 이와 기의 역할을 동시에 긍정하는 주리론과도 다른 노사만의 독특한 철학체계이다. 노사의 철학인 유리론은 한마디로 조선후기 성리학의 핵심 주제인 이기론(理氣論)에 있어서 ‘이’(理)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이’ 중심의 철학이다.

학문적 깊이와 독창성이 알려지면서 노사의 주위에 수많은 학인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184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노사학파가 형성되었다. 그를 따랐던 문인들은 대부분 전남과 영남 서부지역 출신들로서 약 600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19세기 중후반의 조선의 위급한 상황을 성리학적 입장의 개혁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한 시도가 1862년의 농민항쟁과 1866년의 병인양요에 대한 대책에 담겨져 있다.

또한 노사는 1862년 농민항쟁에 이어 자신의 두 번째 시무책을 병인양요 직후인 1866년 음력 7월에 올렸다. 이는, 이른바 위정척사운동의 가치를 처음으로 올린 기념비적인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 노사는 서양세력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모두 6개 조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른바 「비어책備禦策」으로서 “정묘산定廟算·수사령修辭令·심지형審地形·연병鍊兵·구언求言·내수외양內修外攘” 등이 그것이다.

첫째로 대외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국론이 통일되어야 한다. 둘째로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내의 지세를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 셋째로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여 군적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로 모든 국민들에게 현명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개진케 하여 적극 수용하되, 한글로 쓰인 시무책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내정개혁을 과감하게 수행하는 것만이 외세를 막는 지름길이라 주장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인심結人心”, 즉 인민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특히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대부의 군역 부담과 서원의 무용성을 제기하였으며, 병인양요 당시에는 격문을 지어 거병을 추진하기도 했다. 요컨대, 그는 성리학적 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노사의 사상은 집권층의 야욕과 부패로 인한 봉건체제의 위기를 개탄하고 있던 재야 지식인들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 노사의 나이 45세를 전후로 명성이 알려지면서 그의 철학 또한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노사학파의 사상은 세 가지 방향으로 계승 발전되었다. 첫째는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둘째는 이의 철학으로서 유리론의 계승과 발전, 셋째는 일본의 침략에 맞선 반일구국운동으로서의 의병항쟁의 전개 등이 그것이다.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한 노사학파의 주요 문인들

정재규. 경남 함천 출신으로 22세에 노사를 찾아와 수학했다. 그는 스승의 학설을 충실히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의 학설을 비판한 간재 전우에 맞서 치열한 논전을 주도하였다. 정재규는 도학뿐만 아니라 절의의 실천에서도 앞장섰다. 이른바 신사척사운동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갑오경장에 반대하는 반개화운동에도 가담했고, 을미사변과 단발령 직후에는 의병을 도모한 바 있으며, 을사조약 이후에도 면암 최익현·송사 기우만 등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키려다 실패하였다.

이최선. 담양 장전 출신으로 15세에 노사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도학의 탐구와 절의의 실천을 중시하였다. 1862년 임술농민항쟁 당시에 그는 6천여 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삼정책을 작성, 담양부사에 전달한 바 있다. 삼정책은 그의 현실인식을 잘 보여주는데, 그는 사회적 기강과 염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재의 발굴과 도학의 진흥, 그리고 언론의 개방을 들었다. 이러한 내용은 노사가 제시한 각종 대책과 비슷한데, 스승의 사상을 계승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최선은 병인양요가 발발하자 의병을 모집하여 서울로 떠났는데, 노사는 출정한 그를 위해 시를 지어 격려했다. 그리고 「외필」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는 「독외필」을 지어 스승의 학설을 적극 옹호하였다. 한편, 그의 아들 승학은 부친과 더불어 노사의 문인으로서 기우만의 전기의병에 가담하였으며, 손자인 광수는 나철 등과 함께 오적암살단으로 활동한 바 있다.

기우만. 노사의 친손자로서 만연의 셋째 아들이나 두 형이 모두 일찍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학을 이었다. 그는 조부의 사상을 충실히 계승하였으며, 특히 위정척사사상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을미사변과 단발령 그리고 아관파천이 이어지자, 그는 호남 각 고을에 통문을 돌려 장성에서 전기의병을 일으킨 바 있다. 그 후에도 의병을 도모했으나 여의치 않자 나라 잃은 백성이라 하여 평상시에도 백립과 상복을 입고 생활하였다. 그 후 장성의 삼성산에 초

막을 짓고서 후진을 양성하는 한편, 「호남의사열전」이라는 한말 호남의병의 전기를 저술하였다.

오준선. 18세에 노사를 스승으로 모신 후 스승의 학설을 계승하였다. 특히 그는 향리의 용진정사에서 수백 명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그가 의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던 김준·전해산 등이 이끄는 의병 부대를 후원하였으며, 후기 의병장 가운데 이기손·오성술·오상렬·전해산 등은 그의 문인록에 들어있다.

이밖에도 장흥의 유생 고재홍·김진수, 능주의 김인가·홍기주·김종용·김종찬·윤학모, 동북의 조상순·조병섭 등도 병인 양요 당시 의병을 조직하여 서울로 올라가거나 무기를 제조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1880년 제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의 이른바 ‘조선책략 사건’을 계기로 유림층을 중심으로 한 수교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1881년에는 전국적인 상소운동으로 파급되면서 이른바 신사척사운동이 전개되었다. 영남에서 시작된 위정척사운동(‘영남만민소’)은 각도 유생들의 호응을 받았는데, 당시 호남에서도 고정주가 중심이 되어 상소를 올렸다.

의병운동에 나선 노사학파의 주요 문인들

노사를 중심으로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위정척사운동에 앞장섰던 노사의 문인들은 한말 의병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896년 1월 유인석의 격문을 계기로 장성을 비롯한 담양, 창평, 광주, 순창 유생들이 의병운동을 일으켰을 때, 기우만을 비롯한 고광순, 기삼연, 김익중, 이승학, 박원영, 기주현, 고기주, 양상태, 기동관, 기재, 기동준, 정의립 등이 의병운동에 가담하였으며, 그들은 기우만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하였다.

또 1905년 ‘을사늑약’ 강제 체결 이후 장성의 기우만과 합천의 정재규가 의병운동을 모색하였고, 창평의 고광순, 장성의 기삼연 등은 직접 의병운동을 일으켰다. 1907년 1월 거의한 고광순은 지리산 피아골에서 장기항전을 모색하던 중 일본군의 급습을 받아 1907년 10월 순국하였다. 기정진의 재종질인 기삼연은 1907년 10월 김익중 등과 함께 호남창의회맹소를 결성하여 호남지역 의병항쟁을 주도하며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는데, 1908년 2월 순국하였다.

고광순과 기삼연이 순국한 뒤 김준, 전수용, 김용구, 김영업 등 노사학맥을 이은 호남의 유생들이 의병을 계승하였다. 노사의 문하인 오준선은 의병부대를 후원하였으며, 그의 문인 중에는 전수용을 비롯하여 이기손, 오상렬, 오성술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또 노응현은 1907년 쌍산의소의 지도부로 활동하였는데, 쌍산의소에는 면암 최익현 계열과 더불어 노사 기정진 계열이 의병 지도부를 구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노사학파의 문인들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노사 문인인 기재의 아들이자 고광순의 사위인 기산도는 오적암살단을 결성하여 매국노로 지목된 군부 대신 이근택을 습격, 중상을 입힌 후 체포되었다. 그는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사금을 송금하려고 동지를 규합하다가 일경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기에 판사를 지낸 기정진의 재종질 기동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통제 실시에 따라 전라남도 독판으

로 활동하였고, 기삼연의 제자였던 송진우는 신학문을 익혀 언론활동을 종사하였다. 이처럼 일제시기에 들어서도 노사학과와 인맥들은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여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

2 송사 기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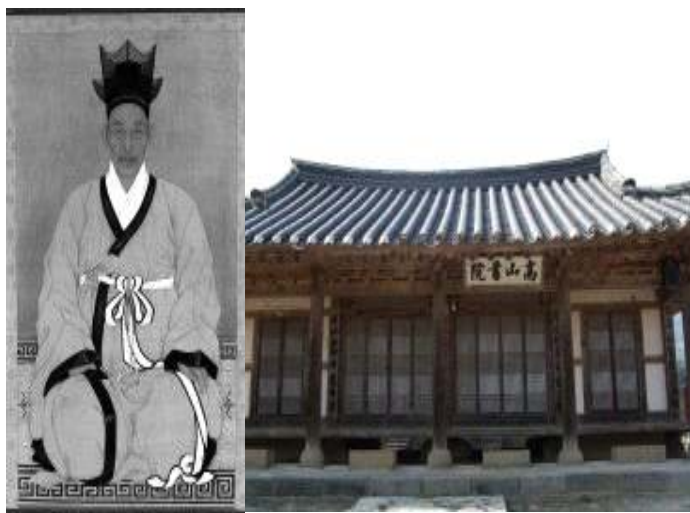
기정진을 잇는 호남 유림의 종장

송사 기우만은 1846년 장성 탁곡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노사 기정진, 아버지는 기만연이다. 기우만은 8세 때 할아버지를 모시고 하사(下沙)로 이사했고 이후 기정진이 죽을 때까지 줄곧 옆에서 모셨다. 기정진의 강학활동을 보좌하면서 집안일까지 챙겼다. 본격적으로 학문에 매진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책을 옆에 두고 틈틈이 책을 들여다보며 외우고 사색했다고 한다.

1879년 기우만 34세 때 기정진이 죽자 호남의 유림들은 기우만을 종장으로 추대했고 기우만은 기정진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기정진이 죽은 후 그의 글을 정리하여 문집을 출간, 한편으로는 유림의 종장으로서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데에 앞장섰다.

기우만은 조선의 멸망에 이르는 격변기를 살며 조부인 기정진의 위정척사 사상을 현실 대응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기우만이 주장한 '부정척사(扶正斥邪)'는 기정진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바른 학문을 잡게 되면 거짓된 것들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데 거짓이 세상에 번성한 것은 정학의 도가 밝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바른 학문을 단단히 붙들고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유자들이 급선무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향음주례나 석채 등을 통해 윤리 도덕적 기강을 회복하고 성현의 도맥을 재확인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중화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문화야말로 올바르게 개화된 것이며 정학이 아직 존재함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학문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우만은 호남 유림의 종장이라는 위치에 있었으나 따로 학설을 세우지 않았다. 스승인 기정진이 조부였으므로 집안 어른의 학설에 대해 부가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는 일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정진의 강학활동을 돕느라 정식 강학 공간에서 배우는 일도 어려웠다. 기정진이 제자들에게 강학하는 내용을 곁에서 듣고 책을 읽고 사색하여 학설을 터득했을 뿐이고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연구하거나 스승과 토론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승의 학설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학파와의 학문적 토론은 기정진 제자들에게 일임하였다. 그리하여 성리학과 관련한 전문 저술이 없으며 이는 기우만 연구가 소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평소 유교 윤리를 강조했던 만큼 삼강에 가까운 행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는데 <호남의사열전>도 그런 의도에서 저술하였다.



송사 기우만과 고산서원

한편 기우만은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각 읍에 통고하여 규탄하기를 촉구했고 1896년에는 51세의 나이로 장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옮겨가자 ‘호랑이를 풀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꼴’이라면서 외세에 의탁하는 일이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종묘사직에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선의 멸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하였다. 의병을 일으켜 나주와 광주로 갔으나 신기선이 선유사로 내려왔으므로 의병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해산했다.

기우만은 의병을 해산한 뒤 두 차례나 국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먼저 1906년 3월에 올린 상소에서는 단발령을 철회한 이후 애초에 단발을 주장했던 자들의 죄를 묻지 않은 것과 구제도를 복구하였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개화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와 더불어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단하거나 체포하는 것과 자신에게 뜻밖의 누명을 씌워 체포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기우만은 상소를 서울로 올라가 직접 전달하려 하였으나, 곳곳에 포교가 깔려 있어서 포기하고 말았다.

5월에 올린 두 번째 상소에서는 창의 전후로 세 번이나 올린 소장에 대한 비답(批答)이 없는 것은 언로가 막힌 탓임을 비판하면서, 창의의 정당성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이 상소의 말미에 기우만은 간신이 전횡하여 충성을 바치려 해도 바칠 길이 없으므로 임금이 환궁하기를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 은거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기우만은 그 해 9월 장성군 진원면 삼성산 골짜기에 삼산재를 짓고 들어가 시를 지으며 울분을 달랬다. 이때 ‘삼산구곡(三山九曲)’과 ‘가궤악부(嘉卉樂府)’란 시를 지었다. 이듬해 고종이 환궁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에 즉위하였다.

그 뒤 1900년 조정에서는 신기선의 천거로 기우만에게 중추원 의관을 제수하고 주임관에 임명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부터 기우만은 정암 조광조의 비각 증수 때 상량문을 써주고, 하동군 악양정에서 김평필과 정여창을 배향할 때 축문을 써주는 등 글 짓는 일로 세월을 보냈다. 나이 59세 되던 해인 1904년 11월 기우만은 광주 주흥동으로 이사했다. 이듬해 관찰사 이도재가 향약을 설치하고 기우만을 도약정에 앉히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은 빈 자리에 앉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허공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땅 위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땅이 견양(犬羊)의 차지가 되었다.’고 분노했고, 을사 5적에 대해 ‘이 우리들은 선왕으로부터 받은 강토를 사사롭게 적에게 넘긴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1906년에는 호남 사람들을 곡성에 모이게 하고 을사 5적 처단을 요구하는 연명 상소하는 일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전국 각지에서 유럽들의 상소가 빗발치듯 조정에 날라 들었으나 모두가 한낱 휴지나 다름없이 되어 버렸다.

그 때 마침 최익현과 정재규 두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노성(현 충남 논산지방)에서 강회를 가질 터이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기우만은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 제자 정시해를 보냈다. 최익현은 이 강회에서는 선비들이 경기도 진위 향교에 모여 서울로 올라가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최익현의 호소는 일제의 감시망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또 1906년 정월에 정재규가 기우만을 찾아와 서로 의논 끝에 여러 동지들과 함께 곡성 도동사에 모이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중간에 저해하는 자가 있어서 계획을 취소하였다.

을사늑약이 알려지자 원주 제천 방면에서는 유인석의 문인 원용팔이 앞장서 의병을 일으킨 다음 호응을 요청하는 글을 보내왔다. 최익현은 전북 태인의 임병찬과 더불어 창의 계획을 세우고 1906년 4월 실행에 옮겼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러나 최익현은 거의 직후 곧 바로 체포되어 서울로 이송되었다가 대마도로 유배되었다.

한 때 최익현과 거사를 논의하기도 했던 기우만은 그 해 여름 단신으로 상경하여 상소를 올리기 위해 집을 나섰다. 육로는 감시가 심해 바닷길로 가기 위해서 무안까지 내려갔으나, 거기서도 감시가 심해 포기하고 말았다. 기우만은 당시 호남의 명유이었던 만큼 일제의 감시가 심했다.

을사늑약 이후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키자는 논의가 무성했으나 그다지 성과가 없던 참에 1906년 가을 광양의 산중에서 은거하던 전 주사 백낙구가 먼저 일어섰다. 백낙구는 수백 명의 의병을 이끌고 순천으로 진격하려 했으나 이 기미를 알아 채 지방관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백낙구를 체포한 왜경은 관련자 수사에 나서 그 해 음력 10월 16일 기우만을 광주군 갈전리에서 체포했다. 이튿날 기우만은 광주경찰서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았다. 왜경은 기우만이 배후에서 백낙구의 창의를 사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실을 실토하라고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서 기우만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백낙구의 창의로 말하면, 그는 먼저 내 마음을 알았다 하겠는데 의(義)는 대단하나 군사가 적어서 실패했으니 사랑스러워도 도울 길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비록 망해도 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니 그 기절(氣節)은 참으로 추앙할 만하다. 무릇 의가 같으면 마음이 같고, 마음이 같으면 가르치지 않아도 가르친 것과 다름없고, 시키지 않아도 역시 시킨 것과 같다.”

당시 기우만은 흰 갓(白笠)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명성황후 인산(因山) 이후 10년 동안을 쓰고 다닌 것이었다. 그는 흰 갓을 쓰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왜경에게 “춘추전(春秋傳)에 적을 토벌하지 못하면 장사(葬事) 일자를 쓰지 않고, 장사 일자를 쓰지 않으면 상복을 벗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라의 원수도 갓지 못한 채 어찌 감히 대중들처럼 검은 갓(黑笠)을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해가 바뀌고 기우만의 나이 62세가 되던 1907년이였다. 두문불출하고 지내던 중 고광순, 김상기, 이항선이 기우만을 찾아왔다. 이들은 지난해 기우만과 더불어 거의하기로 의논을 정하였는데, 순천에서 패한 것을 보고 복수와 함께 부끄러움을 씻을 계책을 서로 물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새로운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전북 태인에서 일어났던 최익현과 충남 홍주에서 일어났던 민종식 등이 지난 해 이미 체포된 지 얼마 안 된 터여서 의병세력은 잠시 정세를 관망하며 그 활동이 주춤하던 때였다.

이후 을사 5적을 암살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1906년 기산도가 구완희, 이세진 등과 공모하여 당시 군부대신이었던 이근택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기산도는 기우만의 당질이었고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고광순의 사위였다. 기우만과 고광순은 함께 의병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인맥으로 인하여 기산도에 의해 암살기도 사건이 발생하자 기우만도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다)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 광주, 영광, 서울 등의 감옥에 갇혀 심문을 받았다. 1907년 4월 20일 서울의 감옥에서 출소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기우만은 두문불출하며 지내다가 1909년에 의병장 기삼연을 비롯하여 김준·전해산 등 13명의 의병 활동과 공적을 담은 『호남의사열전(湖南義士列傳)』을 찬술하였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호남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의병들의 항일투쟁에 관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였다.

1910년에 한일합방소식을 듣고서는 나라가 망한 신하는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해진 옷으로 바뀌 입고 죽림 속에 칩거하였다. 1911년 일본인들이 각 지역의 명망 있는 유림들에게 은사금을 주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여 일본의 침략 야욕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다. 기우만은 이씨 조선의 신하로서 살기를 맹세했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 후 방장산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1916년 남원의 사촌에서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후손들은 그를 순창 무이산 기슭에 묻고, 고산서원에 배향하였다.

3 성재 기삼연

백마장군

기삼연은 조선 말기의 유생이자 의병장이다. 자는 경로. 호는 성재. 본관은 행주. 별명은 백마장군白馬將軍.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하남 출신으로 진사 봉진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재종숙인 노사 기정진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일반 유생들과는 달리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성리학에 전념하면서도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널리 학문을 섭렵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유교 경전 이외에도 도교, 불교의 경전과 패관, 야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책을 탐독하였던 것이다. 특히 병서도 읽고 연구하는 한편, 실제여러 가지 병법을 시험해 보기까지 하였다. 때문에 훗날 선생이 의병을 일으켜 군사들을 조련할 때, 주위 사람들이 “글이나 읽던 선비가 어느 겨를에 군사의 일을 저렇게 익혔을까”하고 감탄해 마지않았다고 한다.



호남창의영수기삼연선생순국비

20대에 집안의 요구에 의해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가장 먼저 글을 완성하여 시관에 제출하였는데 시관이 받아 보니 글이 너무 어려워 해석을 못했다. 결국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격식에 위배되었다 하였다 한다. 그 소식을 뒤에 듣고 내가 벼슬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시관이 나의 글 뜻을 모르니 한심한 일이라 하였다. 그 후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난 탓으로 생각하고, 전국을 유람하며 각지의 많은 선비를 만나며 교류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대원군과 민비의 싸움으로 우리나라 정계는 청나라와 일본의 세력을 입은 두 파로 나뉘게 되어 조정이 어지럽게 되자, 그는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을 뱃속 깊이 한탄하며, 둘째 형인 초산군수 양연을 찾아가 요즈음 임금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인을 버리고 돌아 갈 것을 권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 남도일대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는 진정한 백성을 위한 길이라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청·일 전쟁을 맞아서는 조선이 남의 나라의 이권 싸움터로 변모함을 통탄해 마지않았다.

그 후 그는 친구인 곡성군수 이문영과 같이 축령산에 있는 형님의 별장인 육일정(六一亭)에 들어가 한서와 주역을 읽으며 세상일을 잊고 살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선진문물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청나라의 북경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일본에 패한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어 오직 나라를 지키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하고 일본과 싸울 수밖에 없음 인식한 나머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 그는 기우만과 거의도적擧義討賊을 맹세한 뒤 의병 300명을 모집하고 장성으로부터 나주로 나아가 많은 의병을 소집하여 광산관에서 거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가 선유사로 신기선과 이겸체를 파견하여 선유하자, 의병을 해산시켰다.

구금과 방랑

의병을 해산한 뒤에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의병을 다시 모집할 결심을 하고 기회를 보며 의병 모집의 준비 작업

을 시작하였다. 이 소식은 비밀리에 각 처에 퍼져 갔다. 그의 집에는 날마다 많은 선비와 포수 건달꾼이 드나들었다. 이에 화약을 구하는 사람, 실탄을 구하는 사람, 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졌다. 그러니 장성 관아에서는 국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명령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일본인을 섬멸하기로 굳게 결의한 그는 계속 의병 활동에 필요한 병기와 군량을 마련하는데 힘을 다 하였다. 이 사실을 일진회회원의 밀고로 전주 관아에서 알게 되었다. 1902년 2월 8일은 그의 막내딸 서영의 결혼식을 거행하는 날이었다. 결혼식을 위해 예단함이 들어오고, 예식장이 마련되어 신랑과 신부가 나와 예식이 막 시작되는데 밖에서 말발굽소리가 들리더니 긴 칼을 찬 진위대 군사가 집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전라도관찰사 조한국이 파견한 전주진위대장 김한정의 일행이었다. 그들은 관찰사의 명으로 그를 모시러 온 것을 전하였다. 그는 이 경사스러운 날 이들과 다룰 수도 없고 조용히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형인 양연에게 “무슨 일인 줄 모르지만 관찰사가 찾는다니 가뵙아 되겠습니다. 이 혼례를 잘 부탁 합니다.”하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러나 전주에 도착한 근 그날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주 감옥에 구금되었다. 그곳에서 10여일 동안 머물다 다시 서울 평리원 감옥에 이감되어 한 달 남짓 수감된 뒤 바로 평리원장 이용태에게 보고되었다. 이용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다만 유림의 불행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도덕에 어긋난 일이라 생각했다. 그는 수감 중에 말과 행동이 의리에 벗어나지 않아 옥리들도 서로 경계하며 존경을 받았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일본은 단발령을 내렸으나 잘 이행이 되지 않자 감옥의 죄수들을 먼저 머리를 깎도록 명하여 죄수들의 머리를 깎고, 그에게 다가와 “노인장의 상투도 베어야겠습니다.” 하였다. 그는 “무엄하도다. 부모에게 받은 머리털을 어찌 벨 수가 있는가, 차라리 내목은 벨 수 있어도 머리털은 깎을 수 없다” 하였다. 옥리들이 주춤거리고 있을 때 “내가 죽고 나면 뒷일은 누가 말할 것인가, 너희들이 베려고 하는 단발령은 우리 임금의 명령이 아니니 나의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아니한가?” 하였다.

우리가 그의 뜻을 원장인 이용태에게 보고하였다. 이용태는 옥리에게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오늘 밤 옥문을 열어 주도록 하였다. 평리원을 나온 그는 영등포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막상 가야 할 곳이 없었다. 독립을 위해 일본 세력을 막으려는 자신을 죄인으로 잡아 가두는 세상에서 살아 갈 수가 없었다. 1902년 3월 옥에서 나온 그는 탈옥수로 집으로 돌아 갈 수 없어 다시 방랑생활을 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희미하게 꺼져가는 조국을 한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

폐인을 가장하고 다시 거사를 준비하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국에 의병이 별떼처럼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그는 방랑생활을 청산하고 장성의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일제의 요시찰 인물로 감시의 대상이 되어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는 의병을 모집하여 나라를 구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시를 읊었다. “뉘 집의 의병 대열이 흥주로 나갔는가? 이 이가 그 옛날 목을 찌르던 의사라네. 이 세상 사람들 속으로 웃지를 마오. 앉아서 좋은 말 하는 것이 무슨 공이 있으랴.” 한탄했다. 가는 곳마다 일본인이 확보하는 와중에 내 고장인 장성에서라도 일본인을 내 쫓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의병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봉기할 때 까지 일본인과 관가의 눈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에 그는 자기의 거처를 옮기기로 하고 아들 우생과 상의하여 이튿 날 서삼면 축암리 송계마을로 이사를 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저자거리에 나와 술주정이나 하는 폐인이 되었다. 이러한 행동을 본 일본 헌병대와 관가에서는 그

를 경계하는 눈을 게을리 하기 시작했다.

1906년 여름 중손인 형도가 수박을 가지고 찾아 왔다. 형도는 사냥꾼으로 총을 가지고 있어 그 총을 달라하여 5정의 총을 확보하고, 중형인 양연의 집에 가서 총 3정과 환도 2정을 가지고 와 손수 화약과 실탄을 만드는데 포수들과 화약사를 확보하여 같이 대장간을 만들어 준비가 완료되어 거사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다.

그는 의병의 모집과 군량 의복을 확보하기 위해 북상면 하오리에 전 해남군수 등을 지낸 이용중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다. 이용중은 그를 잘 아는 사이이고 하는 일을 들어 알고 있어 사양치 않고 자금 9백량을 내놓았다. 당시의 9백량은 쌀로 120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거병에 필요한 자금과 병기가 갖추어지자 그는 전국에 거병의 봉화를 올렸다.

1907년 9월 수연산 중턱의 석수암에서 각지에서 모인 100여명의 의병이 돼지를 잡아 그 피를 마시며 적을 토벌할 것을 맹세하였다. 이후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고 병기 다루는 법도 가르쳤다. 그리고 이들의 의복은 흰옷에 패랭이를 쓰게 하여 정규군에 못지않게 하였다.

준비를 마친 그는 자신이 의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이유와 시정책을 상소하였다. 상소를 올리고 거병소식을 격문으로 전달되니 뜻있는 선비나 우국지사들이 하나둘 모여 400여명이 넘는 의병이 모집되었다. 여기서 호남창의회맹소 대장에 추대된 그는 자신의 창의를 뜻을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알렸다.

호남창의회맹소의 맹주

그는 의병을 모집하여 아직 수연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용구, 김태원, 김을 등이 문수사에 모여 협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정탐한 일경이 급습하여 일전을 치르게 되었다. 1907년 9월 16일 고창 문수사에서 기삼연과 김용구, 김태원이 거느린 의병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왜적 수십여 명이 포를 쏘면서 쳐들어오니 군중이 크게 놀라 어찌할 줄을 몰랐다. 대오를 정비하여 일제히 사격하니 일본군 6명을 사살하고 나머지는 도망가는 전과를 올렸다.

1907년 9월 17일 새벽에 군사를 옮겨 장성 통안촌 김감찰 집에서 자고, 이튿날 각자 헤어져 23일 삼계면 수각(앞산)에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1907년 9월 24일 수연산 석수암에 모여 전 의병이 모여 호남창의회맹소를 결성하고 기삼연을 맹주로 삼고 각 부서를 재목에 따라 그 책임을 정하니 전 군중이 환호하며 “우리 2천만 예의 민족이 어이 왜적에게 굴하며,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을 어이 왜적에게 주라 아! 우리 동포 형제들이여! 불공대천의 원수를 멸하고, 우리 성상 모시세.” 만세를 한바탕 즐기고 나서 각자 부대를 이끌고 나갔다.

그가 지휘하는 호남창의회맹소는 각 의병장 중심으로 단위부대를 편성하여, 각지로 분산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작전 목표가 정해지면 집결지와 집결일시를 각 부대에 통보하여 양민을 가장하거나 각개 행동으로 집결지에 모였다. 그런 다음 일시에 작전을 수행하고는 다시 각처로 분산되는 전법을 구사하였다. 때문에 일본군은 좀처럼 의병부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의병활동일지

의거 후 그의 의병부대는 장성 지역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복상을 시작하였다.

1907년 9월 25일 무장 원송리 강대식 승지의 집에 점心和 술을 먹고 오후에 행군해서 무장읍내에 들어가 적과

서로 싸워 적의 피수를 쏘아 죽이니 나머지 적들은 모두 달아났다. 이에 그들의 병기와 기구를 거두었다.

1907년 9월 26일 고창읍내에 이르러 적병과 서로 싸워 20여명을 죽이니 나머지 적은 도망가고, 이에 그 병장기를 수확하고 읍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친일파의 밀고로 적병 50여명이 새벽에 성을 향해 공격하니 줄지에 당한 기습에 참모장 김익중이 전사하고 5시간여 싸움에 적의 죽은 자가 20여명에 달하고, 우리 의병도 한사람이 죽었다.

1907년 10월 3일 그는 주민들로부터 군량 등 군수물자를 지원 받아 영광 법성포로 나아갔다. 그것은 법성포에는 조기어장과 세곡미의 운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찍부터 일본인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일본인들을 위한 경찰주재소와 우편취급소, 상점 등도 갖추어진 곳이었다. 따라서 그의 호남창의회맹소는 이곳을 쳐서 군량미를 확보하고 일제 침략 세력을 응징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왜적 10여명을 쏘아 죽이고 왜적이 사는 집 10여호에 불을 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기계를 모두 빼앗고 그들의 재물은 모두 불에 태워 버렸다.

1907년 10월 5일 장성군 월평리에서 점심을 먹고 오동촌(영창리)에서 적과 접전 끝에 적병 10여명을 쏘아 죽였다. 그리고 진을 북하면 단전리로 옮겼다.

1907년 10월 7일 백양사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적병이 습격해 온다는 첩보에 미리 양쪽 골짜기에 포병을 매복하고 기다렸다. 적병이 곧은길로 올라올 때 양쪽에서 협공 적병 30여명을 사살하였다. 바로 진을 입암산성으로 옮기었다.

1907년 10월 19일 영광의 지사 조사행, 정익노, 노공삼 등이 비밀리에 왜군의 정세를 제공하고, 안 밖으로 공격하기로 협의하여 연합부대인 기삼연, 이철형, 김봉수, 김윤, 김군철, 김창복 등과 함께 군사를 합쳐 바로 영광 남문 밖에서 교전 3시간여에 적병 10여명을 죽였으나 성첩이 견고하고 적병이 심히 많아 죽기로 지켜 성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퇴군하였다.

1907년 10월 21일 영광과 무장을 잇는 전선을 끊기 위해 전주를 꺾어 버렸으며, 마을에 숨어 있는 일진회 회원 1명과 철도교원 1명을 처형하였다.

1907년 12월 7일 선생을 비롯하여 통령 김용구, 선봉장 김태원 등이 지휘하는 호남창의회맹소의 의병부대는 영광 법성포를 공격하여 그곳을 탈환하였다. 그런 다음 순시주재소와 우편소는 물론 일본인 가옥 7채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창고에 쌓여 있는 세곡미를 비롯한 곡식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일부는 군량미로 노획하였다. 그럼으로써 일제 침략세력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이다.

법성포 공격 직후 그가 지휘하는 호남창의회맹소는 일본군의 추적을 피해 의병부대를 나누어 활동하게 되었다. 즉 그가 영도하는 본대는 장성·담양으로, 통령 김용구가 지휘하는 부대는 고창으로, 선봉장 김태원이 인솔하는 부대는 나주·함평·광주로 이동하여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일찍이 해를 삼킨 꿈을 꿨건만...

이와 같이 그가 영도하는 호남창의회맹소 의병부대가 장성, 고창, 영광 등지에서 기세를 떨치게 되자, 일본군 광주수비대는 병력을 총동원하여 10개 중대로 이른바 ‘폭도토벌대’를 편성하고 탄압에 나섰다. 그리하여 이들 토벌대는 1908년 1월 24일부터 광주, 나주, 장성, 함평, 순창 등지에서 의병부대를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1908년 1월 22일 기삼연, 김준, 김윤의 연합 부대는 함평주재소를 기습하고, 일병과 경찰연합부대와 8시간 싸움에 일인 순사 2인을 사살했다. 그리고는 후퇴하여 수연산으로 돌아 왔다. 그는 추운 날씨에 행군을 강행한 결과 동상에 걸려 치료를 위해 약간의 휴식을 취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300여 명의 의병부대를 이끌고 장성을 지나 1월 30일 담양의 금성산성에 도착하였다. 그것은

협준한 지세를 이용하여 그 해 겨울을 이곳에서 보낼 생각으로 옮겨 온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의병부대가 금성산성에 도착하여 대오를 정비하고 있던 중, 담양 주둔 일본군경이 습격해 왔다. 이에 그의 의병부대는 이들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지만, 30여 명의 의병이 전사하는 등 큰 피해를 당하였다. 그의 의병부대는 이때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탈출할 가망조차 없었다. 때문에 선생은 의관을 정제하고 최후를 각오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안개가 깔려 병사들을 이끌고 적의 포위망을 무사히 빠져 나왔다고 한다.

담양 금성산성에서 참패를 당한 그의 의병부대는 곧바로 순창의 복흥산으로 들어가 은신하였다. 그것은 그 동안의 전투로 전력이 크게 소모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일 혹한이 계속되어 더 이상 항전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음력 설날이 다가오자 병사들은 귀향하여 과세(過歲)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의병들에게 일시해산을 선언하였다. 의병들을 각기 귀향시켜 설을 지내게 한 다음 정월 보름에 다시 집결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 군중의 모든 일은 통령 김용구에게 부탁하고 칼과 인장을 김용구에게 내어주었다.

의병부대를 해산한 뒤 그 부근에 살던 재종제 기구연의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일본군에게 은신처가 탄로나 설날 아침 붙잡히고 말았다. 한편 그의 체포 소식을 접한 선봉장 김태원은 장병 30여 명을 인솔하고 급히 출동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을 구하기 위해 광주로 가는 길목인 경양역에 이르렀으나, 이미 일행이 지나가고 난 뒤였으므로 달리 방도가 없어 안타까운 일이었다. 일본군에 체포되어 담양을 거쳐 곧 바로 광주로 호송된 그는 다음날인 1908년 음력 1월 2일, 광주 부동교 앞 백사장에서 피살되어 58세를 일기로 순국하고 말았다. 이는 그를 추종하는 의병부대의 구출 작전을 두려워하여 일제가 재판도 없이 서둘러 학살한 때문이었다.

일찍이 그는 의거를 앞두고 어느 날 붉은 해를 삼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선생은 이 꿈을 붉은 해로 상징되는 일제를 소탕할 소임을 스스로 맡은 것으로 해석하고 늘 이를 자신하였다. 하지만 끝내 그 꿈이 무산되고 말았으니, 선생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읊었다는 다음과 같은 시구만이 그 날의 안타까움을 대변하고 있다. “군사를 내어 이기지 못하고 몸이 먼저 죽으니(出師未捷身先死), 해를 삼킨 전년의 꿈도 또한 허망하도다(吞日曾年夢亦虛).”

그러나 그의 순국은 헛되지 않았다. 그와 같이 호남창의회맹소를 결성하였던 수하의 김준, 김용구, 전해산, 이석용, 심남일, 박도경 등은 물론 안규홍, 강무경, 양진여·양상기 등 의병장들이 나타나 이후 호남을 의병항쟁의 중심지로 부상시켜 갔던 것이다.

4 유리개걸지사 기산도

유학자 집안에서 자라 개화인사와 기독교 청년이 되다

기산도는 1878년 10월 16일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에서 유학자인 식재 기재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진도가 빨라 종조부인 양연과 삼연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기산도의 아버지 기재도 노사의 학풍을 잇는 행주 기씨 가문의 젊은 선비였지만, 그의 종조부인 양연, 학연, 관연, 삼연과 11촌숙인 기

우만은 당대에 호남에서 잘 알려진 유학자들이었다.

기산도는 16세 때인 1893년 녹천 고평순의 고명딸과 결혼하였다. 일찍부터 장성의 행주 기씨 가문과 평소 왕래가 잦았던 고평순은 기재의 아들인 산도의 영특함과 사람됨을 알아보고 진즉부터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고평순의 사위가 된 기산도는 장인인 고평순으로부터 적지 않은 정신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기산도가 결혼한 이듬해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 을미사변이 발생하였고, 이어 단발령이 공포되었다. 기우만을 중심으로 거의할 당시 기재도 고평순, 기삼연 등과 함께 의병부대에 가담하였다. 기재는 기우만과 10촌 지간으로 두 사람 모두 노사 문하에서 동문수학을 한 사이였다. 기재는 기우만의 ‘호남대의소’의 참모에 임명되어 광주에 나아가 활동하였다.

1896년 4월 서재필을 비롯한 젊은 개화파 인사들은 독립신문을 발간했고, 7월에는 독립협회를 조직했다. 척사의 병의 가풍 속에서 유학을 공부하며 장성한 기산도는 이때부터 서울을 오가며 독립협회에 가입하는 등 젊은 지식인들과 교제하면서 점차 개화사상에 눈을 떴다. 또 이즈음 기산도는 장성에서 박인호, 이기 등과 ‘자강회’를 조직하여 자주권의 회복과 국력 신장을 표방하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김동영, <의병열전>). 그러나 유학을 공부했던 그가 어떤 연유로,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서울에 올라가 개화인사로 변신하였는지는 별로 알려진 게 없다.

또한 황현은 기산도가 약관의 나이에 삭발하고 사관생도가 되어 이근택의 집에 출입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정말 육군무관학교의 생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1906년 재판기록에 의하면 이근택 암살 거사 당시 그는 기독교인으로 표시되어 있다(조소양은 <기산도전>에서 기산도를 ‘호남유자(湖南儒者)’라고 적고 있는데, 기산도가 실제로 기독교인이었는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친일매국대신들을 처단하라

한편, 을사늑약 직전에 기산도는 상동교회에 드나들며 청년지도자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상동교회 부속기관으로 젊은 민족운동가들의 집합소 역할을 한 상동청년회에서 활동하였다. 당시 상동청년회는 1904년 한일의정 체결 이후 일본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고 미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과의 보호조약 체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숙의하고 있었다.

기산도는 동지들과 함께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망국적 ‘한일조약’ 체결에 협력한 친일매국대신들을 처벌하기 위한 투쟁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1905년 10월 중하순경에 기산도는 상동청년회의 중추 인사인 정순만, 이동녕의 지시 하에 친일인사 처단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였다. 그가 처단 대상으로 정한 이들은 이지용, 이근택, 이하영, 박용화 등 이른바 4간(奸)이었다. 그는 10월 8일경 신문(新門) 밖에서 열린 국민교육회의 연회장에서 이들을 격살할 것을 모의하고, 동지 손효경으로 하여금 은밀히 가서 관찰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연회에는 이하영만 참가하고 다른 거물급 친일파들은 오지 않았다. 이에 기산도는 “이하영 한 놈 죽이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고 말하고 거사를 포기하고 말았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기산도는 매국노 을사오적을 처단할 궁리를 하던 중 이종대의 집에서 김석향을 만났다. 김석향은 1905년 8월(음력)에 유약소를 설립하고 정부와 외국 공관에 장서를 보냈던 인물이었다. 기산도는 김석향의 지원을 받아 단도 3자루와 옥혈포 1정을 매입하고 이동(泥洞) 한광국 집에서 숙식하면서 김석향과 함께 결사대인 오적암살단을 조직하였다. 오적암살단의 단원에는 기산도

와 김석항을 비롯하여 김일제, 김성초, 김필현, 박종섭, 박경하, 박용중, 손성원, 송효철, 송창영, 안한주, 이근철, 이종대, 이태화, 정재현, 현학표 등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매국노를 죽이는 것보다 그 부형을 죽이는 것이 매국노의 예기를 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이근택의 아버지 이민승을 죽이기로 하였다. 이 계획은 김일제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으나, 일의 실행은 기산도가 주도하였다. 기산도는 11월 23일 밤에 김성초, 송창영, 이근철, 이종대, 박종섭, 박경하, 안한주 등 7인과 함께 각각 칼과 총, 쇠파를 들고 이민승의 집에 잠입하였다. 김성초가 먼저 집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급히 달려 나감에 일이 발각된 줄 알고 돌아와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한편 이즈음 또 을사오적을 규탄 차단하기 위한 또 하나의 흐름으로 각 도의 청년회 대표들이 중심이 된 상동교회의 모임이 조직되었다. 기산도도 참여한 이 모임은 김구와 전덕기 목사를 비롯하여 정순만, 이준, 이동녕, 최재학, 계명륙, 김인집, 옥관빈, 이승길, 차병수, 신상민, 김태연, 표영각, 조성환, 서상팔, 이항직, 이회간, 전병현(왕덕삼), 유두환, 김기홍 등이 함께하였다. 이 모임의 회의 결과 상소를 올리기로 결정하고 이준이 상소문을 지었으며, 제1회 소수(疏首)는 최재학으로 정하고 그밖에 네 사람을 더하여 5인이 신민(臣民)의 대표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들 다섯 사람이 먼저 상소하고, 이들이 사형되면 다시 다섯 사람씩 계속해서 상소 투쟁을 벌일 작정이었다. 상소문에는 조약의 무효화와 함께 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대역죄로 처형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상소문에 서명한 최재학, 김인집, 신상민, 전석준, 이시영 등 5인은 11월 27일 오후 3시경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장하는 ‘이른바 신조약에 대한 변명서(對所謂新條約申明書)’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즉시 대한문(대한문) 앞에 나아가 엎드려 상소를 올렸다. 이 때 일본 순사와 헌병들이 다수 몰려와 위협하며 결박하려 하자, 이들은 크게 꾸짖으며 “우리들이 대한국민으로 대한국의 독립을 위하다가 교활하고 사악한 너희들의 칼날에 원혼이 될지언정 어찌 포박을 감수하겠느냐”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일본 헌병들이 군도로 이들을 난타하였다. 격분한 이들도 맨 주먹으로 대적하였으나, 한층 더 난폭해진 헌병들이 검봉(劍鋒)으로 마구 난타하는 바람에 이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400~500명의 군중이 대한독립만세를 연호하자, 2개 소대 병력의 일병들은 군도를 좌우로 휘두르며 성난 군중의 접근을 막고 상소자 5명을 결박하여 경무청으로 끌고 갔다. 상동교회 모임에 참석했던 기산도도 당연히 군중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상소자들은 일병에 끌려가면서도 군중들을 향해 ‘시수독립’을 외쳤다.

이처럼 상소투쟁과 시위를 지켜보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매국노를 차단할 길이 없음을 확실하게 된 기산도와 그의 동지들은 애초에 마음먹었던 대로 을사오적을 직접 차단하는 것만이 이제 남은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였다.

기산도, 이근택 암살 계획을 결행하다.

상동교회 모임 후 상소투쟁에 나섰던 최재학 등이 구속되자, 기산도는 동지 손성원, 박용현, 김필현, 이태화 등에게 오적의 출입을 감시하게 하는 한편, 을사오적 처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기산도는 을사오적을 차단하고자 박종섭, 박경하, 안한주, 이종대 등과 결사대를 조직하고, 권총과 단도를 각자 지니고 종로에서 이근택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살(刺殺, 칼로 찔러 죽임)하려 했으나, 경호가 심하여 실패하였다.

이후 광군(曠軍)을 모집하여 오적 행차시 돌을 던져 경호인들을 분산시킨 후에 자살을 시도할 생각으로 박경하와 용산에 가서 광군을 모집하려 했으나 또한 실패하였다. 광군 모집에 실패한 기산도는 이날 9시경 결사대 본부인 니동(泥洞) 한성모 집에서 다른 동지들과 함께 경무고문 마루야마(丸山重俊)의 부하에게 체포되었다. 박종섭, 박경하, 안

한주, 이종대, 손성원 등도 함께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일본헌병대에서 갖은 고문과 매질을 당한 뒤 얼마 후 석방되었다. 그러나 기산도를 석방한 일본군은 이들을 ‘요시찰인물’로 짐작하고 밤낮으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백방으로 사람을 놓아 동지를 규합한 기산도는 을사오적의 암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조정은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무대신 이하영 등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반기를 들었으나,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일본에 매수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을사늑약의 체결이 알려지자 이 늑약과 늑약 체결에 찬성한 을사오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들 을사오적 가운데에서도 이근택이 가장 교활하고 악독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이근택은 원래 고종의 총애를 얻어 대한제국 시기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이용익이 재정과 외교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근택은 군사와 경찰부문의 책임을 맡았다. 이용익과 마찬가지로 그는 대한제국 정부의 대외관계에서 친러·반일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우세해지면서 서서히 친일적인 경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그만큼 이근택은 권모술수에 능하고 정치적 수완이 탁월하였다.

이근택도 다른 매국대신처럼 일본 측에 매수되어 적극적으로 을사늑약 체결에 협조하였는데, 친러파라는 혐의로 일본공사의 눈 밖에 나 있던 터라 오히려 열성적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이근택은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는 의형제를 맺었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의탁하여 의자(義子)가 되었다고 한다.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었으며 일본 신발까지 신고 일본 수레에 앉아 항상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며 출입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이라는 보호막을 두르고 일본에 부화뇌동하여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섰던 이근택의 매국행위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의 노비조차 분노할 정도였다. 조약이 체결되던 날, 퇴궐하여 집으로 돌아온 이근택은 집안사람들을 불러 놓고 숨을 몰아쉬면서 궁중에서 신조약을 ‘늑약’하던 일을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다행히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 당시의 일화를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때 마침 비녀(婢女) 한 명이 부엌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부엌칼을 집어 들고 뛰어나왔다. 이근택이 한규설의 딸을 며느리를 삼았는데, 그 며느리가 시집을 때 데리고 온 이른바 교전비(驕前婢)가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이근택! 이놈아 네놈이 대신이 되었으니, 그 나라에 입은 은혜는 어디로 갔느냐? 나라가 위태한데도 죽지 아니하고 다행히 죽음을 건졌다 하느냐! 너는 참으로 개돼지만도 못하구나. 내 비록 천인이라 하더라도 어찌 개돼지의 종이 되겠느냐? 내 힘이 약해서 무슨 수로도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차라리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치고 한규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처럼 민중의 분노와 지탄을 받으면서도 그는 일본세력을 배경으로 하여, 내각에서는 한 대신에 불과하면서도 궁중에서는 수상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기산도가 을사오적 가운데 이근택을 첫 번째 응징 대상으로 삼은 것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기산도는 이전에 이근택의 문하에 출입한 적도 있었다고 하니 이근택의 매국행위에 대한 기산도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을까는 상상하고도 남는 일이다.

두 차례나 거리에서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기산도는 이제 방법을 바꾸어 직접 이근택의 집에 들어가 그를 암살하기로 마음먹었다. 1906년 2월 16일 마침내 동지인 이근철, 이범석과 함께 세 번째 오적암살 계획을 결행하였다. 이날 기산도 등 3인의 자객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집을 나섰다. 이들은 각자 적들이 알아 볼 수 없도록 변장을 하고 계동(桂洞) 골목에 들어섰다. 기산도 일행이 계동 마루턱 이근택의 집에 다다른 것은 16일 밤 12시경이었다. 이

에 앞서 이근택은 오후 7시 경에 별실로 퇴결한 후 8시 경에 손님 여섯 명의 방문을 받고 이들과 대화를 나눈 후 11시 경이 되어서야 침실로 들어 모로 누웠다. 그의 별실(첩)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순식간에 담을 뛰어 넘은 기산도 등 자객 세 명은 곧 바로 이근택의 침실로 들어가 한명은 이근택의 팔을 손으로 잡고 다른 한명이 칼로 이근택을 찔렀다. 이때 이근택이 황급히 방안의 촛불을 켜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객들은 칼로 이근택의 머리와 왼쪽 어깨와 등 및 오른쪽 팔 등 10여 곳을 난자하였다. 그러나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했다.

마침 집안 하인 한 사람이 이근택과 그의 후실이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이 때 자객 한 명이 그 하인을 칼로 공격하여 배와 얼굴, 다리 등 네 곳을 찔렀다. 이어서 안방 근처에서 경호를 하던 우리나라 병사 6명과 경위원 순검 4명이 즉시 달려왔다. 일본 헌병과 순사들도 대신의 집에 설치해 둔 설령줄의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역시 급히 도착하였다. 그러나 기산도 일행은 이미 남쪽의 벽돌담에 설치해 놓은 밧줄을 타고 도망한 뒤였다.

기산도의 이근택 자격(刺擊) 사건은 조정을 경악케 하였다. 참정대신 박제순과 내부대신 이지용은 다음 날 일찍 고종 황제를 알현하고 사건전말을 보고하고 치안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주청하였다. “간밤에 군부대신 이근택의 집에 자객이 뛰어들어 해당 대신의 몸에 부상을 입혔다고 하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평소에 경찰이 엄격하고 명백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어떻게 이런 변이 일어났겠습니까. 경무사를 엄중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청에서 특별히 염탐하여 기한을 정해놓고 범인을 체포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편 이 사건은 곧바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군부대신 이근택씨가 재작일 하오 12시경 그의 별실과 함께 막옷을 벗고 취침하려 할 즈음 갑자기 양복을 입은 신원을 알 수 없는 3인이 칼을 들고 돌입하여 가슴과 등 여러 곳을 난자하여 중상을 입고 바닥에 혼절한 바, 그의 집 청지기 김가가 내실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궤이히 여겨 탐문하고자 하니 갑자기 양복 입은 3명이 안에서 급히 나와 놀라 누구냐 하고 물은 즉 이들이 역시 칼로 김가를 타격하여 귀와 어깨에 부상을 입히고 곧바로 도망갔다. 이군대(李軍大, 이근택 군부대신)는 한성병원에서 치료중이나 부상이 극중(極重)하여 위험이 팔구분(八九分, 십중팔구)이라더라.”(『대한매일신보』 「이씨봉자」)

이근택을 처단하기 위해 실행에 옮긴 사람은 기산도와 이근철, 그리고 이범석이었다. 기산도는 사건 직후 곧바로 체포되었다. 기산도는 얼굴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인조수염으로 위장했으나, 결행 과정에서 인조수염 하나가 대청에 떨어졌고, 그것이 단서가 되어 체포되었다. 이근철이 인조수염을 구입하였는데, 결국 상점 주인의 증언에 따라 이근철과 기산도의 꼬리가 잡히고 만 것이었다.

기산도와 함께 거사에 참여한 이범석은 전덕원, 현학표, 이식, 이상린 등과 함께 김석항이 조직한 유약소에도 가담하여 정부에 상소도 하고 각국 공사관에 장서를 보내는 투쟁을 하다가 체포되어 일본군 사령부에 구금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기산도의 거사는 유학자 김석항이 주도한 유약소의 인물들과도 연결된다. 정교의 <<대한계년사>>에서는 기산도가 전 경무사 구완희와 전 경무관 이세진과 함께 자객을 모집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달아나서 체포를 모면하였다고 하였다. 또 이근철은 체포 당시 구완희의 사주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기산도의 이근택 암살 기도 사건은 당시 을사오적 등 ‘매국노’들에게 충격을 준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을사오적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혹시 있을 암살을 모면하기 위해서 경호를 더욱 더 강화하였다. 박제순, 이지용 등 오적대신의 집에는 병사들이 총을 메고 경계하며 지켰는데, 종전보다 갑절이나 더욱 몹시 엄중하게 지켰으며 오고가는 손님들로부터 명함을 받고 살살이 살폈다.

기산도는 재판에서 1906년 5월 13일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나서다

옥에서 풀려난 기산도는 곧바로 광주로 내려갔다. 종조부인 의병장 기삼연이 순국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기산도는 어려서부터 기삼연의 충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기삼연을 존경하고 따랐다. 일설에 따르면, 기산도가 매국오적을 암살하기에 앞서 종조부 기삼연의 지도가 있었다고 한다.

기산도가 옥에서 풀려난 것은 『폭도편찬』에 실린 광주경찰서장 반도에이지로(坂東榮次郎)의 보고로 미루어 볼 때, 2월 중순 경으로 짐작된다. 기산도가 이근택에 대한 살인미수로 체포되어 옥에 갇힌 것이 1906년 2월이고 2년 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니 만기보다 6개월 먼저 출소한 셈이 된다. 반도에이지로의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월(2월) 17일자로 장성주재 순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었다. 즉, 당군(장성군) 서삼면 송계리에 거주하는 기모는 그의 아들 기산도와 같이 기삼연의 사체를 장사지내고, 또 기삼연의 뒤를 계승하여 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시기상조라 지금은 삼가고 있으나 기산도는 목하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소는 곧 밀정을 파견하여 그의 거처와 사실의 진상을 정탐 중이다.”

이 내용은 기광도의 「성재공행록」에 실린 내용과도 상통한다. 기광도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기산도가 내려와 광주경찰서와 교섭하여 종조부의 유해를 옮기려 했는데, 이들이 허락하지 않아 서탑동에 임시 매장하였다. 이 때 왜정이 그에게 “당신이 기삼연의 일을 계승하였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기산도가 고향으로 내려와 일시적이거나 의병투쟁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폭도편찬>>에 수록된 또 다른 보고(영산포현병분대 학교분견소의 보고)에 의하면, “항상 소집단을 이루고 관내를 배회하던 ‘적괴 이대국’과 기산도 등이 점차 관내를 벗어나 일진회원 및 함평군수에게 격문을 보내는 등 재차 함평읍내를 습격할 계획을 갖고 영광 및 장성 방면 산중에 잠복한 것 같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기산도가 의병대열에 오랫동안 합류했던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자료에 근거해 볼 때 기산도는 안중근 의거 이전에 이미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안중근과 왕래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측의 정보 보고서는 기산도와 함께 정순만, 이범석, 이상설 등의 이름도 거명하면서, 이들이 이미 1908, 9년에 연해주 일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909년 12월 경 일제가 작성한 또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볼 때 기산도는 안중근 의거 직후 얼마 안 되어 연해주에서 귀국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서울을 떠나 방랑 끝에 고흥군 도화면 당곶리에 이르렀다. 고흥 당곶리에는 같은 성씨인 기하요(奇夏堯)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 집에 몸을 숨겼다. 낮에는 여느 머슴과 같이 들에 나가 일을 하는 머슴살이를 하면서 밤에는 사랑에 서재를 차리고 젊은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향일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러다 1919년 고종 황제의 승하 소식을 듣고 국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경하였다. 기산도는 마침내 삼일운동을 목도하면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도했으며, 이후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후원자를 팔방으로 수소문하여 비밀자금을 모집 송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기산도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임시정부의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군자금을 모금하고 있던 김철(金澈)을 만났다. 김철의 본명은 김연상(金演相)으로 경기도 장단군 장남면 원당리 출신이었다. 기산도는 김철로부터 상해에 임시정부가

조직된 사실과 함께 임시정부에서 파리강화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철은 자신은 임시정부의 명을 띠고 조선 각지에 독립사상을 선전하고 또한 ‘의무금’을 모집하러 왔다면서 기산도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산도는 김철의 취지에 찬동하고 김철로부터 ‘전라남북도 의무금 요구 특파위원’에 임명되어 사령장을 받았다.

기산도는 1919년 5월 김철을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에 있는 부친 기재의 집에 데리고 가 인근의 동지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기산도는 5월 24일경 김철과 함께 영광군 백수면 장산리의 김종택을 찾아가 임시정부의 조직을 위한 국민대회 취지서와 선포문 등을 보여주면서 동참을 권유하였다. 김종택은 이에 응락하고 이인행을 기산도에게 데리고 와 동참하게 하였다.

6월 상순경 기산도는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의 박균상의 집에서 박은용을 만나 독립운동 자금의 모집 활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여 약속을 받았다. 박은용은 1907년 기삼연 의병진에 종군한 의병 출신으로 1907년 파리장서에서 명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기산도의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은 이후 7월 말경까지 계속되었다. 기산도가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참여시킨 인물 가운데는 김종택, 이인행, 박은용 외에도 유생으로 1907년 이후 광양에서 의병투쟁을 한 황병학도 있었다. 이들은 전라남북도 일대에서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으며, 이에 호응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소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제공한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의 김요선과 같은 이도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1919년 7월 하순경까지 기산도 등에게 군자금을 제공한 인물로는 순천군 조면식, 곡성군 김창규·안찬선·이화영·이선근·조용준, 구례군 김형석, 보성군 최재학, 임실군 김학수, 남원군 윤용섭, 고창군 강대식 등이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 총액은 504원이었다.

기산도는 8월 초순경 모금활동이 노출됨에 따라 모금액을 분배하고 모금활동을 중단하였다. 기산도는 그동안 모금한 군자금을 나누어 자신은 100원, 황병학 300원, 박은용 260원, 이인행과 김종택은 각각 20원씩 맡기로 하고 각자 흩어졌다.

그러나 1919년 10월 김종택이 동료들과 서울의 부호 홍종욱의 집에서 370원의 적금통장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관련자를 체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산도의 행적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산도와 이인행은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에서, 김종택은 영광군 백수면에서 10월 21일 전라남도 경찰에 의해 각각 체포되었다. 임시정부로부터 파견되어 기산도와 접촉했던 김철은 이미 상해로 돌아간 뒤여서 체포를 면했다.

기산도는 1920년 5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심종결결정을 받고, 7월 19일 판결을 받았다. 기산도는 황병학·박은용과 함께 징역 3년형을, 이인행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종택은 예심종결결정을 받고 공판에 회부되었으나 병보석으로 출감하여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고문의 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그런데 1977년 7월 12일 전남일보 김동영 기자가 쓴 <의병열전, 의사 기산도>에 의하면, 기산도는 체포되기 직전인 1919년 10월 중국의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키 위해 제자인 박길용과 기동연을 데리고 평안도 진남포까지 갔다고 한다. 이때 진남포에서 동지들과 중국으로 향하는 배를 기다리며 기산도는 제자 박길용에게 이별사를 써주었는데, 그러나 박길용은 혼자서는 도저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버티었다고 한다. 일본헌병의 고문으로 오른쪽 다리를 저는 스승을 이국땅으로 보낼 수 없다는 눈물어린 호소에 결국 기산도는 제자 박길용의 만류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는 것이다. 만일 망명에 성공했다면 이후 체포를 면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장흥 객창에서 외로이 숨지다

전라남도 경찰에 의해 체포된 기산도는 광주로 이송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그가 얼마나 가혹한 고문을 당했

는가는 매질에 의한 상처로 짓무른 그의 정강이에 구더기가 우글거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기산도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혀를 깨물어 버렸다.

형기를 마친 기산도는 다시 출옥했으나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한쪽 다리를 완전히 저는 불구자가 되었다. 나라를 뺏긴 그는 고향을 두고도 찾지 않고 방랑하다가 1928년 12월 4일 장흥의 차디찬 객창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51세.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떠도는 걸인 선비’로 자칭하여 “유리개걸지사 기산도지묘(遊離丐乞之士 奇山度之墓)”란 나무비 하나만을 세워 달라는 유언을 남기었다.

그의 시체는 장흥에 묻혔다가 뒷날 그의 양자 노식(老植)에 의해 고향에 옮겨졌다. 1963년 정부는 기산도의 공적을 기려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이에 따라 고향에 있던 그의 유해는 1967년 국립묘지 애국선열묘역에 이장되었다.



遊離丐乞之士奇山度之墓

5 한말 장성의병들

다음은 한말 호남의병사를 수놓은 장성의 의병들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다.

- **김영백** :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 출신. 1907년 10월에 고향을 중심으로 의병 약 1천명을 규합하여 총 200정을 준비하여 장성, 고부, 광주, 정읍, 태인, 부안, 흥덕, 고창 등지를 휩쓸면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그의 활동 가운데 뛰어난 것을 들면 1908년 3월 정읍군 단곡리에서 수비대 기병을 습격하여 피해를 주었으며 7월에는 흥덕에서 수비대 보병과 충돌했고, 9월에는 흥덕의 방장산 백락동에서 기병·현병 및 순사대와 교전했으며, 10월 상순에는 북이면 신기리에서 현병과 격전했고, 11월 상순에는 북이면 오현에서 수비대 기병과 충돌했다. 또한 1909년 1월 말에는 북이면 상곡리에서 수비대 기병과 충돌했으며, 2월 중순에는 북이면 동산리에서, 2월 말에는 흥덕군 세속리에서, 4월 11일에는 흥덕군 일동면 구수장에서, 4월 중순에는 고부군에서, 4월말에는 흥덕군 일남면 유점리에서 각각 현병과 충돌하여 상당한 사상자를 냈다. 그리하여 체포되어 1심에서 교수형을 언도 받았고 2심에서 공소를 기각 당했으며 3심에서 상고를 기각 당해 처형당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화승총을 개조하여 뇌관식 총탄발사기로 개조하여 의병의 전술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1982년 독립장.
- **강사문** : 일명 강관열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옥동 출신으로 본래 대장간업과 산포수 노릇을 하다가 1908년 1월 29일에 의병장 김준의 부하로 들어갔다. 2월 14일에 독립부대를 편성하여 3월부터 의병활동을 본격화했다. 그는 장성을 비롯해 창평, 광주 일대에서 주로 활약했는데 1909년 3월 14일 새벽에 창평군 연천에

서 광주 순사대와 격전을 벌여 명성을 떨쳤다. 그리고 그의 활동 중 뚜렷한 것을 들면 1908년 9월에 의병 100여명을 거느리고 출동해 활동했다. 그런데 1909년 7월 고향인 진원면 학림리 옥동에서 광주 분견소의 헌병에게 급습을 받아 체포되어 동년 12월 17일에 광주옥에서 순국했다. 1998애국장.

- **박준기** : 1906년 기삼연의 의진, 의진의 참모 김봉수와 함께 장성 남면에서 접전. 1907년 담양 탐정전투에서 교전 중에 큰 부상을 입고 귀가하여 투병생활. 1907년 7월 25일 왜병 10여명이 그러한 정상을 알고 돌입하여 와서 붙잡힘. 적의 혹독한 고문에 시달리다 총살 순국. 1991애국장(1980대통령표창).
- **김원봉** : 기삼연의 의병소모에 자진 참여. 장성·영광·함평·정읍 등지에서 적과 접전. 1908년 장성 황룡면 전투에서 교전 중 전사. 1991애국장(1977대통령표창).
- **김익중** : 가세가 빈한하여 학문을 익히지 못하였지만 선을 즐기고 의를 좋아함. 1896년 사방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격문이 전해지자, 이는 포사(砲士)들을 널리 포섭, 금성과 광산 사이에서 기의. 고을 사람들이 글 읽지 않은 선비(不讀書學者)라 함. 1896년 2월 기삼연 의진. 이즈음 김익중은 송사 기우만에게 “지금 국가의 형세가 위태롭기가 한 털에다 천근의 무게를 단 것처럼 되었으니 마땅히 일찍 스스로 계획을 내어 훗일에 일할 준비를 해야겠으나, 그럴 계기가 없으니 나는 향약을 복구하여 시행한다는 핑계로 시설을 하여 보겠노라” 함. 실제로 고을과 동리에 두루 권유하여 매월에 한 번 모여 독법하고 강약하여 명분을 정하고 상벌을 시행. 호남창의회맹소에서 김익중의 역할 중에 괄목할 만한 것은 대중적 기반을 다져 준 것. 유생 계열 의진은 대중적 기반이 약하였던 것이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나 김익중은 포수와 보부상들을 의진에 참여시키고자 진력. 9월 26일 고창을 공격하여 성을 점거하는데, 김익중은 기삼연·김태원·이남규·유인수와 더불어 적과 교전. 이 전투에서 2, 3시간만에 적의 장교 여러 명을 죽임. 밤에 또 적의 병참을 공격하여 적의 병기를 노획하는 중에 군대와 떨어져 외로이 있던 중 김익중과 이남규가 적의 탄환을 맞아 순국. 1990애국장(1977건국포장).
- **백효인** : 1907년 1월 기삼연의 호남창의회맹소 총독. 고창 문수사, 영광 범성포, 장성·영광·정읍·부안 등지에서 적과 접전. 기삼연 순국 이후 의병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귀향, 은신생활 중 적에게 노출되어 피체. 모진 고문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짐. 1990애국장(1980대통령표창).
- **김기봉** : 호남창의회맹소 통령 김용구의 아들. 군대해산 이후 부친과 함께 기삼연의 호남창의회맹소에 참여. 부친을 따라 작전을 수행하다 1907년 12월 10일 흥덕 안치 전투에서 부친을 도와 적을 대파하다 전사 순국. 1991애국장(1963대통령표창).
- **김봉수** : 1906년 일심계. 1907년 호남창의회맹소, 기삼연의 서기 겸 참모. 1908년 1월 19일 장성 황룡면 탐정리에서 교전중 전사순국. 1990애국장(1980건국포장).
- **김봉훈** : 형 봉수와 함께 의병 운동. 1907년 기삼연 의진 총포수로 장성·영광·함평·담양·광주·나주·무장·고창 등의 전투에 형과 함께 참여. 1908년 1월 19일 장성전투에서 형 봉수가 전사하자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더 열심히 의병운동에 참여, 1908년 11월 2일 담양에서 적과 접전하다 순국. 1991애국장(1980대통령표창).

- **이기창** : 군대해산 이후 기삼연·김태원·김용구와 의병 거사 상의. 기삼연 의진의 호군장. 1908년 장성 황룡면 탐정리에서 교전중 전사순국. 1990애국장(1980건국포장).
- **김순오** : 박준학 의진. 1908년 음력 4월 16일 박준학 의병장의 지휘 아래 김재구 등 의병 6명과 함께 군자금품을 모집하기 위해 창평 내면 지곡에 거주하는 정도사의 집으로 가던 중 피체. 광주제관소에서 징역5년/12월 22일 대구공소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름. 1995애족장.
- **김찬순(김성채)** : 1906년 영광에서 김태원·전해산 등과 함께 밀회하면서 거의를 계획. 1908년 음7월 25일 경 전해산 거의 당시 전해산 의진의 도통장. 호남에서 많은 의병장이 실패하여 전해산의 심기가 다소 불안하여 이를 안정시키는데 도움. 또한 기삼연과 김태원이 희생된 후 의진이 사분오열되어 연합전선 구축이 어려울 당시 이대국 의진의 총독장 채경운을 전해산에게 추천하고, 이대국과 김유성 의진 등 다른 의진과의 연합·합진을 권유. 장성에서 교전 중 체포되어 총살되었다고 전하나 세부는 미상.
- **이태우** : 군대해산 이후 신보현 의진. 장성 일대에서 일본군 수비대의 동정 탐지와 연락하는 정보활동. 1908년 봄 장성 백양산에서 주둔중인 의진(70여명)에게 약수정 주둔 일군토벌대의 동정을 알려 의진을 보호. 8월 20일 장성 갈남마을에 주둔중인 의진에게 일군수비대의 정보를 알려 의진을 보호. 1909년 9월 10일 징역5년. 1995애족장.
- **윤수봉** : 1908년 장성에서 김을 의진. 음6월과 9월 장성·영광·영암 등지에서 활동하다 피체. 1909년 1월 23일 내란죄로 징역3년. 2016애족장.
- **변각원** : 김영백 의진에 1909년 2월부터 가담하여 활동. 주로 의병 모집과 군수품 수합에 종사. 징역1년. 1995애족장.
- **국동완** : 기삼연 의진의 전해산 휘하에서 후군장. 그러나 거의 독자적으로 활동. 1908년 1월 장성과 광산에서 교전. 1909년 음4월 20일 약 10명과 함께 흥덕 은곡리 민가에서 군자금 1백냥 수합. 4월 29일(음) 붓짐장사 문판석이 부하로 가담하여 국동완 의진의 이동과 군수품 조달에 협력. 이즈음 이들은 부안·고부·흥덕 등지에서 약 40명으로 구성된, 총기 약 20정을 휴대한 기동성 있는 유격부대의 성격. 대체로 등짐장수 상인 등 신분이 비교적 낮은 계층의 인물들로 구성. 5월 30일 국동완의 지휘로 박춘집·최동이 등 8명이 등짐장수로 가장, 고부 거마면 평교리 일본인 대삼오랑(大森五郎)의 집에 가서 총6정·칼1자루·양산1·탄약 70발을 탈취. 9월 6일 42세의 나이로 전북 금곡(고창동남 10리)에서 40여명의 부하와 함께 일본보병 제1연대에 의해 피체, 9월 10일 총살 순국. 1991애국장(1980대통령표창).
- **최동이** : 1909년경 국호남 의진. 군자금·군수품 수합. 5월 30일 채봉산·박춘집 등 의병 8명과 함께 등짐장수로 가장, 고부 거마면 평교리 일본인 대삼오랑(大森五郎) 집을 습격. 집을 보고 있던 일본인 중진덕장(中津

德藏)을 구타 응징하고 총기6정·탄약70발·도검1자루 등 노획. 1909년 7월 28일 징역15년. 1995애국장.

- **조문섭** : 1908년 후반 강사문 의진. 음12월 9일 의병 약 20명과 함께 광주 한치면 원우리에서 군량미 25석을 징발. 1909년 6월 12일 순창 북흥면 비거리~이정리 큰길에서 현금 3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피체. 1909년 6월 30일 강도죄로 징역5년. 1912년 9월 13일 은사에 관한 조서에 의거, 12월 19일 형 집행 면제. 2016애족장.
- **오성현** : 1907년 9월 기삼연 의진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 1908년 5월 유종여 의진에서 순창·장성 일원에서 활동. 1908년 10월 창평·담양·옥과 일원의 이진사 의진. 1909년 2월 장성·홍덕·고부 일원의 김영백 의진. 강도죄·폭동죄로 징역10년(1심)/12년 칙령제23호로 징역3년6월로 감형. 2015애국장.
- **김봉선** : 1909년 3월 장성에서 의병봉기를 촉구하는 격문을 인쇄하여 광주군 각 면으로 발송하는 등의 활동. 김봉선(인쇄관 담당)은 김봉의(목관조각 담당)·오성삼과 함께 호남의소 도통대장 박용식이 작성한 의병을 모집하는 내용의 격문을 인쇄. 당시 박용식이 보낸 통문은 전라도 각군 각면 각리의 모든 계층이 단결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의병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내용. 박용식은 “국가가 비록 망했다고 하나, 의(義)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망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비록 죽었다고 하나 의가 죽지 않았으면 죽어도 죽지 않은 것”이라고 하며 의병에 나설 것을 촉구. 이에 김봉선은 인쇄관 40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1909년 5월말 광주경찰서에 피체. 1909년 7월 12일 광주재판소에서 내란죄로 유형2년. 2014애족장.
- **오성운(오성삼)** : 김봉선과 동일. 광주경찰서에 피체 인쇄된 격문과 통문 200여 매를 비롯하여 인쇄관 40매 및 목재 활자 수천 개를 압수당함. 1909년 7월 12일 광주재판소에서 내란죄로 유형2년. 2015애족장.
- **김선옥** : 1909년 고부·태인 일대에서 이성화 의진에 속하여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 의병장 이성화는 1908년 고부에서 창의, 고부·태인·순창·부안·정읍 등지에서 10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활동. 08년 3월 고부, 6월 정읍·태인·고부·순창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며 군세 확장. 1909년 1월 6회, 2월 9회에 걸쳐 기습작전으로 일제기관을 공격. 4월 신보현 의진과 합세하여 순창 가포곡 일대에서 접진. 5월 1일 태인 인곡면, 5월 19일 고부 벌말면, 6월 20일 고부 우덕면 등지에서 교전. 1909년 7월 일본경찰·헌병대·수비대를 공격한 횃수가 26회에 이를 정도. 김선옥은 1909년 음3월 25일 고부 답내면 팔부동 동장 이성천의 집에서 당목 2필을 군수품으로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1909년 7월 28일 고부경찰서 경부 정인하가 이끄는 수색대에 피체. 강도죄로 징역3년. 2015애족장.
- **박판기** : 1908년 음력 11월 1일 신보현 의진 참여, 순창 일원에서 활동. 1909년 9월 23일 장성 북하면 성암리에서 고부경찰서변장수색대에 피체. 폭동죄로 징역1년6월. 1910년 8월 대사령으로 출옥. 2015건국포장.
- **정정학** : 순창·장성 일대에서 1908년 10월 유종여 의진에서 활동하다 일시 귀가. 1909년 2월 22일경 다시 참여. 1909년 9월 24일 조양현·조경춘 등과 고부경찰서순사대에 피체. 폭동죄로 징역1년. 1910년 8월 칙령제325호로 출옥. 2016건국포장.

- **마신엽** : 소년시절부터 애국심이 깊었으며 16세에 부친 마원서의 “조선을 삼키고자 하는 왜병을 물리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듣고 항일활동을 계획. 1908년 신보현 의진의 부장. 주로 파랑군으로서 의병들의 물품을 운반, 신보현의 그림자처럼 시종일관 행동을 함께하면서 순창과 담양 일대에서 활약. 1909년 9월경 담양 무정면까지 진출하여 10여명의 의병들과 함께 군자금을 모으던 중 피체되어 모진 고문을 당함. 1909년 10월 27일 광주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2년. 1910년 8월 사면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었으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함. 1993애족장.
- **황재풍** : 1909년 10월경 장성·월평·광주 부근에서 활동하다 피체, 탈출. 다시 피체되어 사살 순국(11월 1일). 1991애국장.
- **신경수** : 1908년 김영백 의진. 11월 동지 3명과 함께 군자금 모금을 위해 전북 오덕군 반룡리 민가에 들어가 금 40량을 모금. 12월 23일 장성 북상면 송산리 유용경 집에 찾아가 엽전 50량을 모금. 1909년 5월 24일 광주재판소 전주지부에서 강도죄로 교수형, 6월 24일 대구공소원에서 징역10년으로 감형. 1909년 11월에 옥중에서 순국. 1990애국장(1983건국포장).
- **이화삼(이영환)** : 을사조약 이후 장성 삼계면 자초리에서 일가 50여 가구 장정과 거의, 스스로 맹주가 됨. 삼북주재소 습격을 시작으로 1906년 3월 군율작전, 비란내작전 등 수십 차례 교전. 1906년 봄 영광에서 기병한 이대극 의진, 이후 기삼연 의진으로 법성포·무장·장성 등지에서 참여. 1908년 3월 19일 김준과 의진 재판성 당시 후군장(맹주 이대극·참모 어화삼·선봉장 이백겸). 1908년 4월 18일 무장·고산 등지에서 일본기병과 교전. 5월 8일 불갑산 연실봉 전투. 9월 12일 고창 석곡전투(이백겸 패전). 10월 20일 무장 장자산 전투(이백겸을 대신한 강필주 전사). 1909년 4월 3일 이대극 순국 이후 의병진을 수합하여 의병장이 됨. 1910년 1월 영광·백양산 등지에서 교전. 본 진영과 합류하여 교전중 총탄에 맞아 1월 28일 순국. 1990애국장(1986건국포장).
- **김봉환** : 1901년 중추원의관으로 세계개혁안 제출. 1903년 인재택용과 군비확충 등의 현의. 그러나 채용되지 않아 사임하고 귀향하여 학문에 전념.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자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북쪽을 바라보고 통곡하다 일제를 격렬하게 규탄. 향리에서 제자들과 항일투쟁을 계획하던 중 헌병경찰이 체포해서 투옥했으나 일본을 꾸짖고 규탄하는 항성이 그치지 않음. 옥중에서 증병을 얻어 집에 돌아왔으나 계속 피를 토하다 며칠 후 절명. 1990애족장(1968대통령표창).

참고자료

장성군사편찬위원회, 『장성군사』, 1982.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광주광역시·전라남도(홍영기),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 동학혁명·한말의병』, 2015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홍순권, 장성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실린 <행주기씨 한말의병> 관련 글



항일독립과 해방을 외치다_ 장성의 근현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오른 전남의 독립유공자는 총 1266명이다(2021년 1월, 본 책 기준). 그 중 장성은 의병(31), 3·1운동(20), 국내항일(7), 의열투쟁(1), 학생운동(15), 계몽운동(1), 임시정부(1), 일본방면(1), 만주방면(3)으로 총 80명에 이른다. 하지만 꽤 낮설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공훈은커녕 기억에서조차 사라져가는 이들도 많다. 게다가 지역의 역사를 종합한 『장성군사』의 기록은 근·현대사에 이르러서는...

1 장성의 3·1독립만세운동

서울에서 시작하여 전국의 방방곡곡을 울린 3·1운동은 장성에서도 강하게 전개되었다. 장성의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근 광주 3·1운동을 주도했거나 참여한 경우 하나와 장성 지역 3곳에서 추진된 운동이다.

첫 번째로 광주 3·1운동을 주도했거나 참여한 경우이다. 장성에서는 3·1운동 이전에 이미 만세시위가 계획되었으니 그 추진자들은 진원면 산동리의 박일구와 북이면 백암리의 김기형이었다. 고창고보를 졸업한 박일구는 1918년 2월 김기형·최한영 등과 자주 접촉하여 토론하며 반일사상을 굳혀왔다. 그런데 1919년 2월에 이르러 정광호·최정두가 2·8독립선문을 가지고 광주에 왔다. 이에 최한영·박일구 등은 2월 5일~6일 사이에 장성 북이면 백암리에 있는 김기형의 집에서 2·8독립선언문을 국문으로 700매, 일본문으로 50매를 인쇄하였다. 3월 19일 광주 3·1운동 당시 검거되어 박일구는 징역 3년을, 김기형은 1년 6월을 언도받았다. 1922년 출감한 박일구는 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일운동을 계속하다 1930년 독립을 꿈울 이루지 못한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두 번째로 장성 지역에서의 만세운동인데, 이는 다시 세 지역, 즉 삼서면 소룡리, 장성읍, 그리고 모현리로 나눌 수 있다.

삼서면 소룡리의 만세운동은 소룡리에 거주하는 송주일이 주도하였다. 송주일은 소룡리 교회에서 경영하는 소학교 교사였다. 그는 1919년 3월 8일 은사인 송일중학교 교감 송홍진(광주 양림동 거주)으로부터 장성에서의 만세시위를 촉구하는 서신을 받았다. 송주일은 광주의 거사일인 3월 10일, 마을의 예수교 예배당으로 가서 교인 약 70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서신을 읽어주었다.

송홍진의 편지내용은 ‘조선은 이제 독립하게 되었으니 그대는 면사무소와 동네 이장은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이 서신을 알려라. 광주에서는 이미 각 학교의 학생과 남녀노소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이를 들은 교인들은 모두 크게 감동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3월 15일로 예정한 만세시위는 헌병대의 감시가 심해 실패했다. 이어 17일에도 송주일은 마을의 큰 길에서 조병렬, 조병철, 조병권에게도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했는데, 결국 체포되었다. 4월 11일 광주지법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로 이송, 5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

장성읍의 만세시위는 정선유가 주도하였다. 그는 장성읍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광주고보와 서울의 제일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의 숭실학교를 마쳤다. 이후 고향에 돌아와 장성읍 성산부락에 예배당을 세워 150여명의 교인들과 예배를 보았다. 그리고 장성에 사립 숭실학교를 설립하여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민족정신과 항일사상을 고취하였다. 이런 배경 아래 그는 교인들과 학생 100여명 그리고 읍내의 청년과 군중 수백 명을 이끌고 3월 21일에 장성읍내를 휩쓸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헌병대가 출동하여 무력으로 탄압했지만, 그날 저녁 9시에는 각 면의 동지들과 연락하여 봉화를 올리면서 시위를 계속했다.

이후 장성읍의 여러 지사들은 3월 25일 밤에 산마루에서 올리는 봉화를 신호로 각 면에서도 산 위에서 일제히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군내 각 면의 동지와 연락했다. 25일 밤 9시경부터 군내의 각 산 위에서 일제히 봉화가 타오르고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천지를 울려 퍼졌다. 각 부락에서도 온 마을을 돌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험준한 산이 많은 장성군의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산 위에서 그리고 밤에 전개하는 만세시위 만큼은 일 헌병들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북일면 모현리의 만세시위는 4월까지 이어졌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점이나 그 규모나 정도 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모현리의 만세시위는 임진왜란 당시 남문창의와 한말 의병의 기억을 상기하게 하는 스토리도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비교적 자세히 접근한다.

모현리는 모현, 평촌, 화동, 북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세시위는 모현리에 25여 년 전에 입향한 고령신씨와 문화류씨가 주도하고, 하동정씨와 해주오씨 등이 참여했다. 모현리는 임진왜란 때 남문창의를 일으킨 북일면 오산리와 인접해 있고, 1907년부터 1909년까지 1천여 명의 의병을 모아 일본군과 싸운 김영백 의병장의 태생지인 북이면 달성리와 가깝다. 모현리에 거주했던 고령신씨는 백암리에서 이주해왔고, 당시 백암리에 적지 않은 고령신씨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달성리가 백암리와 바로 이웃해 있는 마을인 점을 감안할 때 백암리 고령신씨들이 김영백 의병장의 휘하에서 의병활동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첫 만세시위가 일어난 4월 3일은 음력으로 3월 3일인 삼짇날이었다. 모현리 사람들은 해마다 삼짇날에는 화전놀이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기회로 삼아 마을의 유지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만세시위에 돌입했다. 모현리의 유지들은 주막인 박승화의 집 앞 냇가에서 환담을 나눴는데, 고종황제의 죽음과 나라 잃은 망국의 비탄 탓에 화전놀이 보다는 자연스럽게 시국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곧이어 화제가 광주와 장성의 만세시위로 모아졌다. 유상설, 고용석 등이 1차대전 후에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었다는 세계정세를 설명하고 장성에서도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문선생인 정병모가 만세시위의 결행을 주장하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동조했다.

곧바로 광복천에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깃발과 대형 태극기를 만들고 많은 동네사람들을 모이게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유상설, 고용석, 정병모, 신태식, 유상학, 신상우, 신국홍 등이 앞장서고 200여명의 마을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모현리 일대를 행진하니 어느새 시위 군중은 수백여 명으로 늘어났고, 마을에 남은 사람들도 이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평화롭게 시위를 끝마쳤다.

이날의 만세시위를 뒤늦게 알게 된 사거리 헌병주재소의 헌병대가 몰려와 마을 사람들을 다그치더니 유상설, 고용석, 유상학, 신진식 등을 주동자로 지목하여 체포했다. 헌병들이 돌아가자 정병모, 신태식, 신상우, 유상순, 신국홍, 신경식 등은 다시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다음날 아침에 오상구, 박광우 등 약 200여명과 더불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사거리 헌병주재소로 몰려갔다.

4월 4일은 마침 사거리 장날이었다. 정병모, 신태식, 신상우는 밤새 60여 장의 태극기를 그려 사거리 장터로 갔다. 장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만국강화회의(萬國講和會議)에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이

승인되었으니 조선도 독립이 되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군중을 모으니 수백여 명의 면민들이 동참했다. 11시 경에 이들은 북이면 헌병주재소로 가서 어제 체포된 네 사람의 석방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장성 헌병분대까지 동원한 일본군은 칼과 총으로 주민들을 위협하며 강제 해산시키고, 정병모, 신태식, 신상우를 체포했다. 한편 신국호, 유상순은 새벽부터 모현리 각 마을을 돌며 사거리로 나갈 것을 외치며 사람들을 모았다. 1백여 명의 주민들은 대한독립기라고 쓴 태극기를 앞세우고, 모현리에서 사거리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로 들어갔다. 일본군 헌병대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신국호, 유상순, 오상구, 박광우를 체포했다.

모현리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주동자가 체포되는 등 일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장성의 만세운동은 계속되었다. 4일 밤부터 삼서면, 진원면, 남면, 동화면에서는 산마루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으며 다른 면에서도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운동을 펼쳤다.

1919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은 유상설·고용석에게 징역 2년을, 정병모·신태식·신상우·신국호는 징역 1년 6월을, 유상하·유상순은 징역 1년을, 오상구·박광우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상우는 항고취지에서 “무릇 국가는 백성 사랑하기를 구슬같이 하고, 백성은 나라 사랑하기를 하늘같이 해야 하거늘 본인은 4천년 조선민족으로 만세를 부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했고, 유상설은 “본인은 조선민족 중의 한 농민으로 시골에 묻혀 있어서 세상일을 잘 모른다. 그러나 타고난 양심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으며 나라에 대한 의리도 대강 짐작한다. 지금 민족이 평화회의를 열고 민족자결을 행하여 조선도 독립할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양심이 발동하여 기쁜 마음에 잠시 조선 독립만세를 불렀다. 사실인즉 자기 나라의 독립을 축원한 것뿐인데 이것이 왜 죄가 되느냐?”며 항의했다.

만세시위를 주도한 이들은 단 한사람도 일제의 탄압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조선의 독립과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감옥에서 형기를 마친 만세운동 주도자들은 심한 고문 후유증과 울분으로 대부분 단명하고 말았다. 신태식은 고문 후유증으로 손가락을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였고, 5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계속되는 일본 헌병대의 감시를 피해 마을을 떠나 유랑하거나 자손도 두지 못하고 운명한 경우가 많았다.

옥고를 치르고 일부 인사들은 신간회 활동을 하였다. 신경식·유상순 등은 젊은이들에게 민족의식을 높이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오북의숙(鰲北義塾)을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다. 오북의숙은 임진왜란 때 오산창의(鰲山倡義)를 했던 오산리 북쪽에 세워진 학교라는 의미다. 그리고 오산은 장성의 별호이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신경식의 4촌인 신태식이 자신의 집을 내어줘 가능한 일이었다. 오북의숙에는 전남 각 지역에서 2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고, 곡성의 신태윤과 광주의 최한영 등을 초빙하여 신문화 교육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게 했다. 그러나 오북의숙을 세운지 4년 만에 일본 헌병대는 학교를 강제로 폐쇄하고, 북이면 사거리에 사거리 공립보통학교를 세웠다. 오북의숙이 폐쇄되자 다시 모현리 냇가에 건물을 지어 야학을 열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개 반을 운영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한 모현리 주민들은 기미년 만세운동을 후세에 알리고, 13인의 지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장성의 뜻있는 사람들이 3·1계(契)를 조직하여 논을 장만하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 신경식의 조카인 신태호는 당시의 재판 기록을 찾아내 전남도와 장성군에 건의하고, 3·1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89년 현재의 사우를 건립하게 되었다.



삼일사. 사우 내에는 13인 지사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모현리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13인의 지사들은 대부분 자손을 두지 못하고 별세했거나 자손을 둔 사람들도 일제의 탄압을 피해 고향을 떠난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지사들의 자손은 일본의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오직 농업 등에 종사하며 가난하게 살아왔다. 오복의숙이 있던 자리에서 다섯 마지기 농사를 짓고 있는 신태식의 아들 신양호 씨는 “우리 집안은 다행히 자손이라도 두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자손마저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렇듯 장성에서는 대규모 시위만 하더라도 삼서면 소룡리 교회의 시위를 비롯하여 장성읍의 만세시위 그리고 가장 격렬했던 모현리 만세시위 등 6차의 시위가 있었고 참가한 인원은 1천5백여 명이고, 19명의 사망자, 15명의 부상자 그리고 15명이 검거되었다.

일본 헌병사령부는 전남의 만세운동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발생 당시에 있어서 폭민(暴民)의 심정은 자기의 행동을 크게 과장하여 의기는 양연(昂然)하여 경찰관이 체포하려고 오른 손을 잡으면 왼손을 들어 만세를 부를 정도로 열광적이어서 경관이 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것 같은 일은 거의 없다.” 그만큼 격렬하고 당당한 만세시위였다.

이에 대해 일제는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 장성에서는 그 주력이었던 장성헌병분대가 장성군의 책임을 맡고 그 밑에 장성읍의 월평출장소를 비롯하여 진원면에 영신리 파견소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장성군의 요소에 배치되어 있었던 헌병경찰은 무력과 폭력으로 시위군중을 탄압하고 그 대표들을 검거했다. 헌병경찰은 시위군중 가운데 주동자를 목격한 데로 구속하거나 추종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사복으로 변장하고 시위군중 속으로 잠입하여 붉은 색의 표시를 해두었다가 체포하기도 하였다. 주동자를 찾아내기 어려우면 군중들을 협박하고 고문하여 기어이 색출하여 혹독한 구타와 악랄한 고문을 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넘겼다.

2 광주학생운동과 장성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장성인들

먼저 **성진회**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 김기주 : 광주사범학교 졸업 후 보통학교 훈도로 재직하면서 광주사범 독서회에 참여하던 중 광주학생운동으로 피검. 성진회 사건에 연루되어 치안유지법으로 징역2년(1심)/1년(2심). 1990애족장(1982대통령표창).
- 나승규 : 농업. 1927년 12월 신간회 장성지회 간사. 1929년 6월 신간회 북대표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 후보로 선출. 성진회 활동에 참여. 독서회 중앙회가 운영하는 소비조합에 자금 출연. 1920년대 중반 장성지역의 사상단체인 효성단에서 기노춘, 임호준 등과 활동. 징역1년6월/1년.
- 김종선 : 훈도. 광주지법예심종결(면소)
- 송종근 : 농업. 광주지법예심종결(면소)

다음은 독서회 활동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 송동식 : 광주사범학교, 독서회중앙본부 조직교양부위원, 광주사범 독서회 대표. 징역4년/2년. 1933년 3월 장성협동조합 사건으로 한때 피검. 1990애족장(1968대통령표창).
- 이영백 : 징역3년/1년.
- 김병기 : 광주고보 독서회, 광주학생운동 관련 금고4월·집유5년. 독서회 관련 치안유지법으로 징역2년6월/1년. 1990애족장(1968대통령표창).
- 김종기 : 징역2년6월/1년.
- 최달봉 : 금고6월/5년간 집행유예
- 박종진 : 광주사범 독서회, 금고4월·집유5년. 1931년 4월 담양노동조합 상임서기로 임금인상투쟁 지도. 10월 일본인 미곡상인의 조작된 노임인하 술책에 항거하다 피검. 1931년 11월 24일 광주지법에서 징역6월을 받았다가 12월 9일 1930년에 받은 금고4월·집유5년 판결이 취소되고 금고4월의 실행 가중. 1990애족장(1986대통령표창).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이후 일본에서 활동한 인물도 있다.

- 기회준 : 광주고보 4학년 재학 중에 광주학생운동에 참여. 1930년 2월 26일 광주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상해·가옥침입·보안법으로 금고4월·집유5년을 선고받음. 1930년 **일본 교토(京都)의 사립 료요중학(兩洋中學, 이 학교는 광주학생운동으로 고초를 받은 조선인 학생을 수용할 목적으로 신입생을 모집. 30년 9월말 현재 조선인 학생 161명 중 81명이 퇴학생)에** 편입. 같은 해 6월 21일 조선인 학생들을 모아 재료요(在兩洋) 조선유학생친목회를 결성. 10월 22일 친목회 주최 웅변회에서 ‘조선 학생이 배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 아래 “일본의 노동자·농민과 단결하고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여 절대적 해방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또 우리는 중국혁명을 지지하고 저들을 다치는 대로 두들겨 부수지 않겠는가?” 등의 내용을 연설하여 경찰의 제지를 받음. 이후 1931년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출판노조 교토지부 준비회에서 가입하고 무산청년회 교토지국 책임자로 활동하다 1931년 8월 26일 체포됨. 1931년 11월 28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자세한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음. 2016대통령표창

그 외 광주고보 맹휴 및 시위로 김천기, 김일중, 김관수 등이 정학 및 퇴학 처분을 당하였다.

제2의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장성인들(기영도, 기환도)

전시체제 하에서 사회운동은 항상 감시받고 탄압받았다. 체포된 운동가들은 전향을 강요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의 감시망을 피한 비밀결사들만이 소수가 조직되어 일제의 패망을 촉진하거나 독립을 준비하는 활동을 시도했다. 학생들이 모임을 갖는 것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기에 학생들이 만든 비밀결사들이 그나마 존속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전국 각지에서 학생비밀결사들이 많이 형성되는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광주서중의 무등회가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광주학생운동의 주역이었던 광주고보는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광주서중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광주고보 이래 학생운동의 전통은 여전히 강력했다. 일제 관헌조차 광주서중에는 광주학생운동 당시 처벌당한 학생을 영용시키고 찬미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하면서 “사상동향이 과격”하고 “일본·조선 간의 차별문제에 대해 원망의 소리”가 높다고 했다. 한 마디로 “제국의 통치정책을 지목하여 필경 조선 고유의 문화를 파괴, 멸절하고 민족의 멸망을 도모하는 것”이라 규정하는 등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불온 과격한 사상 동향이 동교의 숨겨진 교풍”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광주서중학교도 전시 체제의 광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학교에 근로보국대가 만들어져 학생들이 강제노동력 동원에 나섰다. 한겨울 방과 후에 일본 신사의 보수 공사에 동원되는 등 점차 수업보다 노력동원이 더 늘었다. 수업이 있을 때는 방과 후에 동원되는 정도였지만, 방학 중 근로보국대는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 오전 6시 20분부터 5시간 동안 작업에 투입되었다. 오후에는 담당 교사의 훈시·세탁·학과 자습이 있었지만, 아침저녁 점호가 실시되는 집단 노동에 다름 아니었다. 군사교육이 실시되었으며, 1940년대에 들어서는 교복도 국방색으로 바뀌었다. 군사 교련 시간이 아니라도 각반을 차고 다녀야 했고, 모자도 군모로 바뀌었다. 1940년대 들어서면서 지원병을 가장한 군입대도 확대되었다. 광주서중학교에서도 4학년생 5명이 해군에 지원 입대하자마자 학교에서 중퇴시켜 즉시 입영하게 했다.

이런 와중에도 서중학교 내 학생 조직은 명맥을 유지했다. 1938년 주만우, 강한수, 유몽룡 등이 광주서중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의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유몽룡은 결국 그해 가을 퇴학처분을 받았으나 비밀 모임은 서중학생들 사이에서 유지되었다. 이런 가운데 1941년 3월 유몽룡과 주만우의 후원 아래 재학생 기영도가 중심이 되어 비밀 결사 무등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무등회의 중심은 장성 출신인 기영도였다. 기영도는 기태룡이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1941년 3월 선배 유몽룡의 소개로 무등회에 가입했다. 이후 1942년 신병으로 휴학하고 1943년 일본 동경예비학교·신숙고등예비학교를 다니다 귀국했다. 이후 교외에서 무등회와 관계하며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는 조병대·신균우·박하주 등과 더불어 “중학교육을 받은 우리가 독립지사가 되어야 하고 교련도 받아두면 쓰게 될 것이고 본래 일본보다 선진국인 한국은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료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신균우·박화진·이민수 등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무등회 회원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에 저항하고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활동을 벌였다. 처음 조직을 주도했던 기영도는 1942년 중퇴했으나 회원들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조병대는 조선독립이라는 벽보를 써서 전신주나 벽에 붙였다. 회원들은 수업시간에 교사들에게 내선일체정책의 실상에 대해 질문을 따지고 들었다. 기영도는 1941년 4월 광주서중 교실에서 일본인교사로부터 내선일체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꾸중을 듣자, 수업이 끝난 후 동급생 몇 사람을 모아 교사의 언사는 민족적 모욕이라고 반박하고 한국인의 차별에 대한 해결은 독립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1943년에는 신균우가 주도하여 서중학생들은 선배들의 의지를 계승하여 독립을 위해 쫓겨야 한다고 학생들 사이에서 광주학생운동 당시의 교풍 재건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런데 우연히 일어난 한 폭력사건이 빌미가 되어 일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1930년대 말 이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망은 한층 가혹해지고 정교해졌다. 촘촘한 감시망은 조직이 확대될만하면 여지없이 찾아냈고 연루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가혹한 고문과 긴 감금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정작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은 몇 안 되지만 관련자들은 재판 회부까지는 보통 1년 넘는 시간을 감옥에 갇혀야 했다. 그동안 갖은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이 사건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일제 말기로 경찰의 폭압과 극에 달하던 시점이었다.

이에 서중학생들은 ① 학병지원 반대 ② 창씨제도 반대 ③ 일어상용 반대 ④ 징병제 반대 등을 내걸고 1943년 5월 21일부터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이 맹휴는 6월까지 계속되었고 거기에 따라 350여명이 검거되었는데 이 중 180여명이 집중적으로 고문수사를 받았고 그중 80여명이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기소유예되거나 관련자로 연행된 수많은 학생들도 가혹한 고문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으니 전쟁 말기 일제 지배가 가장 엄혹한 시기의 모습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은 모진 고문을 자행했는데 기환도는 1944년 1월에 억울한 고문치사를 당하고 말았다. 경찰이 수갑을 채운 채 심야에 경양방죽으로 끌고 가서 발길질을 했고, 물속에 빠뜨렸다.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는 심한 상처를 입고 숨지게 되었다. 윤봉현, 강한수도 똑같이 잔학한 고문을 견디다 못해 옥사했다. 일경은 이를 모두 은폐하고 병사 처리했다. 1944년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유몽룡, 주만우, 남정준, 기영도, 신균우, 기원홍, 배종국은 징역 1년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민수, 박하주, 조병대, 박화진, 이민수, 오복렬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영도는 1944년 9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의 판결을 받았고 그 후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었으나 다음해인 1945년 8·15 해방으로 석방되었다.

무등회의 활동은 해방직전 광주전남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의 항일정서와 민족해방에 대한 염원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해방직후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자주적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과 직접 연결되고 있었다.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이 되는 날 광주서중학교에서 회장단이 결성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이고 무등회 사건으로 구속된 기환도를 고문 치사시킨 친일경찰 10여명을 재판하고 태형을 가한 사실은 이점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

3 장성의 독립운동가들

1. 송사 기우만의 제자 변순기

변순기는 장성을 장안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익혔다. 광주농림학교에 진학하여 신학문을 배웠으며 함평학교에 교사로 재임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침탈하여 학교에서 애국계몽을 가르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학교를 떠나 송사 기우만 선생의 문하에 들어갔다. 그 후로 함평여관을 운영하며 동지를 모아 변호사 서정희 등과 함께 조국해방의 뜻을 펴기 위한 모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19년 3월 10일 광주에서 김복현 등과 함께 1,000여명의 시위 군중을 주동하여 독립선언서와 경고문 및 독립가를 인쇄·살포하고 태극기와 모자 등을 흔들며 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면서 시위를 주도하였다. 일경에 체포되어 같은 해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언도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8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한 후 1921년부터 송사 기우만의 제자로서 전남학계의 대표로 활동하였고, 1927년 12월 신간회 장성지회가 창립되자 적극 가담하였다. 세금 불납운동을 전개하였고, 장안리 입구에 있는 서당 영사정에서 문맹퇴치 활동을 하였

다.

1930년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배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1931년 5월 신간회가 해체되는 날까지 후배 양성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활동하였다. 광주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는 “조선 사람이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며 당당하게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장안리 봉암서원 입구에 기적비(紀績碑)가 세워져 있다.

2. 승려가 된 독립운동가 변진설

변진설은 변순기의 장남이다. 8세부터 장안서재에서 한문을 배웠다. 1925년 광주고보를 수석으로 입학하였다. 1928년 광주고보 4학년 때 만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만주 등지에서 조선독립군의 활약을 듣고, 일제의 탄압에 반항하는 동맹휴업을 주도하며 “악랄한 식민지정착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5월부터 동맹휴학을 시작했다. 1928년 8월 26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 23일 장성경찰서 형사 4명이 광주고보 동맹휴업으로 퇴학 처분을 당하고 집에 돌아와 있던 변진설을 검거하였고, 정학처분을 당한 장성의 김천기와 김인중 등을 소환조사한 뒤 두 사람은 석방하고 변진설만 구금하였다”고 하였다.

1928년 10월 25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그해 11월 29일 대구 복심법원(고등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출소하였다. 출소한지 한 달 뒤인 1928년 12월 변진설은 양친에게 출가할 뜻을 전하고 1929년 1월 백양사 약수암으로 입산하였다. 4월 8일에는 만암 대종사의 증명으로 사미계를 받고, 운문암에서 참선하며 수행을 시작하였다.

변진설에 대한 기록은 그가 출옥한 뒤 승려가 되었다는 내용이 그의 부친인 변순기의 기적비에 나타나 있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다. 변진설은 출가하여 법명을 월주(月舟), 법호는 백용성 스님이 제자로 받아들이며 지어준 봉암(鳳庵)이다. 법호를 봉암으로 한 것은 그가 태어난 장안의 봉암서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출가하여 법명 월주가 된 그는 백양사에서 송만암 스님에게 처음 참선 공부를 시작하여 화엄사에서 당대의 불교학의 대가였던 진진운 스님에게 불교경전을 수학하였다. 1939년 독립선언문 33인 가운데 만해 한용운과 함께 불교계 대표였던 백용성스님의 문하에 들어가 그로부터 법을 전하는 전법계를 받았다. 이후 월주스님은 1938년까지 함양군 백전면 백운산에 있는 화과원 원주(주지)로 재임하였는데 화과원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의 독립자금을 제공한 곳이었다.

월주스님은 한국불교가 비구와 대처싸움이 일어나면서 조계종이 종조(宗祖)를 태고보우국사에서 보조지눌선사로 바꾸자 이를 ‘아버지를 바꾸고 조상을 갈아치우는 것[換父易祖]’이라며 태고종의 입장에 섰다. 월주스님의 첫 스승인 만암 대종사도 보조지눌을 종조로 세우자 종정을 버리고 백양사로 내려왔다. 불교계의 싸움에 환멸을 느낀 월주스님은 경남대학교의 전신인 해인대학과 마산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오직 제자들의 양성에 전념하였다. 마산대학이 경남학원에 넘어가자 학교를 떠난 그는 은둔수행으로 여생을 보내다가 1981년 입적하였다. 2006년 일제강점기의 학생운동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3.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 장성의 인물들

백상기는 1941년 4월 목포사립 문태중학에 재학하였다. 그는 내선일체 등 일제의 정책은 민족차별과 착취에

입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던 중 1943년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일본에게 불리하고 연합군 세력이 점차 본토에 육박해 오는 형세가 장기화되자 일본제국의 패전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때를 위해 문화·경제·인적 자질을 향상시켜 일본 패전 시에는 일본의 적국인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할 것이므로 한국은 일본제국의 기반으로부터 이탈하여 독립을 달성할 것이다.” 1944년 7월 12일 박본순에게 “이번 전쟁에 있어서 일본은 반드시 패망하고, 미국은 한국을 독립시킬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미국 내에 한국독립정부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충분한 실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국 독립에 뜻있는 자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는 등의 혐의로 피검되었다. 1945년 6월 15일 광주지법에서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단기1년·장기3년을 선고받았다. 1995건국포장.

백재호는 동경중앙대학에 재학 중 1939년 12월 귀국하여 연희전문 김상흠·서영원·김영하·윤주연 등과 함께 항일결사 조선학생동지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조선학생동지회는 사직동 윤주연 자택에서 3·1독립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독립투쟁을 하기로 하고 1942년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국내뿐 아니라 동경유학생 등 해외유학생과도 연락하여 거국적인 거사를 계획하였다. 백재호는 이때 외부 연락을 담당하였다. 또한 1940년 2월부터 1941년 7월까지 남한산성·냉천동약수터·연희전문학교 뒷산·벽제관 등 각지에서 회합하며 1941년 7월 동회의 하부조직인 원산상업학교의 조직이 발각되어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고 9월에 피검되어 퇴학을 당하였다. 1943년 3월에 함흥지법에서 징역1년, 1990 애족장(1980대통령표창) 수여.

이밖에도 **기동연**(노사의 문인)은 상해임시정부의 비밀연락망 연통제에서 전라남도 독판(책임자)로 활약했다.

황희연은 의병항쟁 관련 인사들과 기독교 지사들이 조직한 『국민대회』에서 상해 방면과 연락해가며 전라도 일대의 독립운동자금 조달 등의 활동을 하였다.

4. 장성의 사회주의 운동가들

기노춘(1897~?)은 전남 담양 출신이지만 장성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는 3·1운동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대학 2학년을 수료한 이후 중국공산당에 입당하고 북경한인청년회에 가입했다. 이후 귀국하여 1925년 재경조선해방운동자단체 연합간담회에 서울청년회 대표로 참석했고 나승규, 임호준과 함께 당시 장성에 있던 사상단체인 효성단에서, 그리고 담양농민조합연맹, 담양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그해 고려공산청년동맹 전남 책임자가 되었다. 1926년 전남청년회연합회에 참여했고, 조선사회단체중앙협회의 창립준비위원을 지냈다. 1927년 12월 장성청년연맹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8년 2월 상해에서 조선공산당에 입당하고 같은 달 귀국하여 3월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집행위원회 후보로 선임되었다.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1930년 11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장성 적색협동조합 및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한 혐의로 1933년 4월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1934년 11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김인수(1898~?)는 어려서 한학을 배웠다. 1925년 장성청년회 서무부 위원, 사상단체 효성단의 서무부 위원을 지냈다. 완도의 송내호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수의위친계에 장성에서는 김시중과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1927년 전

남청년연맹 중앙집행위원, 신간회 장성지회 총무간사, 장성청년연맹 위원장을 역임했다. 9월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광주야체이카(세포조직)에 배속되었다. 일경에 검거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31년 8월 출옥했다. 1932년 8월 『동아일보』 장성지국을 운영했다. 1933년 봄에 장성적색협동조합 및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했다는 혐의로 검거되어 1934년 11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36년 1월 출옥했다. 1937년 6월 다시 『동아일보』 장성지국을 운영했다.

김종익(1906~)은 장성 출신으로 구두방을 경영했고 광주청년회에서 활동했다. 1931년 2월 조선공산당재건설 준비위원회 오성(상?)세의 지도 아래 광주에서 공산청년회 전남재건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1933년 3월 '전남노동협의회 사건'으로 나주경찰서에 검속되었다.

임종웅(1903~?)은 장성에서 부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서울 중동학교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다녔다. 1925년 10월 정치학을 공부하기 위해 동경으로 가서 1926년 4월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과에 입학했다. 동경 조선노동동맹회에 들어가 중앙위원이 되었고, 신간회 동경지회에 가입하여 선전부 간사로 선임되었다. 1927년 11월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에 가입하여 후카가와(深川) 야체이카에 소속되었다. 1928년 8월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이 주도한 국치일 기념투쟁에 참가했다가 검거되었다.

이홍연은 김단야가 코민테른 조선위원회 위원으로서 1929년 이후 국내외를 오가며 당 재건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데 열중할 당시 1933년 전남 조직의 책임자였다. 그는 광주농업학교 재학 중에 백지동맹 사건으로 퇴학당한 후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한때 전남노동협의회에도 가담했던 이홍연은 1931년 평양에서 활동하다 일제 경찰에 검거되었지만 곧 석방되었다. 이후 전남노동협의회 영산포 책임자로 활동했으며 조직이 발각된 이후 일제 경찰의 수배를 피해 각지를 구속을 피하며 활동했다. 이홍연은 주로 광주와 목포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남 무안과 나주 등에서 농민조합까지 조직하려 시도하다 구속되었다.

5. 해외 독립운동가들

변극(1903~1980)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 변중선(衆船), 변장성(長城)이라 불렸다. 12세 때 부안군 계화도에서 한학자인 전우(田愚)에게 한문을 배웠고, 1919년 구례 친은사 하용화 스님을 만나 입산수도하였다. 신학문을 반대했던 부모를 끝내 설득하여 중동고보에 입학했고, 몇 개월 후 휘문고보 2학년에 편입학했다. 그러던 중 불교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중국 상해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것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상해 동제대학(同濟大學)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하였는데, 이때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23년 10월 24일에 상해교민단 동구의원으로 선출되어 유학생 300명을 규합하여 해외한인청년동맹을 조직하였고 중국인 학생들과 함께 상해에서 조계(租界)의 회수, 제국주의의 타파, 치외법권 철폐 등을 내세우며 시위운동(5·30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926년 10월에는 중국에 있는 한인단체를 통합하여 한인학우회를 결성했고 그의 집행위원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28년 4월에 체포되어 3년의 옥고를 치렀다. 상해 한인청년회장, 해외한인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장,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28년 봄 일본경찰에 붙잡혀 신의주감옥에서 5년간(3년간이라는 기록도 있다) 옥고를 치렀으며 귀국하

여 서울대학교·이리농과대학·전남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봉직하였다. 정년퇴직 후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초대학장, 법은재단 이사장, 법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독립운동가로서 건국포장을, 교육자로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서진순(1885~?)은 서초라고도 부르는데, 소련의 연해주로 망명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특히 김원봉의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약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이병우**는 1918년 서울중앙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서울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일경의 지명수배를 받고 인사동에서 의친왕의 근친인 김명자의 도움으로 3개월 동안 피신하였다가 이후 안재봉이 제공한 150원의 독립자금을 가지고 중국 상해로 탈출했다. 지하신문 자료를 국내의 이회승에게 밀송하였다. 1919년 9월 2일 임시정부의 특과원으로 전라도 지방에 파견되어 동지들을 규합, 독립자금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1923년 고양군 뜻섬에서, 1925년 종로 관철동에서, 1927년 종로구 가회동에서, 1935년 종로구 재동 등지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한약방인 '공인당(共仁堂)'을 경영했다. 이 한약방은 김성수·안재홍·여운형·한용운 등의 밀회장소이자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의 비밀연락처였다고 한다. 1990애족장(1983대통령표창) 서훈.

정완면은 1922년 1월 중국 봉천성 무송현 당하에서 대한독립군비단(軍備團, 중국 장백현 팔도구를 중심으로 1919년 이회삼·이영식·이병호 등이 조직한 단체로, 군비단의 총단장은 이회삼, 중대장은 이영식, 참모장은 이병호였다. 1921년과 1922년에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했고, 흥업단·광복단·태극단·백산무사단 등과 연합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정완면이 활동할 당시 군비단은 단원 150명, 러시아식 소총 70정, 권총 80정, 권총탄환 400발, 소총탄약 2,000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간도와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아 매월 600여 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내기도 하였다. 2015건국포장.

이만준(1891~1943)은 1919년 3월 5일 만주 길림성의 흥업단에서 회계서기로 근무하면서 민중계몽과 독립기지건설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1919년 3월 단장인 김호의 명령을 받고 이시영 등과 안동현에서 도만(渡滿)하는 애국청년 약 4~5백 명을 모집하여 백산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는 독립자금모집을 위해 국내로 들어와 활동하다가 경상도 군위에서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1920년 11월 김호와 흥업단 외교부장 김창규의 명령을 받고 군자금 20만원을 모금할 목적으로 김인제 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밀양·양산·대구 등지에서 활약했다. 1921년 3월부터 1922년 4월 하순까지는 손기성 등 16명의 동지들과 함께 밀양·양산·청도·영천·달성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였다. 1922년 4월 하순경 김우창·이재술 등과 함께 권총 2정과 실탄 47발을 휴대하고 봉화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 중 5월 27일 경상도 군위군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1990애국장(1977건국포장).

오석완은 만주 환인현에서 조직된 통의부에서 1925년 일제기관 폭파 및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대원을 국내에 밀파할 당시 동지 이중산과 동행으로 거지로 변장하여 군산으로 들어왔다. 군산에 정착하며 일경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장재여관을 경영하며 동지를 규합하였다. 학식과 건문이 뛰어난 총참모격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관공서·은행·일제 착취기관 등을 파괴습격하거나 지폐를 위조하여 군자금을 모집했다. 1927년 부호 강 모에게 지폐위조의 비용을 제공하라고 청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의 옥고를 치렀다. 이 일로 당시 군자금 모금을 위해 전라남도에도 파견

된 조인현(일명 오해룡)은 모든 계획을 중지하고, 오석완이 28년 5월말 경에 출옥하면 다시 계획하기로 하고 전주로 피신하여 이발사로 일하던 중에 박영관·이회춘·오오득·원월봉 등 14명이 일경에 체포되었다. 1933년 5월 16일 오전 2시에 서대문감옥에서 사망했다는 호적기록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1990애족장(1968대통령표창).

차영섭은 동경 일본대학에 재학 중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여 사회주의 사상에 공명하였다. 1940년 2월 이정현·정인달·박삼룡 등과 함께 비밀결사 동맹회를 조직, 임태하·김정복 등을 동지로 포섭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중일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마·영·소 등 서구 열강의 지원을 받아 민중들을 지도·계몽하여 적시에 봉기·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독립의식 함양에 힘쓰던 중 1941년 10월 체포되었다. 동경구치소에 수감되어 예심조사 중 1942년 5월 30일 출소했으나 고문으로 악화된 병세로 6월 29일 대삼병원에서 순국하였다. 1990애족장.

4 신간회 장성지회와 장성 건준

장성에서도 다른 지역처럼 일제 시대에는 좌우연합전선체인 신간회가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이들이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건준)에 대부분 참여하였다. 신간회 장성 지회와 장성 건준의 중심인물이었던 김시중과 송종근은 별도로 다루고 대략적인 것만 간략하게 서술한다.

장성의 건준과 인민위원회는 여타 지역에서와 동일하게 일제 시기부터 활동해온 지역 운동가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직되었다. 장성은 다른 지역과 달리, 1920년대 후반 좌우 연합전선으로 결성된 신간회 조직이 꾸준히 보존되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신간회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건준의 핵심체로 등장했는데, 신간회 부회장이었던 송종근이 건준 위원장을 맡은 것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간부직을 신간회 회원들이 맡았다. 신간회 장성 지회와 장성 건준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간회 장성 지회 조직 구성>

집행위원장 : 김시중

집행위원 이혁구·이영구·임종국·김규환·김옥·김기형·변동갑

후보위원 유궁희·송종근(신간회 광주지회 장성 대표)·김장환, 감사위원장 신경식

감사위원 임대규·고형주

대표회원 김시중·송종근·김규환

<장성 건준 조직 구성>

위원장 : 송종근

부위원장 : 김규환

평의원 : 이혁구·이영구·변진풍·차치중·변동갑·임종국·김옥·김기형·유궁희·김장환·신경식·고형주·나승규·김종선
·이영배·김병기·박중진

1929년 12월에 결성된 장성 신간회는 송종근 등이 출판법 위반으로 구속된 후 1931년 2월말 다시 재조직되어 집행위원장에 김시중, 집행위원에 이혁구·이영구·임종국·김규환·김옥·김기형,변동갑, 후보위원에 유궁희·송종근·김장환, 감사위원장에 신경식, 감사위원에 임대규·고형주, 대표위원에 김시중·송종근·김규환 등이 임원이 선출되어 활동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나승규·김종선·송종근 등은 성진회 회원으로, 이영배·김병기·박중진 등은 독서회 활동을 하면서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주도적 활동을 하다가 투옥되어 광주지역법원과 대구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건준위원들 중 이영구는 ‘천석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으며, 나승규는 400여 두락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성지역에서는 지주층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1948년의 남북협상 때 김구와 같이 민중동맹위원장 자격으로 월북한 후 그곳에서 교육상까지 지냈다고 한다. 건준위원이었던 변진풍은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졸업한 후, 상해임시정부에서 청년단장을 지내다가 입국했는데, 한국전쟁 때 서울에서 대학교수를 지내다 월북했다. 해방 이후의 건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치안대는 임종용이 이끌었으며, 치안대는 경찰서를 접수하여 치안업무를 수행하였다.

장성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개편된 것은 1945년 9월말 또는 10월초였다. 개편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건준 구성원의 대부분이 인민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변경 없이 연결된 것으로 봐서 중앙지시에 의한 개편으로 보인다. 위원장에 송종근, 보안부장에 임종용, 산업부장에 김인수, 산업부원에 김재중이 활약했으며, 그 외에 노동조합장에 이영배, 북이노동조합장에 변재성, 농민조합원으로 변진풍·이영규·김병기 등이 활약하였다.

산업부장 김인수는 일제 때 신간회에 관여하면서도 평의원까지 지냈다. 일제 말 장성면장을 역임한 소지주 출신이지만 그에 대한 장성군민들의 평판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위원들에 의해 천거된 것 같다. 또한 초기에 장성에서 활동하던 김종선은 도 인민위원회로 진출하여 1945년 11월 20일부터 개최된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 전남대표 5인에 포함되어 참석했다.

김종선은 이 회의의 확대집행위원회 2일째 되는 날 전남의 식량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전남에서도 양미가 부족한 처지이다. 남은 듯 싶으나 간상배의 미곡소지, 타 지역에서 전쟁이민이 본도로 유입하여 인구가 늘어나 쌀의 다대한 소비가 예상되어 금후로 식량부족이 우려된다.” 이는 당시 전남지역의 쌀부족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건준 치안대는 보안서로 개칭되어 임종용이 보안서장으로 임명되어 이끌었는데, 경찰서를 접수하여 치안업무를 수행하였다. 장성 보안서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장성읍에서 북동쪽으로 15킬로미터쯤 떨어진 사거리의 식량과 무기집적소를 지키는 일이었다. 변시연의 증언에 의하면, 사거리의 식량집적소는 고창 정읍, 순창에서 모인 쌀이 임시 집적되었다가 목포로 운반되었던 것으로,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수천석이 노적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미 53보병중대의 관찰부대가 10월말 경 진주하여 임종용의 보안서로부터 인계받았다.

이처럼 초기에는 인민위원회와 미군정간에 갈등은 없었지만 1946년 2월 김복수, 김권일, 김권오 등이 한민당 지부를 결성하려다 실패한 후 농민조합원인 변진풍·이영규·김병기 등에게 테러를 가했는데, 인민위원회에서 한민당관계자들의 일본도, 총, 실탄 등을 압수하고 체포하자 한민당 관계자들이 미군에 이들을 밀고하여 송종근 등 인민위원 18명이 불법적산관리혐의, 불법폭력혐의로 구속되었다.

그 후 임관호가 미군정에 의해 군수로 임명되고, 미군정과 광주특경대에 의해 보안서가 접수되어 김준중이 경찰서장에 임명됨으로써 인민위원회는 무력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전국농민조합 장성대표로 참가한 3인의 한 사람인

김장환은 인민위원회 잔존세력을 재규합하여 인민당으로 재통합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민족전선 장성지부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5 장성 사회운동과 김시중

장성의 사상가 송종근 그리고 나상운

장성의 사회운동가 김시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두 사람이 있다. 장성의 사상가 송종근 그리고 나상운이다.

송종근은 서삼면 해평 마을에서 구한말 성균관 박사(교수)였던 송영순의 손자이며 대구세무서장을 지낸 송규락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평 마을은 원래 하평이라고 불려왔는데 그의 조부인 송영순의 사랑채에 당시 군수였던 김성규가 <해동거사>라는 액자를 써 붙인 후 해평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4세 때 만주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을 역임한 석주 이상룡 선생을 만나 조선독립사상을 품고 상해임시정부에서 7년 동안 석주 선생의 곁에 머물렀다. 석주 선생은 독립투사를 양성하던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이다. 31세 때에 조선으로 돌아와 신간회 장성지회 부회장이 되면서 회장이던 김시중과 함께 장성의 '장성노동·농민조합 사건'의 핵심 주역이 되었다.

나상운은 삼서면에서 태어나 1926년 청년총동맹 장성청년연맹에 가입하여 집행위원이 되고, 삼서농민조합 집행위원장, 장성농민조합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신간회 장성지회 간사를 역임하고 1929년 조선총동맹 전남연맹위원장이 되었다. 1931년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관련되어 대구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언도 받아 형기를 마쳤다. 1931년 11월 경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함께 처벌을 받은 김기주, 이영백 등과 함께 장성노동조합, 장성정미조합의 노동자들을 의식화하여 조선의 독립과 사회체계의 변혁을 주도한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다.

하서 김인후의 후손이자 신호 김녹휴의 증손자로 태어나다

현재 월평초등학교(장성군 황룡면 소재)에는 기념비가 하나 서 있다. 학교 설립자를 기리기 위해 학부형과 지역 유지들이 1920년 9월에 세운 공적비이다. 학교 설립자는 바로 김시중이다.

김시중은 하서 김인후의 12대 후손이다. 김시중의 집안은 7대 선조인 김운서부터 장성군 월평에서 터를 잡아 살기 시작했고, 이때에 많은 재산을 이루게 된다. 그의 아버지는 만석꾼인 규익으로 김시중은 부친인 김규익의 5남 중 장남으로 1892년 10월 18일에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서 출생했다. 김시중은 노사 기정진의 제자인 신호 김녹휴의 증손자이기도 하다. 광주서중 무등회의 기환도가 같은 마을 출신이다.

만석꾼이라던 김규익의 재산도 김시중이 물려받을 때는 천석꾼 정도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이 부유하고 유복했는가를 나타내는 말이 지금도 장성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어느 여름날 김시중의 동생이 자

신의 목에 파리가 앉자 “어머니 파리가 앉아서 목이 아파요.”라고 말했다 한다. 이러한 가정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시중은 한때 장성의 덕울암에서 한학을 공부하는 등 양반사회가 지향하는 충·효·예 등을 중요시하며 성장했다.

19세기 말 조선사회의 모든 곳은 엄청난 격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특히 김시중이 살고 있는 황룡면은 동학농민전쟁의 격전지였으며, 기삼연을 중심으로 의병들의 항일투쟁이 드셨던 지역이었다. 또한 일제가 주도했던 호남선 철도건설 과정에서 일본군에 대항하는 장성 주민들의 싸움이 치열했던 곳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 지역의 유지지로 자처하던 김시중의 부친은 이러한 투쟁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의 넓은 집을 일본군의 주둔지로 제공하는 등 애매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창평 영학숙에서 공부하고 사립월평보통학교를 설립하다

김시중은 12세가 되면 창평 영학숙에서 한학이 아닌 새로운 학문에 접하게 된다. 창평 영학숙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고정주가 설립했다. 이곳은 지주들의 자제들을 모아 공부하던 곳인데, 훗날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게 된다. 즉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송진우, 김성수, 백관수, 김병로 등이 창평 영학숙에서 공부했던 것이다. 특히 김성수는 집안의 조카이자 친구였다. 여기서 그는 새로운 학문을 익히고, 이들과 친구 관계도 맺었다.

창평 영학숙에서 집으로 돌아온 김시중은 3·1운동을 겪게 되었다. 운동 당시 김시중이 무엇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3·1운동 이후 김시중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학교 설립이었다. 물려받은 땅을 팔아 4,000원을 만들고, 당숙인 김요중도 장성 진원에 있는 땅을 팔아 2,900원을 보탤다. 학교부지와 교사는 김시중의 행랑채를 개조하여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사립월평보통학교는 1920년 9월에 4년제로 문을 열게 된다. 김요중은 교주(현 이사장)를 맡고 자신은 교장이 되어 학교를 운영했다. 1922년 3월 11일자 동아일보에 “사립월평보통학교가 2월 26부터 28일까지 교장 김시중과 교원(교사) 김복수의 인솔로 졸업생도 17명을 인솔하여 목포항을 견학하고 무사히 귀향하였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학교를 설립했지만 이윤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사금은 거의 받지 않다시피 했으며, 또한 수업의 주요 내용이 민족정신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시중이 벌인 최초의 사업은 실패하게 된다. 당시의 상황에서 민족교육의 제도화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다. 1922년 사립월평보통학교는 일제의 2차 교육령이 실시되면서 조선총독부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탄압의 이유는 학교의 수업 내용이 반일사상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졸업생들 중 많은 사람이 반일운동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립월평보통학교는 3회까지만 졸업생을 배출하고 곧바로 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 이 학교가 현재 월평초등학교의 전신이다.

신간회 장성 지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교육사업이 실패하고 한동안 실의에 빠져 있던 그는 서울에서의 신간회 결성 소식을 듣게 된다. 신간회는 당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좌우익이 합작해 만든 그야말로 민족운동의 중심체였다. 1927년 12월 23일 장성에서는 김시중 등이 주축이 되어 그의 사랑에서 신간회 장성지회 결성을 했다. 이렇게 결성된 장성지회는 김시중을 위원장으로 추대한다. 그가 추대된 이유를 당시 장성에서 거주했던 변돌기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김시중 씨가 천석꾼이라

돈도 많고 울산 김씨라는 양반이면서도 장성을 위해 학교도 세운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그를 추대했었지.”

한편 신간회와는 별도로 당시 성장하고 있던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장성농민조합이 결성되었다. 장성 농민조합은 1928년 1월 17일 동아일보 장성지국에서 장성농민조합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 25일 장성농민조합 창립총회를 갖게 된다. 조합 결성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독서회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던 나승규, 송종근과 김인수 등이었다. 이때 김시중은 일생을 함께하는 동지이자 사상적 선배인 송종근을 만나게 된다. 농민조합활동을 위하여 장성군 서삼면에서 월평으로 이사를 온 송종근은 장성 지역 사회주의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다. 이후 장성 지역의 사회운동은 한편에서는 신간회를 축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농민조합을 축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활동이 치열할수록 일제의 탄압도 가중되었다. 1929년 1월 4일 신간회 장성지회 부회장이자 농민회의 중요한 활동가였던 송종근은 내외정세에 관한 유인물을 작성, 배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계속해서 2월 1일 장성지회의 정기총회 도중 김시중 등 간부 5명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게 김시중 등은 각각 3년간의 집행유예를 그리고 송종근은 6개월의 금고형을 받았다.

이와 같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신간회 장성지회를 전국적으로 해체논의가 이루어지던 1931년 2월 26일 장성역 앞 감자청년회관에서 제4회 정기대회를 열고 김시중의 사회로 해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더 진보적인 조직이 출현할 때까지 신간회 조직을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은 대세에 밀려 해체를 결정하고 말았다.

장성협동조합운동에 뛰어든다

신간회가 해체된 이후 김시중은 또 다른 형태의 항일운동을 전개했는데, 바로 장성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이었다. 1933년 김시중은 장성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도와주다가 구속·기소되었다. 대구복심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김시중은 “1924년 3월부터 1927년 3월까지 전라남도 민선평의회원이 되어 도정에 자문하면서 조선총독정치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1927년 12월부터 1931년까지 신간회 장성지회장과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고, “장성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사회의 변화와 조선의 독립이었다”고 판시되어 있다. 또한 나상운·김인수의 판결문에 의하면 “장성협동조합이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결성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였다”며 이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한 것이 형벌의 원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1935년에는 광주 지역에 설립된 무등양말에 대구주로 참여하기도 했다. 무등양말은 양태승, 조상항, 송종근, 최현 등을 주주로 하여 독립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운영 미숙과 자금난 등이 겹치면서 실패해 1937년 고광표(고광표 역시 창평 영학숙 출신으로 설립자 고정주는 그의 백부이다. 고광표는 이후 김시중과 함께 한민당에 관여한다)에게 팔리고 만다.

이와 같이 지주라는 사회경제적 테두리를 뛰어넘어 항일운동에 뛰어든 김시중은 그 과정에서 천석지기라던 재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조차 했다. 그러나 해방의 그날까지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걸었던 사람이었다.

좌익 친구와 우익 친구 사이에서

해방이 되자 김시중은 자신의 항일 경력에 걸맞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 해방이 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망 속에서 전국적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전남 건준은 1945년 8월 17일 광주극장에서 결성되었는데,

여기서 김시중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건준에서의 김시중의 활동은 두드러졌다. 그는 전남건준에서 서울의 중앙 건준에 신임장의 수령을 위하여 파견된 대표 5명 중 한 사람이었으며, 최초의 목적이 실패하고 서울 지역의 정세를 살피기 위하여 남은 2명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이때 남은 다른 한 사람은 고광표였다.

서울에서 상주하던 이들은 김성수 등을 만나면서 서울의 정세를 듣고 한민당의 결성을 듣게 된다. 이때부터 김시중은 김성수, 송진우 등과의 친분 때문인지 한민당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그가 걸어왔던 1920~30년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사회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즉 그는 민족주의 좌파에 속하는 사회운동에 가담했다가 흔히 우익으로 불리는 한민당 중앙위원을 거쳐 한민당 전남지부장을 맡게 된 것이다. 그는 한민당 전남지부장으로서는 군 지부 결성과 강연회 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한민당 사무국장이었던 이병두 씨는 “김시중 씨가 한민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정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 좌익과의 연계가 있었던 것 같았다.”고 말한다.

그 뒤 3년여를 한민당에 있던 그는 송종근의 종용으로 한민당을 그만둔다. 김시중은 한민당에 있으면서도 공산당 활동을 하고 있던 송종근에게 자금 지원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민당을 그만두고 얼마 뒤에 개인적인 일로 서울에 간 김시중은 그곳에서 6·25를 맞는다. 혹자는 이때 김시중이 이북에 갔다고 증언하나 그 진위는 알 수가 없다.

6·25가 발발하자 김시중은 피난민 행렬에 섞여 장성으로 돌아온다. 장성에서 그는 과거 자신이 살았던 동네에서 임시로 집을 빌려 살았다. 그의 절친한 친구인 송종근은 6·25가 발발하면서 장성군당 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나 김시중은 아무런 직책 없이 그냥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1951년 9월 12일(음) 국군에 의해 장성은 수복되었다. 수복 후 김시중은 송종근과 같이 산으로 피신하지만, 며칠 후 장성을 야은리 뒷산에서 두 사람 모두 국군에게 붙잡히게 된다. 이때 송종근은 현장에서 바로 총살되었다고 전해지며, 김시중은 광주로 넘어간 것까지 확인되었으나 그 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성에서 살고 있는 촌로들에게 김시중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아! 일제시대의 공산주의자”라고 답한다. 가족들에게 물으면 사회운동가라고 대답한다. 혹자는 양반 명문가 자제로서 지주였다고 대답하기도 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처럼 김시중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극단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폭넓은 삶을 살다가 한 시대를 마감한 인물이다.

김시중과 함께 장성노동조합과 농민조합,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나상운, 김인수, 남궁현, 김창한, 이수길, 기원홍, 기노춘, 송종근, 고흥주 등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훈·포장은 물론 『장성군사』에서도 이들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참고자료

장성군사편찬위원회, 『장성군사』, 1982.

안종철·최정기·김준·정장우, 『근현대 형성과정의 재인식 (1)연구 : 해방 후 사회운동』, 중원문화, 2010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이기훈),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 민족독립운동』, 2015

광주광역시·전라남도(안종철),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 해방 후 사회운동』, 2015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장성군민신문,



기행紀行이란
생각에 파문波紋을
일으키고

삶을 변화變化시키는
학습學習·양생養生이다!